

杆城郡 邑誌

(原 水城志)

高城文化院

杆城郡 邑誌

(原 水城志)

高城文化院

發刊辭



우리 고장이 변천해 온 자취를 더듬어 청사에 담은 意義는 선조가 남긴 숨결과 흔적을 바르게 규명하여 오늘에 사는 우리가 거울로 삼음으로써 역사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인들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값진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 간성군읍지는 1631~1632(인조 신미년) 간성군수로 부임한 滯堂 李植이 편찬 水城誌와 그후 1884년 간성군수로 부임한 高永喜(1884. 3~1884. 9)가 水城誌를 근거로 증보발간된 간성군지로 奎章閣藏書로 소장되어 있음을 인지·자료를 인수한 바 그내용이 순수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한자전문해설가(춘천시 朴升漢)에게 해설을 의뢰 출간케 되었습니다.

『古人의 말에 先人들의 공적은 많을 것인데 그 공적을 알고 있지 못함은 不智의 탓이요 그 공적이 전하는 데에도 전해지고 있지 못함은 不仁의 所致』라 하였습니다.

이제껏 귀중하고 소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을뿐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입지를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출간케 됨을 한편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선열들이 남기신 고귀한 숨결과 흔적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재조명해 봄으로써 역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고장의 참된 보람과 함께 진정한 주인의식과 애郷심을 길러주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본지 해설을 맡아주셨던 朴升漢 선생님의 진정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지 편찬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1995. 6.

高城郡 文化院長 咸 熙 詐

杆城誌 序文(原本 4, 142)

郡邑에 郡, 邑誌가 있는 것은, 나라에 國史가 있는 것과 같다. 國史란 씨족(氏族)의 일상생활이 직무(職務)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많이 없어진다. 하물며 郡守의 직분으로 백성을 다스리며(理民) 여력(餘力)으로 문헌을 찾아 郡誌를 저술하는 일은 역시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300여개의 郡이 있는데 그 명성(名聲)이 융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郡誌가 있는 곳은 10여郡에 불과하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文明을 풍족하게 하는 일인데도 그리 쉽게 못하는 것이다.

나의 벗인 德水 李植(字는 汝固)이 지난해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杆城縣監으로 있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正三品의 堂上官 벼슬) 제자리로 불러 돌아가게 되었다. 在任 이듬해에 수성지(水城志) 한권을 저술하였다. 杆城은 嶺東의 작은 郡으로서 縣으로 격하(格下)되기도 하고, 거리도 먼僻地(僻地)의 고을이다.

이제 汝固가 훌륭하게 꾸민 文化의 산물이 장차 四方에 유포되고, 현저(顯著)한 地人關係를 어찌 不償 하겠는가.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또 느낀 바가 있다. 지난 1629년(己巳, 仁祖 7年) 내가 벼슬이 강등 되어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있던 羅州는 본래 기름진 평야가 넓은 州이다.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만일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면 저술(著述)을 못했을까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주지(州誌)에 뜻이 있었는데 마침내 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슬프다. 나주목사(羅州牧使)를 그만두고 간성(杆城)에서 汝固를 만났다. 이것이 어찌 뜻밖의 일이고 헛수고 이겠는가. 나는 이분 것이 없으나, 내가 아는 여고(汝固)는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杆城誌에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

1633年(癸酉, 仁祖 11年) 초가을(陰 7月) 張維 序

[譯者 註]

1413年(太宗 13年 癸巳) 地方制度(郡, 縣)

留都府 1

府尹 6(慶州, 全州, 水原, 開城, 平壤, 咸興)

大都護府 5(安東, 昌原, 江陵, 永興, 寧邊)

牧 20(羅州, 坡州, 楊州, 忠州, 清州, 公州, 洪州, 尙州, 晉州, 星州, 光州, 綾州, 羅州, 濟州, 黃州, 海州, 原州, 吉州, 安州, 定州)

都護府 74, 郡 73, 縣 154, 合 334

[張維 略歷]

(1587~1638) 朝鮮 仁祖때의 文臣 字는 持國, 號는 谿谷(계곡), 默所, 諡號(시호)는 文忠, 본관은 德水, 張雲翼의 아들, 光海君때 文科에 급제, 檢閱 등을 지내고 仁祖 反正에 가담하여 正郎에 오르고 이어 靖社功臣 2등이 되었다. 李适의 난때 王을 公州로 扈從(호종)하고 申豐君이 되었고, 丁卯胡亂 때 王을 江華에 호종하였으며 丙子胡亂 때는 工曹判書로 講和를 주장하였다. 뒤에 新豐府院君에 進封되었다.

文章에 뛰어나 李廷龜, 申欽, 李植 등과 더불어 朝鮮文學의 四大家라는 칭호를 받았고, 天文, 地理, 醫術, 兵書 그림, 글씨 등에 능하였다. 著書에 谿谷漫筆, 谿谷集, 陰符經註解가 있다.

[參考]

字: 장가든 뒤에 본이름 대신으로 부름.

號: 본이름이나 字외에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

諡號: 帝王, 卿相, 儒賢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생전의 공덕을 칭송하여 追贈하던 이름.

靖社功臣: 仁祖反正에 功을 세운 김유, 이괄 등 53人에게 내린 “勳”의 이름.

檢閱: 藝文館에서 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正9品벼슬 通鑑, 左傳, 諸史 中에서 講을 시켜 合格的 者로 任命.

杆城郡誌(原本 6, 143)

杆城에 前에는 郡誌가 없었다. 백당(澤堂) 李植이 郡守로 있을때(1631~1632) 처음으로 자료를 찾아 모으고 著述이 시작되었다. 계곡(谿谷) 張維가 序文을 썼다.

그후부터 혹은 감영사(監營使)가 저술하여 올린 읍지(邑誌) 즉 쉽게 동사(謄寫)하여 상납하였고, 今年부터 감영(監營)과 여러고을에 命을 내려 著述하여 올리게하고 本文 밑에 범례(凡例)와 조목(條目)을 쓰고, 이전(以前) 지(誌)에 소재(所載)한 것이 혹 서로 같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또는 마땅히 있어야 할 事實이라면 써넣은 사람을 반드시 밝혀 별도로 차례대로 기입해야 하고, 신증사실(新增事實)을 써넣은 사람은 附錄(附錄)에다 별도로 써(書)야 한다.

郡의 沿革(原本 6, 143)

본래 高句麗 수성군(守城郡){또는 가라홀(加羅忽)}이 新羅 때에는 守城郡으로 고쳐 불렀고, 高麗시대에는 지금의 이름(杆城)으로 내려오다가 현치령(縣置令)으로 縣으로 강등 되었다가 後에 郡으로 승격하면서 高城郡까지 환할하게 되었다. 1389年(己巳, 恭讓王[高麗 마지막 王] 元年) 둘로 갈라 노았다. 1604年(甲辰, 宣祖 37年) 間에 본 郡 인근에 북관(北關)을 두고 郡守를 겸한 조방장(助防將)을 뽑아 堂上(堂上) 武臣에 제수(除授=판리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王이 직접 임명함) 하였다가 1623年(癸亥, 仁祖 元年)에 폐지하고 다시는 武臣을 두지 않았다.

1629年(己巳, 仁祖 7年) 郡에서 종(奴)이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郡을 縣으로 강등 시켰다가 10年後 다시 郡으로 승격시켰다.

烈山縣에 속해있을때 郡에서 北쪽으로 35里 거리에 있는데 본래는 고구려 송산현(僧山縣)이었다. 일명 소물다(所勿多)로 신라 景德王때 동산(童山)으로 불렸고 군령현(郡領縣)에 속했다가 高麗때에는 잉구군(仍舊郡) 혹은 童山이라고 불렸다.

附錄

지금의 烈山을 살펴보면 本郡 北쪽 경계에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고, 이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면 前에부터 縣으로 있을때 호장(戶長)의 도장(印章)은 경자자(庚子字=1420年, 世宗2年, 庚子年에 만든 銅活字)로서 戶長 一人의 도장이다. 매달 음력 초하루, 보름날에 郡에 들어가 참견(參見=참석하여 관계함) 하였는데 10年前에 戶長은 죽고 자손이 없었다. 이때부터 세습을 없애고 縣을 두지않고 그 도장은 郡 지통(紙筒=재래식 종이를 쓸때 감을 붙여 풀어담는 나무통) 위에 두었다.

郡名 수성(守城)의 “守”자는 운서(韻書=中國)의 전통적인 發音表記 字典)에도 없고 할간에 전해오온 “守”의 음과 뜻은 “守”字의 음과 뜻이 같다. 가라홀(加羅忽), 守城, 水城, 한성(桿城)이 杆城으로 되었는데 “桿”이 어느때부터 어째서 “杆”으로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강계(疆界=郡의 경계)

郡 소재지는 南山밑에 남북으로 흐르는 두 河川 사이에 위치한다.

東쪽으로 海안까지는 7里

南쪽으로 襄陽府 경계까지 56里

北쪽으로 高城郡 경계까지 67里

西쪽으로 인제현(麟蹄縣) 경계까지 50里

漢陽(서울)까지는 527里이다.

目次

發刊辭	3
序 文	張維 / 4
沿 革	6
第一章 山河	15
1. 山系	15
2. 湖沼	17
3. 河川	18
4. 奇巖	19
5. 島嶼	20
6. 海津	21
第二章 亭子	23
1. 城池	23
2. 古蹟	24
3. 亭榭	25
第三章 物產	31
1. 土產	31
2. 魚鹽	32
3. 藥材	35
4. 場市	38
5. 牧場	39
6. 堤堰	40

第四章 交通 41

1. 道路 41
2. 驛院 42
3. 關隘 42
4. 烽燧 43

第五章 行政 45

1. 廳舍 45
2. 官職 47
3. 坊里 48
4. 戶口 54
5. 軍額 54
6. 官案 56

第六章 租稅 65

1. 田賦 66
2. 徭役 67
3. 進貢 69

第七章 寺廟 73

1. 鄉校(學校) 73
2. 寺廟 74

第八章 人物 81

1. 風俗 81
2. 姓氏 82
3. 人物(孝子, 烈女, 忠臣, 及第) 83

第九章 說話 87

1. 東海 黃龍 87
2. 浪說에 놀란 官吏들 88
3. 癸卯 大飢饉 88
4. 壬子 大火災 89
5. 日蝕과 流星 90
6. 漂流 漁夫 90
7. 異樣船 90
8. 바다가 열다 91
9. 九折瀑 91
10. 바람(西風과 東風) 92
11. 湫潭의 黃龍 92
12. 陰火 93
13. 大雪(눈사태) 93

第十章 漢詩 95

客館 95

1. 安 軸 95
2. 許 伯 95
3. 朴民默 95
4. (1) 具思孟 96
- (2) 具思孟 96
5. 洪慶臣 97
6. 許 蔚 97
7. 車 軾 97
8. (1) 李光胤 98
- (2) 李光胤 98
9. 金汝晦 98

〈新增〉 98

10. 李重協 99

11. 吳道一	99
---------	----

荷舍

崔豈 16 詠	99
---------	----

(1) 清風竹	99
---------	----

(2) 露月蓮	99
---------	----

(3) 懷露菊	100
---------	-----

(4) 擎雪松	100
---------	-----

(5) 朝陽桐	100
---------	-----

(6) 夕陽梨	100
---------	-----

(7) 向日葵	101
---------	-----

(8) 霜 葉	101
---------	-----

(9) 雨 石	101
---------	-----

(10) 影 池	101
----------	-----

(11) 栢樹松	101
----------	-----

(12) 拜蒲竹	102
----------	-----

(13) 水 確	102
----------	-----

(14) 石木峰	102
----------	-----

(15) 海 棠	102
----------	-----

(16) 石 竹	102
----------	-----

〈新增〉	
------	--

1. (1) 李 植	103
------------	-----

(2) 李 植 四時詞	103
-------------	-----

2. 金昌翕	104
--------	-----

〈新增〉	
------	--

濃香亭	
-----	--

1. 李 植 10 絕詩	104
--------------	-----

2. 李植	106
-------	-----

3. 趙宗著	107
--------	-----

幽閒亭	
-----	--

1. 安 軸	107
--------	-----

2. 具思孟	107
--------	-----

3. 楊士彥	108
4. 崔 岏	108
永郎湖	108
1. 安 軸	108
2. 李 穀	109
3. 具思孟	109
花津浦	109
1. 具思孟	109
2. 崔 岏	109
萬景臺	110
1. 鄭 樞	110
2. 安 軸	110
3. 吳 軾	110
4. 盧守慎	110
5. 具思孟	111
6. 崔 岏	111
清澗亭	111
1. 金克己	111
2. 白惟讓	112
3. (1) 楊士彥	112
(2) 楊士彥	112
4. 車 軾	113
5. 崔 岏	113
6. 具 忭	113
7. 楊士俊	113
〈新增〉	113
1. (1) 李澤堂	113
(2) 李澤堂	114
2. 趙宗著	114
3. (1) 朴吉應	114
(2) 朴吉應	115
4. (1) 柳夢寅	115

(2) 柳夢寅	115
5. 尹履之	115
6. 李 肇	116
7. 俞得一	116
8. 李德壽	116
9. (1) 金尙星	116
(2) 金尙星	117
10. (1) 李勤仲	117
(2) 李勤仲	117
11. 吳遂采	117
12. 李重協	118
13. 吳命俊	118
所坡嶺 金克己	118
無盡臺 具思孟	119
凌波臺 具思孟	119
茂松臺 鄭 礎	119
明波驛 鄭 樞	119
李逢衷	119
跋 文	金光遇 / 121
跋 文	高永喜 / 122
翻譯編輯後記	朴升漢 / 123
原本 江原道 杆城郡 邑誌	126

第一章 山 河(原本 12, 13, 145, 146)

郡 경계를 이루는 山은 모두 고개이고 山줄기는 능선(稜線=산등을 따라
 죽 이어진 봉우리의 선) 이거나, 山봉우리 이다. 모든 물줄기는 산마루를 사
 이에 두고 발원(發源)하여 대개는 급경사로 흐르거나 폭포형태로 떨어져 골
 짜기로 모여 河川을 이룬다. 해안평야 지대를 흐를 때는 비교적 곧게, 혹은
 깊은 골짜기를 흐르다가, 물이 정체상태의 늪을 이루기도하여 뛰어난 경치
 를 이룬다. 東北風이 불어 파도가 높게 일면 모래와 자갈을 밀어부쳐 모래
 독을 쌓아 湖水를 만든다. 모래로 둘러싸인 해안호수는 맑고, 크고, 평평하
 다. 양 기슭의 모래 자갈이 빛나고, 우뚝 솟은 바위와 굴곡은 장관(壯觀)을
 이루고, 높은 고개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東北쪽이 가장 절경(絶景)이다.
 杆城郡내에서 湖水가 가장 많은 곳은 南쪽과 北쪽이다.

湖水를 살펴보면 山골짜기의 물이 유입되어 저수된 호수가 아니라 바다
 물이 땅속으로 서로 연(連)하였다. 산골물이 유입(流入)되어도 수위(水位)
 가 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해변에 있는 湖水는 가까이에 있는 땅도 염분
 (鹽分)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업용수(農業用水)로 不可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1. 山(原本 14, 15, 146)

南山…郡 南쪽 5리에 위치.

五脊山…郡 南쪽 10리 기우제(祈雨祭)를 지냄.

金剛山…郡 西北쪽 20리 즉 건봉사(乾鳳寺) 뒷山이다. 이山 北쪽의 모든
 수계(水系)는 高城郡으로 흘러가고, 南쪽 江은 모두 회양부(淮陽府)로 흐른
 다. 금강산을 살펴보면 높은곳은 淮陽과의 경계가 되고, 거리는 郡에서 145
 리이다. 본래 郡경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郡內 모든山이 다 금강산에서

시작된 조종(祖宗)인 동시에 名山인고로 억지로 끌어다 맞추는 것이다. 좋은밭(良田)까지도 金剛山에서 왔다고 한다.

麻耆羅山(마기라산)…郡에서 正 西쪽으로 30리에 있으며 杆城邑의 산산(鎭山=서울 뒷 각 고을 뒤에 있는 큰山으로 그곳을 지켜주는 主山)이다. 최고봉인 향노봉(香嶺峰)은 큰 가을매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國東山(국동산)… 마기라산(麻耆羅山) 西쪽에 위치한다. 西쪽으로 楊口와 정계하고 산세가 가장 높다.

天吼山(천후산)… 郡 南쪽 70里. 이 山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山中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큰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이 山이 성인(聖人)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가 부처와 같고 그 옆에 있는 큰돌이 마치 쌀긋간(困廩=군름) 같아서 항간에서 부르기를 禾岩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방수(防戍=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킴)가 이곳에 있었는데 고점라(曩昔祿)라는 돌(石)이 적(敵)에게는 양쪽을 쫓아둔 것으로 보여져서, 적이 퇴각 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禾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古城…즉 烈山의 진산(鎭山=각 고을 뒤에 있는 큰山으로 그곳을 지켜주는 主山)이다.

鼎山(정산)…郡 南쪽 30里, 麻耆羅山의 南쪽 지맥(支脈)중에 정산(鼎山)이라는 봉우리가 솟아 있다. 태고(太古)에 바다의 큰 조수(潮水)가 밀려왔을 때 솟갈이 생긴 이 山과부에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솟정자 鼎山이라고 이름을 부치게 되었다.

國祠堂山(국사당산)…郡 南쪽 50리에 한 수려한 산봉우라 위에 큰 소나무(古松)가 있는데 현주민이 이 소나무에 시당(祀堂)을 만들고 신(神)을 모시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암(龍岩)이라는 큰바위는 길이가 3리나 된다.

於丘山(어구산)…烈山 西쪽 4리에 있고 一名 지산(只山)이라고도 한다.

2. 湖, 潭, 浦(原本 15, 16, 17, 147, 148)

花津湖…(화진호) 一名 烈山湖, 烈山 東쪽 2里, 들레(靺靨)가 수 10里, 北쪽의 모든 湖水中 가장 큰 호수. 옛날부터 전해오기를 烈山縣으로 있을 때 이 호수 뒤에서 大洪水가 범람했을 때에 이 호수가 생기났다고 한다. 지금도 맑게 개인날 바람도 없이 잔잔할때 물속을 내려다보면 담(牆)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호수가 깊고 정제보여 수심(水深)을 알 수 없다. 겨울에도 얼지않고, 여름에는 옥 천둥 번개가 친다고 전해온다.

용(龍)이 이 호수로 옮겨와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배(船)를 호수 가운데로 끌어당겨 비바람을 일으키는 까닭에, 사람이 감히 옷을 함부로 벗지 못한다. 영동 해변의 많은 湖水는 모두 땅속으로 海水가 연(連)해 있다. 洪水의 범람으로 湖水가 형성 되었다는 說과, 호수를 내려다보면 담(牆)이 보인다는 말과는 모순(矛盾)이다. 그래서 지금은 신빙성이 없고, 다만 속전(俗傳=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외할 뿐이다.

仙遊潭…(선유담) 郡 南쪽 12里 山 밑 골짜기에 생긴 호수로 주위가 3里다. 南쪽 낮은 山줄기 하나가 호수로 뿔어 들어가고, 그위에 큰바위가 하나 솟아있다. 바위가 평평하여 수10名이 둘러앉을 수 있고, 老松(8~9株)이 그위를 덮고 있다. 四方이 바위로 둘러막혀 있다. 西北쪽 上峯에는 가는대(簾)의 그림자가 水面에 흔들리고 東쪽은 백사장에 松林이 우거져 햇빛을 감추어 더욱 좋다. 바다로 통하는 물속에는 순검(尊檢=순수검과 마름)이 풍부하고, 새와 고기가 헤엄치고, 큰고기가 해를 보고 뛰어오르는 것은 가히 볼만하다. 그물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요조숙녀(窈窕淑女) 같은 처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다. 영랑(永郎)들이 자주 이곳에 유람(遊覽) 오는고로 仙遊라고 이름 부치게 되었다.

附錄(原本 17, 16, 147, 148)

澤堂 李恒 郡守가 이 郡誌를 저술 한후 선유담(仙遊潭) 위에 다시亭子를 지었다는데 어느 郡守때에 지었는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 옥 말하기를 1714年(甲午)에 郡守 조두빈(趙斗彬)이 지었다고 한다. 정자

(亭子)는 또 허루머져 1747年(丁卯)에 김광우(金光遇) 郡守때 옛날 터에서 아랫쪽으로 물가에 옮겨 한간을 짓고 “유한(幽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최입(崔立)詩를 판(板)에 새겨서 걸었다. 기록에는 대개 구음(具崙), 최입(崔立) 두사람의 詩가 보인다.

永郎浦…(영랑포) 郡 南쪽 55里, 주위가 20里이다. 물구비가 삼골짜기로 들어와 있다. 돌아드는 개천과, 굽은 모래벌은 볼 수 없고, 암석(岩石)이 뒤섞여 있다. 물속에는 고립된 돌과, 점석(點石)이 있고, 동쪽 산밑에 모래언덕 가까이에 松林이 있어서 햇볕을 가리고 100여인이 앉을 수 있다. 옛날부터 정자(亭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영랑(永郎)들이 유람오기 때문에 永郎浦라고 이름 부치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廣湖…(광호) 郡 南쪽 45里, 주위가 10여里다. 호수변 반(半)은 山이 가까이 있다. 수심이 얕아서 연(蓮)이 잘 자라고 꽃이 가득히 핀다. 연꽃 사이로 배를 저어가면, 하늘에는 비단구름 뜨고, 연꽃향기 사람을 배촉 시킨다. 호숫가에 사는 사람이 연밤(연꽃 열매) 따는 일이 괴로워 석회(石灰)를 뿌리고, 칠(葛)을 심어서 연이 줄어들어 지금은 없어졌다.

松池浦…(송지포) 郡 南쪽 20里, 주위가 6里이다. 松林이 左右로 5里에 걸쳐 울창하다. 이 소나무는 조선재(造船材)와 관청사(官廳舍) 건축재로 쓰인다.

梧里浦…(오리포) 松浦 南쪽 5里, 주위가 5里이다. 下流는 바다로 흘러든다.

3. 河川(原本 18, 19, 148)

北川…郡城 北쪽 2里, 마기라산(麻荳羅山)에서 발원하여 곧바로 못으로 들어온다. 벽력연(霹靂淵), 난자도(蘭子島), 폭담(瀑潭) 등의 절경이 동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南川…郡에서 5里, 선유령(仙遊嶺)에서 발원하여, 여울목, 폭포, 절벽들이 불만하다. 東으로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明波川…(명파천) 烈山(烈山) 북쪽 20里에서 발원하여 작산(鵲山) 아래 明波驛 左측을 흐른다.

蛇川…(사천) 고성군 경계에서 발원하여 검장촌(檢長村)을 흐른다.
 仁角川…(인각천) 郡 南쪽 50리. 미시령과 소파령(所坡嶺)에서 발원한다.
 土城川…(토성천) 郡 南쪽 30리. 소파령(所坡嶺)에서 발원한다. 아주 찬
 샘물(冷泉)이 있고, 너럭바위(盤石) 등 볼만한 곳이다. 사상천(巳上川)과 같
 아 東海로 흘러든다.

鳥項川…(조항천) 백연암(白蓮菴)에서 발원 下流로 흐르면서 폭포를 이루
 다가 金鰲山 밑에서 그친다.

4. 岩石(原本 19, 20, 148, 149)

盤岩…(반암) 郡 北 10리. 100여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큰 바위가 해변
 의 松林 사이에 있다. 盤岩과 門岩에 대해서는 구지(舊誌)에 이미 기재(記
 載)하였기에 여기에서는 이만 생략한다.

門岩…(문암) 郡 南 30리. 석벽(石壁) 앞으로 난 길이 끊어졌다. 고로 門
 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수 10년 전에 故人이 된 한 중(僧)이 낫(鎌)
 으로 바위의 이끼(苔蘚)를 긁어서 “門岩” 두 글자를 썼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松林…(송림) 郡에는 연해(沿海)를 따라 松林이 무릇 일곱 곳이나 된다.
 영랑호(永郎湖), 광호(廣湖), 황포(黃浦), 송지포(松池浦), 유선담(遊仙潭)
 곧 10여리나 계속되어 햇빛을 가리고 계속되는 모래위로 관도(官道)를 통
 하였다.

옛날부터 뱀나무를 금해왔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은 도선(道詵=신라말의
 이름난 중, 姓은 金, 전남 영암 출신 中國에서 風水地理설, 음양도합설을 차
 음으로 전해옴)이 바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여 東海안에 소나무를
 심도록 했다. 더구나, 嶺東은 땅이 척박하고, 파도가 밤낮으로 치기때문에
 만약 소나무가 아니면 해변의 밭과 땅이 부단히 붕괴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쓰이게 되었다.

鳴沙…(명사) 郡 南 혹은 烈山에 있다고 한다. 두곳의 모래색(色)이 같고,
 모래가 가늘고 깨끗하여 사람과 말이 그위를 걸어가면 사각 사각 소리가 나
 고, 손으로 비벼도 역시 같은 소리가 나고,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치게되면

모래속을 찢고, 위에는 말랐을 때 그 소리가 더욱 크고, 만약 여러번 밟고 지나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영동 특히 江陵이북이 그렇지만 그중에도 高城과 杆城 사이에 가장 많다.

水仙岩…(수선암) 郡 南 10里. 흰 반석(盤石), 맑은 시내, 폭포(瀑布), 암벽, 老松, 그 사이에 꽃들이 띄어 더욱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이름을 새겨놓았다.

新增…가진(加津)은 郡 東 10里. 모래 해변 산모퉁이를 돌아서 배가 정박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곳을 진(津)이라고 한다. 加津은 海村 中에서도 가장 성(盛)한 곳이다.

津의 동쪽으로 절벽이 바다에 솟아 있고, 그위가 네모로 평평하게 되었는데 가히 넓이가 수10間 四方에 달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亭子터나 절터인듯 하다.

석봉(石峰)이 세개가 벌려서고, 앞 左右로 또다른 石峰이 기이하게 둘러 있고, 그밖으로 南北海中에 여러산이 겹겹이 둘러싸고 東西 山봉우리들이 아득히 구름속에 숨고, 四方이 확트여 장애물이 없이 진실로 절승처(絶勝處)이다. 특히 가까이 관로(官路)가 없으므로 이전부터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사실은 이곳에 있는 청간(淸澗), 낙산(洛山) 등 명승지(名勝地)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5. 도서(島嶼=섬)(原本 65, 161)

隔島…(저도) 열산(烈山) 北쪽 30里, 바위 봉우리로 된섬, 암벽(岩壁)이 아름답게 뻗어나고, 맨 위에는 소나무, 가래나무, 살대(箭竹)가 자란다.

新增…(1633年 以前) 새개 섬중에서 초도(艸島)가 가장 신비스럽다. 심한 가뭄을 만날때마다 이섬에는 복된 비를 내리었다.

草島…(초도) 화진호(花津湖) 東北쪽에 있는 바위섬 아래쪽에 있는 큰바위가 갈라진 사이로 파도를 삼켰다 토하는 소리가 종을 치는 소리와 같다. 위에는 살대가 자란다.

竹島…(죽도) 郡 南쪽 20里. 여러섬과 비교하여 제일 크다. 위에는 역시 살대가 자란다.

無路島…(우로도) 淸澗 南쪽 5里. 위에는 살대(箭竹)가 자란다. 1530年(庚辰, 宣祖 13年) 음력 7月 그믐날 밤 이섬에 천둥 벼락이 떨어졌다. 天地가 낮과 같이 밝고 섬 꼭대기 가운데 바위가 한길 이상 부서져 파였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擗島…(패도) 죽도(竹島) 남쪽에 石峯이 높이 솟아 四面이 공활하여 갈매기의 좋은 서식지이다.

6. 海津(해진)(原本 32, 33, 152)

郡지역의 모든 배 대는곳(方舟) 즉 어민(漁民)이 사는 漁村에 배(船)가 정박할 수 있는곳을 진(津)이라고 한다. 대개 큰 산줄기들이 바다로 빠져드는 곳에 파도에 짊이고 갈라진 바위가 돌출하였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나무가 서있어 물이 외지하고, 평평한 곳에는 대(臺)를 이루고, 물위에 나와있는 곳은 섬으로 松林이 자생하고, 혹은 꽃나무로 단장하여 좋은 경치를 이룬다. 망망 大海변에 두곳 대(臺)가 관도(官道) 옆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명승(名勝)을 자랑하고 있다.

전진(戰津)…郡 南 46里. 즉 淸澗驛 앞이다.

패진(擗津)…郡 南 30里.

가포진(加浦津)…郡 南 10里. 바다에 석봉(石峯) 두개가 있다. 즉 팔장곶(八頂串)과 성조곶(成造串)인데, 그 사이가 5~6里이다.

거린진(巨呑津)…郡 北 10里.

대구미진(大仇味津)…郡 北 35里.

저도진(撓島津)…郡 北 60里.

淸正(原本 33)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는 지금의 沙津이다.

청간리(淸澗里)는 지금의 군선진(群仙津)을 말하며 역민(驛民)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淸澗이라고 부른다.

전진(戰津)은 지금의 天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광포(廣瀾)는 지금의 고벽진(枯柏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대구미진(大仇味津)은 지금의 大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저도진(猪島津)은 지금의 저진(猪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기탄진(巨呑津)은 지금의 巨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添載(原本 33, 34, 152)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아야진(我也津)은 郡廳에서 南쪽으로 35里.
 五里津은 郡廳에서 南쪽으로 20里.
 공수진(公須津)은 郡廳에서 南쪽으로 10里.
 초진(艸津)은 郡廳에서 北쪽으로 35里.
 마차진(麻差津)은 郡廳에서 北쪽으로 45里.
 회진(回津)은 大堡面 반암리와 梧峴面 巨津 사이에 있음.
 장평리(長坪里)는 長坪津과 巨津 사이에 있다. 以上 16津이다. 天津, 我也津, 群仙津, 沙津, 枯柏津의 5津은 土城面에 속하고,
 배진(排津) 五里津은 竹島面에 속하고, 加浦津, 公須津은 旺谷面에 속하고,
 巨津, 長坪津은 梧峴面에 속하고, 回津은 大堡面에 속하고, 大津, 艸津, 麻差津, 저진(猪津)은 縣內面에 속한다.
 以上 8개面의 각 洞, 津, 村은 모두 127개洞이다.
 대구미진(大仇味津)은 郡 北 35里.
 서도산(猪島津)은 郡 北 60里.

(EE 本願)五里津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杆城 津 (杆城津)은 지금의 杆城津이다.

第二章 亭子

1. 성지(城池)(原本 41, 42, 154, 155)

邑城 석축(石築)의 둘레(周圍)가 240步이고, 높이는 15尺이다. 1591年(辛卯, 宣祖 24年)에 다시 건축하여 東門과 西門을 두었다. 城안에는 우물(井) 3개와 못(池) 4개가 있는데 못에는 연(蓮)을 심었다.

新增

옛날에는 城內의 양쪽 산밑 사이가 저습(低濕) 하였음으로 못을 4개 파고 그중 2개에는 연(蓮)을 심었다. 그후 郡守 이득의(李得義)가 못 北쪽에 정자(亭子)를 시작해 지었는데 언제 폐허가 되었는지 모른다. 1632年(壬申, 仁祖 10年)에 澤堂 李植이 郡守 在任時 못 작은 언덕에 그가 원하던 정자(亭子)를 지으려고 재목(材木)을 준비하고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郡守 송희업(宋熙業) 대에 그 材木으로 亭子를 짓고 澤堂 李植이 호화롭게 기록(記錄)하였다. 그후 여러차례 수선(修繕)하여 현재와 같이 되었다. 그런데 4개못을 처음에는 다만 습지에 간단히 제방을 쌓고 못을 만든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다. 못 두개는 土沙로 메워져 소마당(牛馬場)이 되었고 그밖의 못 두개는 장마때에만 약간의 물이 있고, 비가 개이면 즉시 마른다. 風水地理家의 말에 의하면 郡廳자리가 계(蟹)형국, 혹은 반룡(蟠龍=아직 승천하지 못한 용) 형국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물이 있어야 한다.

1767年(丁亥, 英祖 43年) 郡守 이보행(李普行)이 길게 제방을 쌓았다. 이것이 처음으로 반듯하고, 높고, 넓은 제방이었다. 그 제방 위에는 수양버들을 심고, 못 3개에는 연(蓮)을 심고, 양어(養魚)를 하고, 한곳은 수릉(水雨)을 開閉식으로 만들어 城밖의 논에 물을 대게(灌溉)하였다.

館宇客舍

城內 北쪽 동산 밑에서 전(前)면으로 마주보는 南山 東北 코동이에 작은 누(樓)가 있다. 처음 건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554年(甲寅, 睿宗 9年) 郡守 최천(崔滿)이 다시 지었다(重建)고 하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衛舍(原本 42, 43, 155)

城內 산기슭 사이에 걸쳐있던 구청사(舊廳舍)가 객관(客館) 오른쪽에 위치하는 지금의 청사 자리로 언제 옮겨왔는지 알 수 없다. 1581, 1582 年間(辛巳, 壬午 宣祖 14, 15年)에 郡守 이극인(李克仁)이 동헌(東軒=고을 守舍)이 공事を 처리하던 창(倉)을 짓고 최담(崔岾)이 고급스런 발(簾)과 휘장(幃)과 책상을 갖추고, 극도로 호화롭게 꾸민 정원(庭園), 그리고 연못 하나를 메우고 몇개 분(盆)에 연(芙蓉)을 심었다. 못 하나는 아래쪽을 뚫고, 흙을 구어 만든 토관(土管)으로 水路를 만들고 西쪽 언덕에는 대(竹)를 심어 竹林을 만들었다. 큰 물독을 놓고 종을 치켜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대(竹)로 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하여 사람을 시키지 않고 화단 구석까지 물을 주도록 했다. 시부(詩賦)에 뛰어나니 十客軒이란 시호(詩號)를 가진 崔郡守가 가고 20年後 이윤직(李惟直)이 조방장(勦防將=主將을 도와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으로써 계속 지키고 있을때 하는 말이 이곳을 紮人이 마땅치 아니한 곳으로 다 허물어져 가고 다만 詩를 새긴 詩板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2. 古蹟(原本 70, 169)

西쪽은 철령(鐵嶺)에서부터 南쪽은 平海에 까지 형승(形勝=地勢나 風景이 뛰어나)이 뛰어나다.

古蹟(古蹟=남아 있는 옛날 물건과 자취)

烈山(烈山) 옛자리 지금의 烈山縣 北쪽 山위에 古城이 두곳이 있다. 하나는 郡 南山위에 있고, 또 하나는 烈山縣에 있다. 古城이 처음에는 모두 석축(石築)이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져 있다.

도진(島鎭)(原本 70, 71, 163)은 원래 두곳에 있는데, 하나는 관사(館舍)와 창고(倉庫)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郡守가 일찍이 적(賊)을 피한 草島 역시 城터가 있다.

선보소(禪補所) 두곳은 한곳은 郡城 西北쪽 모퉁이에 있고 다른 한곳은 西門밖에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도진(道說)이 정한 곳으로 배보산맥(培補山脈)에 있는데 지금도 뱃손을 방지하기 위해 땔나무와 벌목을 금하고 있다.

3. 亭子(原本 55, 159)

정사(亭臺=亭子)

영월루(咏月樓) 客舍 南쪽에 있다. 객사 좌우에는 보이는 바가 없다. 오직 이루(此樓)의 門이 바다에 임해 있어서 봄, 여름에는 日出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밤에는 月出을 앞에서 대할 수 있다. 여러山 옆으로 넓은 평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지세(地勢)는 보기도문 평지이다. 함집중(黃執中)이라는 進士가 편액(扁額=문위에 달아 놓은 액자)의 글씨를 썼다. 그는 즉 郡守 황인(黃璘)의 아들로서 글씨와 그림이 有名하다.

附錄

癸卯年에 強風으로 허무라진 후 다시 건축하지 못했다.

만경대(萬景臺)(原本 55, 159)

郡 南쪽 50리. 천후산(天吼山)의 한줄기가 바다로 달리다가 작은山 옆으로 열렸다. 작은山 앞에 石臺이 층층으로 싸여졌는데 그 높이가 수십길이고 뽕위에는 평평하게 되어있다. 三面이 바다로 파도소리 그칠날이 없다. 바람이 잔잔한날 내려다보면 가히 물속에 노는 고기의 등을 볼 수 있다. 대상

(臺上) 네 모퉁이에는 老松이 몇그루 그늘을 지우고, 東쪽 변두리에 옛날에 작은 정자(亭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만경루(萬景樓)였는데 언제 허물어져 없어졌는지 지금은 萬景臺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萬景臺〕(萬景臺) 〔萬景臺〕(萬景臺) 〔萬景臺〕(萬景臺) 〔萬景臺〕(萬景臺)

청간정(淸澗亭)(原本 56, 159)

본래 청간역정(淸澗驛亭)은 만경대 남쪽 2리 간수(澗水)라는 냇가에 위치하므로 淸澗이란 이름을 부치게 되었고 또한 만경루(萬景樓)를 옮겨지은 역마울 정자 대지 옆에 좋은 자리로써 바다물이 5, 6보(步)까지 가까이 만경대의 모퉁이에 달고, 바다물속에 험한 둥근 바위섬들이 있어, 파도가 서로 다투어 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해(水害)를 입지 않았다. 비록 큰 바람으로 파도가 세게 쳐도 앞 댕돌에 넘쳐 오르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파도가 타위와 적돌하여 산마루에까지 바다물이 튀어오르고, 수많은 갈매기기물을 차며 날고 그사이로 배를 바라보는 것은 더욱 장관이다. 달이 뜨는 밤에 사림방에 누워 조도 소리를 들으면 황홀한 창(窓)을 읊드는 것이 마치 물위에 떠있는 배안에 있는 듯하다. 옛 정자(亭子)를 누가 처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있는 정자는 郡守 최진(崔倩) 제임시에 다시 지었다고 전해온다.

〔淸澗亭〕(淸澗亭) 〔淸澗亭〕(淸澗亭) 〔淸澗亭〕(淸澗亭) 〔淸澗亭〕(淸澗亭) 〔淸澗亭〕(淸澗亭)

능파대(凌波臺)(原本 56, 159)

〔郡〕 남쪽 20리에 있다. 돌산(石崗) 줄기가 바다로 뻗어나가 마치 용재가 갈라쳐 열(列)을 지어 바다로 빠져들은 것 같다. 먼곳에서 바라보면 제각기 매우 다르게 보인다. 대안의 파도와 이쪽 절벽의 파도가 마주쳐서 울어지는 소리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그바위 위에 앉아 내려다 보면 괴이한 바위 모양이 큰 짐승기도 하고, 달리는 소, 말의 발굽이 튀어오른 것 같기도 하여 눈에서는 현기증이 난다.

〔凌波臺〕(凌波臺) 〔凌波臺〕(凌波臺) 〔凌波臺〕(凌波臺) 〔凌波臺〕(凌波臺)

오무진정(無盡亭)(原本 57, 160)

〔郡〕 남쪽 10리에 있다. 돌산(石崗) 줄기가 바다로 뻗어나가 마치 용재가 갈라쳐 열(列)을 지어 바다로 빠져들은 것 같다. 먼곳에서 바라보면 각기 매우 다르게 보인다. 제일 높은 꼭지로 올라가 바라보면 꼭대기에

無盡亭이란 이름이 길러 있다.

가평대(加平臺)(原本 57, 160)

화진호(花津湖) 호숫가 언덕에 있다. 모래언덕이 호수 가운데로 뻗어 위가 평평하고 호수가 맑아 三面이 수영하기에 좋은 곳이다. 東쪽은 바다로 이어져 있고, 그 入口에 왼쪽이 加平을 지키는 자가 돌로 정자(亭子)터를 쌓았는데 지금은 허물어져 평평하게 되었다. 원주민들이 가평대(加平臺)라고 부른다.

무송대(茂松臺)(原本 57, 160)

열산(烈山) 북쪽 명파역(明波驛) 남쪽에 열개의 봉우리가 바닷가에 솟아 있고 그위에 고송(古松)이 있어서 옛이름은 松島라고 불렀다. 모래길로 바다와 육지의 통로로 되어 있는데 바닷물이 끓어나면 부둣이 백사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이 명을 받고 이곳에 왔다가 臺를 짓고 茂松臺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육송정(六松亭)(原本 58, 160)

郡 西쪽 15里. 옛날에 소나무 한그루에서 여섯 가닥의 줄기가 자라고 있어서 六松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다. 지금은 세줄기가 있을 뿐이다. 해마다 봄에시 겨울까지 이 소나무 밑에서 모여 휴식한다.

附錄(原本 58, 160)

홍석교(紅石橋=무지개 돌다리)를 언제 축조하였는지 모르지만 乙丑年大水로 붕괴되었다. 乙酉年 봄에 다시 돌다리를 축조하고 다리옆에 亭子를 한칸 지었다.

비음정(悲吟亭)(原本 58, 160)

선유곡(仙遊谷) 中에 큰 반석(盤石)이 있어서 둘러앉기에 편안하다. 四面의 돌에 부딪치는 물소리가 또소리같은데, 곧짜기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휘파람소리 같다. 郡守 황헌(黃憲)시에 선유정(仙遊嶺)을 개통(開通)하고 이

못에 흙을 만들고 돌에 이름을 새겼다.

연정(蓮亭)(原本 58, 160)

城內에 옛날에는 못(池塘)이 없었다. 다만 물을 막았었다가 후에 못을 만
들고 연(蓮)을 심었다. 郡守 임득의(林得義)가 이 못에 정자를 짓기 시작
하였으나 정당하게 지은 창고문(倉庫門) 앞이 시끄럽고 번잡하여 얼마 안가
서 정자를 헐어버렸다. 壬申年 여름에 새 못을 수축(修築)하고 작은 언덕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작은 정자(亭子)를 지었다.

교정 <1633年 以前>(原本 59)

청간정(淸澗亭)은 1555년(乙卯, 昭宗 10年) 군수 최천(崔倩)이[譯者 註:
1555年(乙卯)에 在任 郡守는 柳公幹(유공각)이었다.] 증축한 후, 107년후[譯
者 註: 原文에는 百三年으로 되어 있으나, 太歲와는 어긋나므로 107年으로
하였다] 1652년(壬寅, 顯宗 3年) 군수 정양(鄭養)이 다시 고쳐 짓고 100여
년후 1844년(甲辰, 憲宗 10年)에 군수 정재용(鄭在容)이 재건축 하고 세월
이 오래 되어 폐허가 되고 지금은 다만 돌기둥이 남아 있다. 수영하는 사람
이 본따르는 해문(海門) 석벽에 청간정(淸澗亭)이라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
데 양봉래(楊蓬萊)의 글씨라고 전해온다.

육송정(六松亭)(原本 59)

어떻게 폐허가 되었는지 잘모르고 어느때부터 빈터가 남아 있는지도 모
르고, 세그루의 소나무도 흔적이 없고 다만 다리를 도을때의 기록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비음정(悲吟亭) 터(原本 59, 60)

仙遊谷 중에 어느곳이 仙遊령 고개위에 있는 정신이 팔림만한 곳인지, 郡
에서 개척한 도로의 흔적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蓮亭이 어떻게 폐허가 되었
는지도 모르고 오직 못(池) 南쪽에 武人들이 활을 쏘던 射亭이 半만 남아있
다.

添載(原本 60) 郡學校을 1631년(辛未, 仁祖 9年) 澤堂 李公이 처음 創設하였다. 世上에서 말하기를 人材를 양성하고 모든 邑內 子弟들에게 學問을 가르치기 위해서 西門밖 南쪽 골짜기에 郡守 黃鍾林이 軍部隊가 사용하던 빈 廳舍(廳舍)였는데 지금은 선비(儒林)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곳으로 竹島面 黃浦里에 있다. 1632년(壬申, 仁祖 10年) 겨울 澤堂 李公(李植 郡守)이 弘文館으로 영전(榮轉)되어 中央으로 옮겨갔다. 그뒤 邑內의 門下生들이 李公을 우러러 사모(景慕)하여 작은 齋室(齋室)을 짓고 「景澤齋」라고 불렀다. 100여년 傳해 오다가 폐허가 된 후로 아직 再建하지 못하였다.

태소정(太素亭)(原本 60, 61)

1809년(己巳, 純祖 9年) 郡守 이정로(李鼎老)가 관청거리(官街)내의 남쪽 언덕에 처음 건축 하였는데 그 폐허 연대는 알 수 없다.

화진정(花津亭)(原本 61)

郡 北쪽 25里 지점 이전에 정자가 없던 자리에 1807년(丁卯, 純祖 7年) 군수 이정로(李鼎老)가 처음 건축 하였는데 1871년(辛未, 高宗 8年) 여름 나무가 말라죽는 심한 가뭄을 당하여 人心이 흉흉하게 되었다. 정자 북쪽에 서 완고(頑固)한 백성 여러명이 밤에 와서 헐어버렸다.

오야야진(我也津)(原本 61, 62)

오야야진은 一名 구암리(龜岩里)라고도 하는데 郡 南쪽 40里 거리에 있다. 천후산(天吼山)의 한 줄기가 바다로 뻗어 나갔는데 물가에서 변화가 일어 바위산이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다음 가운데 열로 뻗은 山기슭에 石門이 있다. 뻗은 山기슭이 중단 되면서 커름 바위가 열리고 석굴(石窟)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通路가 여기 이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 아래에 매편(磨石) 판이 생긴 바위산이 비탈기 절벽에 밀려서부터 층층이 깔려 있는데 큰 반석(盤石) 같은 위의 바위가 떠서(浮歷) 누르고 있는 한개의 큰 비석이 마치 거대한 종(鍾) 모양으로 무게가 萬斤도 더될 것 같다. 밑에 누운 돌과 위의 돌사이가 15cm(5~6 寸) 정도 떠 있어서 서로 갈

졌다(相磨)는 흔적을 시험하기 위해 위의 돌에다 글씨를 써 놓았더니 春分(陽曆 3月 22日 경)과 秋分(陽曆 9月 22日 경) 밤이 지난 후에는 글씨획이 깨끗이 지워진다. 이고장 사람들이 말하기를 陰陽石(天地萬物을 만드는 돌)이 돌면서 山과 바다의 造化(造化)를 일으키는 기운이 민둥산의 산신(山神)과 다르니라. 그 오른쪽 절에 돌솥(鼎石) 7개가 있는데 돌의 뒷면이 움푹 들어가 솥모양으로 되었다. 그 앞 왼쪽에 거북모양의 거북바위(龜岩)가 있고, 또 곡식을 쌓놓은 것같은 노적암(露積岩), 또 고양이바위(貓岩), 쥐바위(鼠岩) 등 바위가 모두 어떤 물체의 형상으로 천태만상으로 기괴하다. 또한 깎을바위 앞에 집채만한 부석(浮石)이 있는데 그 바위위에서 한사람이 떨어져도 움직이고, 비록 1000名이 떨어져도 역시 같은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또한 신기하다.

(18, 80 本題)(事實太)卷 소 3

1875년(乙亥, 高宗 12年) 江原道知事 황춘파(黃春波)가 關東八景을 두루 순방할제 이곳 기괴한 경치를 구경하고 1884년(甲申, 高宗 21年) 여름에 여흥관광차 다시 이곳에 와서 작은 亭子 한칸을 北쪽 기슭 바닷가 위에 짓고 이름을 我也亭 이라고 하였다. 이 亭子에 오르면 山과 바다의 뛰어난 경치가 어우러져 놀다 가지않을 수 없는 절경의 해변(海邊)이라고 世上에 傳해 오고 있다.

관대암(冠帶岩)(原本 63) 郡 西쪽 7里 거리에 있는데 古城山 北面에는 기괴한 바위들이 솟아 있다.

그 형상이 임금 앞에서(御前) 高官이 관대(冠帶)를 하고 서립(侍立)하고 그 옆으로는 많은 호위하는 사람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고로 冠帶岩이라고 이름 부치게 되었다.

울산바위(蔚山岩)(原本 63) 郡 南쪽 60里 마시령(彌矢嶺) 부근 일대에 바위가 총총이 솟았는데 바위 산이 마치 풀포기 같이 옆으로 5, 6里나 뻗어 마치 기치창검(旗幟槍劍)이

左右로 달려 가는 듯한 웅장한 기상이다. 비록 金剛山 밖에 있으나, 금강산 못지않은 기암송석(奇岩叢石)이다.

상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第三章 物産

1. 土産(原 71, 163)

土産(土地所産) 즉 그 地方에서 특유하게 생산되는 물건
 지황(地黃=지황의 뿌리, 성질은 온(溫)하며, 보혈 강장제로 씀. 낚것을
 하수오(何首烏=새박뿌리)
 복령(茯苓=땅속 솔뿌리에 기생. 보통 콩 모양의 덩어리, 마르면 딱딱하여
 흰빛 수腫(水腫). 암질에 약재로 씀)
 방풍(防風=3년살이, 갓방풍의 육은 뿌리, 감기, 풍에 약재로 씀)
 당귀(當歸=송점초의 뿌리, 강장제 진정제로 씀. 특히 부인병에 좋음)
 승미(升麻=다년생, 뿌리를 약재로 혈을 내리게 설사, 하혈, 혈변에)
 택사(澤瀉=다년생 논, 못 같은데에 생장, 덩이뿌리, 성질이 차다. 임질,
 습진, 무릎 등에 약재로 씀)
 목방기(木防己=대당이 덩굴, 줄기와 뿌리를 약재로)
 백화사(白花蛇=산무애 뱀, 독사의 일종, 보혈 강장제로 큰풍병에도)
 죽전(竹筴=대나무로 만든 화살.)
 칠(漆=옻나무진, 칠하는 원료로 처음 나오는 짙은 회색이다. 바르면 어두
 송심(松茸=송이(松茸)버섯 향기와 맛이 최고 소나무 밑에 난다)
 괄(藿=미역 조과(芻藿=좀 일찍 따서 말림) 각진(미역따는 뜻)
 홍합(紅蛤=바다 조개, 10여m 깊이의 암초에 붙어 산다)
 문어(文魚=연제, 낙지종류에서 가장 크다. 알이 8개.)
 대구어(大口魚=한대성 바다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몸길이 70~75cm.)
 연어(鰵魚=가을에 강에 올라와 알을 낳고 죽음 東海에)

방어(魴魚=전갱이과에, 길이 1m쯤 해안성 최유어, 동해에, 생선 통조림)
은구어(銀口魚=은어와 같음.)

은어(銀魚=몸길이 20~30cm 어릴때 바다에서, 이큰봄 하천으로)

황어(黃魚=잉어과에 몸길이 20~45cm 연한 하천에)

광어(廣魚=넙치를 쪼개어 말린것. 넙치: 몸길이 1m쯤으로 가자미 보다
큼)

고도어(古刀魚=고등어, 난해성 어종, 제주도 근해에 많음. 몸길이 50cm)

마어(麻魚=삼치, 몸길이 1m 몸빛 연청색, 삼치구이)

해삼(海蔘=해삼류의 극피동물 몸길이 40cm 성질이 차고 血分을 돕는 약
제)

점어(鰈魚=가자미, 몸이 납작한 타원형 두눈이 한쪽편에 몰려 있음)

해(蟹=게, 대게 등 바다게와, 참게 등 민물게가 있다.)

대합(大蛤=백합과에, 가장 흔한 쌍패류, 바다물과 민물이 혼합하는 모래
밭에

순(尊=순나물 蓴菜)

이번에 살펴보니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삼(人蔘),
복령(茯苓) 오미자(五味子), 봉밀(蜂蜜), 해의(海衣=김)이나 사실은 토산물
(土產物)이 아니다.

2. 魚鹽(原本 71, 72, 164)

진공(進貢=백성이 특산물을 관청이나 왕실, 종주국에 바침)

무릇 진상(進上)은 생(生)것과, 말란것, 그외에 반쯤 말린것, 소금을 조금
찜것 등을 탄일(誕日=生日), 축삭(逐朔=매달), 감사도계(監司到界=감사
가 새로 부임할때) 진상하고, 그밖에 후궁(後宮=왕의 小室)에게 진상은
大同(땅에 대한 세금)으로 실행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생문어(生文魚) 生日, 冬至, 설날, 11月, 감사부임시.

건문어(乾文魚) 生日, 冬至, 설날, 3, 5, 9, 11月, 감사부임.

생대구어(生大口魚) 冬至, 설날, 11月, 감사부임.

전대구어(乾大口魚) 1, 3, 5, 8, 9, 11월
 생송어(生松魚) 2월 천신(薦新=개절에 따라 햇곡식으로 山川神에게 제
 사 지냄) 관남(關南=함경도 남쪽)으로 부터 진상
 생연어(生鱣魚) 7월, 명령으로 천신, 북관(北關) 무역, 冬至, 1월, 11월, 감
 사부임.

전연어(乾鱣魚) 生日, 冬至, 1월, 감사부임.
 생활어(生黃魚) 11월, 감사부임.

전황어(乾黃魚) 감사부임.

전광어(乾廣魚) 8월, 감사부임.

생은구어(生銀口魚) 7월 천신, 7, 8월

생은어(生銀魚) 11월.

전은어(乾銀魚) 11월.

생복(生鰓=생전복) 冬至, 1, 3, 5, 8, 9, 11월, 감사부임.

전원복(乾圓鰓=전전복) 7, 8월, 감사부임.

생홍합(生紅蛤) 감사부임.

전홍합(乾紅蛤) 5월.

전해삼(乾海蔘) 5, 7월.

전어(箭魚=준지) 8월, 금년 8월에는 진상하지 않는다.

대구어란(大口魚卵) 冬至, 설날

대구어고지(大口魚古之=대구어 이리[魚白]로 달근 것) 生日, 설날, 11월,
 감사부임, 이번에는 진상하지 않음.

대구어란해(大口魚卵醃=대구어란젓) 11월, 감사부임.

대구어장(大口魚腸) 감사부임, 이번에는 진상하지 않음.

연어식해(鱣魚食醃=연어란젓) 9, 11월, 감사부임.

생연어식해(生鱣魚食醃=황어생선젓) 감사부임.

은구어식해(銀口魚食醃=은어젓) 冬至, 7, 9월, 감사부임.

홍합식해(紅蛤食醃) 3, 7월.

방풍교침홍합해(防風交沈紅蛤醃=여러가지 홍합을 섞어서 밀폐해서 달근
 것) 3월.

고도어복장(古刀魚腹腸=고등어 내장) 5, 7월.

조과(早藿=일찍 따는 미역) 1, 11월
 분과(粉藿=미역 부스러기) 3, 7월.
 생이(生梨=배, 梨子) 1월, 감사부임.

較正 〈1633年 以前〉(原本 74, 75)

生文魚：誕日, 冬至, 11월, 감사부임 명령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설(正朝)에는

乾文魚：誕日, 5월, 11월, 감사부임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冬至, 설, 3월, 4월, 9월에는 봉해서 올림.

生大口魚：冬至, 설, 감사부임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11월엔 봉해서 올림.

乾大口魚：1월,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誕日, 3월, 5월, 8월, 9월에는 봉해서 올림.

生松魚：3월, 命令이 있으면, 神에게 올리고(薦新), 봉해서 양양(襄陽) 유림총회관(儒林總會館)에게 전달, 3월, 4월에는 선물을 봉해서 올림.

生鱸魚：9월, 命令에 따라 神에게 올리고, 봉해서 유림총회관에게 봉해서 전달, 9월, 10월, 冬至에 봉해서 전달, 7월, 1월, 11월, 감사부임시에 명령에 따라 봉하지 않고 전달.

乾鱸魚：誕日, 冬至, 1월, 감사부임시에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6월에는

生黃魚, 乾黃魚：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生紅蛤：감사 부임시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고 보냄. 3월에는 선물(朔膳)을 봉해서 보냄.

乾廣魚：8월, 감사부임 할때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7월, 誕日 乾文魚로 대신 보냄.

生銀口魚, 生銀魚, 乾銀魚, 生전복, 圓전복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고 올림.

乾紅蛤：5월, 6월, 誕日 봉하지 않음.

乾海參：誕日, 5월, 7월에는 봉해서 올림.

大口魚卵：冬至, 설에 命令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鷺門生産：10월에 封함.
大口魚卵젓, 鰾魚젓：命숨이 있으면 封하지 않음.
鰾魚卵젓：9月, 감사부임시에 命숨이 있으면 봉하지 않음. 10月, 11月, 冬
에는 封함.
生鰾魚젓, 鰾魚식연장, 鰾口魚식연장, 紅鰾젓은 말배한 독에 담귀서 보낸
다.
紅鰾젓：고등어창자는 命숨이 있으면 封하지 않는다.
음미역(早蓆)：은 1月, 11월에 命숨이 있으면 봉하지 않고 보낸다. 설에는
봉한다.
배(生梨)：병령이 있으면 봉하지 않는다.

添載

鹽鰾魚 10월에는 封한다.

半乾大口魚 11월에는 封한다.

3. 藥材(原本 75, 76, 165)

약재진상(藥材進上)

인삼(人蔘) 48냥 내에 증등(증등=물에 내는 계급, 혹은 인삼의 등급중
첫째 등급) 32냥은 경작공(京作貢工)과 지방에서 바치는 貢物을 서울의 貢
人에게 값을 두어서 바치게 함(삼)을 통해서 바치게 하고, 주랍등(秋鰾等)은
인삼무역상을 선정하여 진상하게 함.
당귀(當歸) 송김초뿌리, 보령, 강강, 진정계로, 특히 부인병에
오미자(五味子) 오미자 나무의 열매, 껍을 등고, 기차, 활충, 설사
독활(獨活) 땅두릅의 뿌리, 감기, 습증, 근육통에
만형자(蔓荊子) 순비기나무의 열매, 감기, 경련, 두통에
지실(枳實) 설어 말린 어린 맹자, 대변을 잘 통하게, 가래를 삭게함
방풍(防風) 뿌리, 감기, 풍에 3년살이
선각(蟬殼) 매미의 허물
시호(柴胡) 다년생초 키 1m가량 땅을 나게 하고 허열제로 씀

목통(木通) 으뜸덩굴 줄기와 뿌리를 말림. 입질과 부종에
교루인(莠蓼仁)

연교(連翹) 개나리의 열매, 성질이 차다 살충, 이뇨로 씀

적복령(赤茯苓) 빛이 붉은 복령, 독이 없고 달다. 전위제 강심제로 씀

백복령(白茯苓) 흰빛갈의 복령, 맛이 알맞게 나도록 오줌을 잘 나가게

백작약(白芍藥) 다년생초 키 50cm 보현, 진정제, 부인과에

백편두(白扁豆)

하수우(何首烏) 새박뿌리, 강장제로 씀,

강활(羌活) 뿌리를 약재로 해열, 진통제로 씀. 키는 2m 이상

천궁(川芎) 궁궁이, 키 30~60cm 혈액 순환을 돕는 약재로 씀.

모향(茅香)

갈화(葛花) 취꽃, 주독을 푸는데, 혈변을 그치게 하는데, 인삼과 함께 쓴다.

목단피(牡丹皮) 3년 이상 자란 껍질, 그늘에 말림, 열을 내리는데 씀.

전갈(乾葛) 쉼뿌리.

인진(茵陳) 사철썩 성질차고, 오줌을 통하게 함. 황달에도 쓴다.

폐피(薛皮)

천마(天麻) 수자해의 뿌리 맛이 맵다 두통, 현기, 몸비 등에 씀.

금은화(金銀花) 인동덩굴의 꽃, 용저(중기)에 내복약으로 씀.

마황(麻黃) 늘푸른 떨기나무, 키 30~70cm 줄기를 약재로, 기침, 두통, 오한

백급(白芨) 대알뿌리, 바르거나 먹다. 지혈(止血)에 효과가 있음.

산약(山藥) 마의 뿌리, 강장제, 유정, 몽정, 대하, 요통, 설사

복신(茯苓) 복령, 이뇨제로, 백복신

길경(苦蕒) 길경이, 길가에서 흔히 본다. 이뇨제로 씀

황백(黃柏) 황벽나무의 껍질, 열을 내리게 하는데 씀

공안(貢案-貢物의 증독, 수량을 적은 예산표) 田稅는 대략 다른 邑와 같

은 고로 기재하지 않음. (原本 77, 78, 79, 80, 165, 166)

꿀(淸蜜)→봉상시(奉常寺), 예빈시(禮賓寺)

돌기름(法油)→의영고(義盈庫)

밀랍(黃蜜)→봉상시(奉常寺), 전의감(典醫監), 의영고(義盈庫)

천초(川椒)→내섬시(內贍寺)

매주(末耄)→예빈시(禮賓寺)

메밀밭(蕎麥米), 중포(中脯=宮中제사에 쓰는 포육) 봉상시(奉常寺) 사제감(司宰監)

소포(小脯)→司宰監

건문어(乾文魚), 건대구어(乾大口魚), 건홍합(乾紅蛤), 원전복(圓全鰓), 건연어(乾鰓魚), 건저(乾猪=말린 멧돼지고기), 건장(乾獐=말린 노루고기)→司宰監

갯(柏子), 배(生梨)→掌院署

영지(芝草), 오미자(五味子), 잇꽃(紅花)→濟用監

인삼(人蔘)→사도시(司藥寺)

우황(牛黃), 백복령(白茯苓), 쥬피(薛皮), 진봉(秦凡), 목통(木通), 선각(蟬殼), 천남성(天南星), 지유(地榆), 해조(海藻)→典醫監

백작약(白芍藥)→惠民署

여여화(蓼蘆花), 백화사(白花蛇)→司僕寺

차초주지(次草注紙=王命을 받아 쓰는 종이)

저상주지(楮常注紙=上同)→豐儲倉

조과(早藪), 상과(常藪), 각이(藪耳)→義盈庫

전칠안기(全漆鞍技=칠한 말 안장)→工曹

향각궁(鄉角弓=뿔 활재로), 궁현사(弓絃絲=활시위, 실)

적마전(狄磨箭=화살), 편전(片箭=작은 화살)

향우각(鄉牛角=소뿔), 우근(牛筋=소힘줄)

치우(稚羽=평 깃털), 잡우궁(雜羽弓)

궁소목(弓栗木=활도지개=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물)

고좌목(高佐木=上同), 숙장피(熟獐皮=부드럽게 만든 노루가죽)→軍器寺

여기에는 다만 상납하는 물품만을 기록한다. 우리郡의 각종 군기(軍器)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양모(羊毛)→尙衣院

증왜옹자(贈倭鷹子=日本에 보내는 때)→禮曹에서 동래로 직송

양(羊)→典牲署

무녀세(巫女稅=巫女의 身貢인 神布稅)→濟用監

제색장인세(諸色匠人稅=각종 장인세)→工曹 干匠人(良人 身分의 匠人)

△호패(號牌) 16세 이상 男子의 身分을 증명하기 위해 작던 패 제도 이후의 匠人稅는 兵賣에 納付하게 하였다.

염세(鹽稅)→司鹽寺

저전세(楮田稅=종이 만드는 닥나무 밭)→造紙署

별세삼(別稅叢=특별 인삼세)→인삼 장사에게 역행간(路引)을 내주고 세금을 戶曹에 납부하게 함.

이선세(漁船稅)→司宰監

△금번 관향사(管籥使=平安道의 軍糧을 관리 하던 벼슬)에게 속한 각종 공물(貢物)을 받은 大同布 中 纛材, 羊, 매의 세금은 직접 무명(木)을 걸기로 한다.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는 쌀(修廩)과 지방수령 가족에게 주는 녹봉쌀(衙錄)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는 사신에게 지원하는 쌀(使客支應米)을 합해서 160石년에 시 쌀(小料) 4石과 바꾼돈 200냥, 기름종이 원료세 130石, 비취안(田案=土地대장)이 있으나, 아록(衙祿=지방 수령 가족에게 주는 녹봉쌀)은 결(結)의 등급에 따랐다. 그런데 상정(詳定=세액을 결정함)은 上, 下 구별없이 통(統=5戶)당 땀나무 85속(束), 장작 1005속, 볏길 1500속,

4. 場市(原本 66, 67, 68)

교정(校正)

一. 읍 城內에 있는 場은 매월 2日 下里에서 장이 서고 7日에는 中里에서 開市한다.

一. 전에는 楸津里(楸津里)에서 장이 섰으나 지금은 橋岩里로 옮겨서 每月 1日과 6日에 開市한다.

一. 이전의 巨津里 장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첨가(添載)

一. 군정에서 北쪽 20里 자산리(慈山里)에 있던 장은 현재 향설 되었는지

모르나 每月 3日과 8日에 開市된다.

一. 군청에서 北쪽으로 40里 大津里 장은 1882년(壬午, 高宗 19年)에 시작되어 每月 4日, 9日에 開市된다. 물론 邑밖의 장에서는 商法에 의한 거래는 적고 다만 무명(白木)과 일용잡화와 어물과 소 등이다. 송아지는 장에 나오지 않고도 매매가 된다. 稅金은 橋岩場에서만 있다.

新增(原本 162)

場市(장-市場) 세곳

1. 읍 성내(邑 城內) 장

매월 2日, 7日 개시(開市)

1. 패진리(掛津里) 장 군청에서 南쪽으로 30里.

매월 1日, 6日 開市

1. 거진리(巨津里) 장 군청에서 北쪽 20里.

매월 3日, 8日 개시(開市)

그러나 다만 도보정상(徒步京商=걸어서 다니는 서울 상인)이 4, 5人 혹은 6, 7人이 의복(衣服) 잡물(雜物) 등을 길가에 벌려놓고 파는 것은 경시열사(京市列肆=서울 거리에서 벌려놓고 파는 상인)와 같다. 해가 지면 곧 걷어가지고 간다. 물고기(魚物)는 어항(漁港) 內에서 서로 무역(매매)하고, 미곡(米穀=곡식)은 마을 안에서 매매(賈買)하고, 장시(場市)에 나오지 않는고로 각읍(邑) 장시에는 모두 세가 있는데 郡지역에서는 세(稅)가 없다.

5. 牧場(原本 70, 163)

較正

分養馬 2마리(匹)를 받아오지 않고 대신 돈으로 52냥(兩) 6전(錢)을 매년(遂年) 구진성(具陳省)에 6月 上納하였다. 사복시(司僕寺) [말 기르는 일을 맡아 보는 관아]의 창설 연대는 알 수 없다.

분양마(分養馬) 2필(匹)을 음력 8월에 받아왔다가 4월에 상납(上納)하였다.

第四章 交通

附圖 5

1. 道路, 橋梁

道路(原本 63, 161)

郡廳에서 東쪽으로 가진(加津)까지 7里. 군청에서 西쪽으로 진부령(陳富嶺) 中路 40里.

진부령(陳富嶺)에서 인제(麟蹄) 경계까지 10里.

청간정(淸澗亭)에서 양양(襄陽) 경계까지 10里.

군청에서 北쪽으로 명파역(明波驛)까지 大路 60里.

명파역에서 고성(高城) 경계까지 7里.

교량(橋梁=다리)(原本 64, 161)

남천(南川) 郡 南쪽 5里.

오리천(烏梨川) 郡 南쪽 20里.

토성천(土城川) 郡 南쪽 30里.

청간천(淸澗川) 郡 南쪽 40里.

사야지천(沙也只川) 郡 南쪽 50里.

거탄천(巨呑川) 郡 北쪽 20里.

명파천(明波川) 郡 北쪽 60里.

사천(蛇川) 郡 北쪽 66里.

交場에서 인제군(麟蹄郡) 경계를 넘어 하천(河川)까지 淸澗亭에서 襄陽郡界까지는 55里, 北쪽으로 明波驛까지는 大路로 60里. 明波驛에서부터 高城郡界까지는 7里.

2. 驛院

역원(驛院)(原本 69, 70, 162, 163)

驛路에 지어놓고 나라에서 경영하던 일종의 旅館, 출장가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길가에 세운 것과, 人家가 드문곳에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것 두가지가 있다.

청간역(淸澗驛)…전술(前邊) 한바퀴 감음.

운근역(雲根驛)…열산관(烈山館)앞 산모퉁이에 있음.

명파역(明波驛)…명파천(明波川) 상류에 위치.

원암역(元岩驛)…郡 西南쪽 60里, 미사파령(彌矢坡嶺) 入口에 처음 개설했다가 양양 오색역(五色驛)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겼다.

죽포역(竹苞驛)…郡 北 10里, 죽림(竹林)이 있다.

사자원(獅子院)…郡 西 40里, 소파령(所坡嶺) 밑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없다.

진부원(陳富院)…진부령 밑에 두었는데 본래에는 院집이 없었고, 嶺 사이에 여행자가 왕래하는 길에는 마을도 주막(酒寨)도 없다. 院을 다시 두었으나 지금은 없다.

3. 關陘(原本 82, 83, 166, 167)

관애(關陘=좁은 동로)

郡지역 西부는 큰 산맥이고, 東부는 東海에 접하고 있다. 그런고로 城은 스스로 다스리는데 좋은 조건이다. 그것(큰산맥)을 보면 미사파(彌矢坡), 소파(所坡) 두嶺은 모두 南쪽에 연해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소파령은 郡 西쪽이 아니라고 하였다.

소파령(所坡嶺)

郡 南쪽 50리에 있다. 일명 석파령(石坡嶺)이라고 하는데 가장 험준(險

峻)하여 竹島와 土城 두개의 장애(險碍)가 되고 있다. 영서(嶺西)로 통하는 소로(小路)길에 원(院)침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래서 혹은 원기령(院基嶺)이라고도 말한다.

미시파령(彌矢坡嶺)

郡 南쪽 80里. 옛날에 小路길이 있었으나 없어져서 현재는 行人이 없다. 1493年(癸丑, 成宗 24年) 양양부(襄陽府)에서 소라령(所羅嶺)이 험하고 좁은고로 다시 이길을 얻어 襄陽 杆城 양읍의 官路(官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하였다.

진부령(陳寔嶺)

郡 西쪽 50里에 있다. 郡 北쪽 동행에 방해가 되고, 嶺西로 통하는 小路길이 매우 험하고 좁아서 1632年(壬申, 仁祖 10年) 官에서 모집한 역승(役僧 - 일하는 승)이 처음으로 개통한 고개(嶺)인데 동행인은 가칭 적다. 동(惡石)이 적어서 동행에는 용이한 편이나 다만 겨울철에는 눈으로 막힌다.

선유령(仙遊嶺)

郡 正西쪽 40里에 있다. 옛날에 小路길이 있었다. 1574年(甲戌, 宣祖 7年) 郡守 황린(黃麟)이 처음 개통 하였는데 동행인 수는 진부령과 같으나, 골짜기가 좁고 험하고 실덕거리고 돌이 많아서 더욱 어려운 길이다.

오차령(烏峙嶺)

郡 北30里에 있다.

4.烽燧(原書 47, 156)

봉수(烽燧=봉화) 세곳(3處)

처음에는 양양 대포보(大浦堡=참초)에 속해 있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 후에 묘의(廟議=朝廷 會議)로써 關東지방의 日本과의 경계를 개척하고 대포보에 소속된 봉수와 수급(戌卒=변방을 지키는 군졸)을 접수 하였다.

第五章 行政

1. 廳舍, 倉庫

較正(原本 45, 46)

객사(客舍)가 오래되어 퇴락되었다. 1870년(庚午, 高宗7年) 군수 이인정(李寅正)이 다시 짓고 담장과 더불어 동쪽 대청 앞으로 작은 문을 내고 허물어진 청사를 헐어내었다. 1871년(辛未, 高宗8年) 군수 김조헌(金祖憲)에 의해, 건축한지 오래된 건물과, 개축한 건물로 오래되어 퇴락한 것은 헐어버리고 사령정(使令廳) 오른쪽에 옮겨 지었고, 향사당(鄉射堂)은 판청 서편에 옮겨 지었는데 연대는 모른다. 그후 1854년(甲寅, 哲宗5年)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열산관(烈山館)을 다시 지었고, 군수 최천(崔倩)이 지어놓은 그후 군수 김용(金鎔)이 대진(太津)에 옮겨 지었고, 1863년(癸亥, 哲宗14年) 군수 이원영(李源永)이 극식창고 좌기청(坐起廳) 10칸, 동고(東庫) 12칸, 서고(西庫) 12칸, 남고(南庫) 6칸을 다시 고쳤다. 1866년(丙寅, 高宗3年) 군수 이인정(李寅正)이 동고(東庫)를 고쳐 지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져 없다. 객사(客舍)의 대청 9칸, 동편 대청 12칸, 서편 복도와 동편 복도 6칸중 3칸 6칸 외 3칸 4칸 동헌(東軒) 읍장(邑長)이 거처하는 방 한칸, 읍장이 집무하는 방 한칸반, 남쪽결방 반칸, 남쪽결방다락 반칸, 서쪽결방 반칸 대청마루 6칸, 건넌방 2칸, 동헌 집무실 반칸, 앞 퇴마루 2칸, 뒤 퇴마루 2칸이었다.

첨가기록(添載)(原本 46)

삼문(三門)안에 혼례를 치르던 곳, 초루(醴樓)를 1836년(丙申, 憲宗2年) 군수 황종림(黃鍾林)이 고쳐지었고, 1871년(辛未, 高宗8年) 군수 김조헌(金祖憲)때 군청에서 맡아서 다시 지었고, 1848년(戊申, 憲宗14年) 군수 송단화(宋端和)가 다시 지었고, 1856년(丙辰, 哲宗7年)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청간관(淸澗館)을 건축하였는데 연대는 알 수 없다. 1842년(壬寅, 憲宗8年) 군수 정재용(鄭在容)이 고쳐지었고, 1863년(癸亥, 哲宗14年) 군수 이원영(李源永)이 다시 지었다. 1883년(癸未, 高宗20年) 화재를 입은 후로 다시 고쳐짓지 못하였다.

較正(原本 47)

음식의 세(3) 창고의 창미(倉米)는 에밀을 합해서 2,563섬4말5홉, 세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1,400섬 12말3되1홉8작, 돈으로 3,707냥 3전 2푼으로 1883년(癸未, 高宗20年)의 총제이다.

附錄(原本 155)

관아(官衙)의 청사(廳舍)가 많이 남고 헐어졌음으로 안채(內衙)의 左右 익랑(翼廊=大門의 左右 양편에 잇대어 지은 행랑)과 책실(册室)을 1760年(庚辰, 英祖36年)에 郡守 신간(申謙)이 다시 고치고, 공고(工庫=工房 소관의 창고)와 책실(冊室)을 1765年(乙酉, 英祖41年) 郡守 이보행(李普行)이 고쳐지었다.

司倉(原本 156)

甬路 동쪽에 있는, 물진이 들어있는 창고가 허물어졌고 다만 창고 머루와 오른쪽 창고만이 남아있다. 1632年(壬申, 仁祖10年)에 다시 건축하고 좌고(左廊=왼쪽 창고)에는 大門을 만들어 달았다.

官廳(原本 156, 157)

객사(客舍=地方에 내려가는 官員이 묵게하는 집) 서쪽에 위치

군기고(軍器庫=兵器庫) : 司倉 왼쪽에 위치

군영(軍營) : 軍器庫 왼쪽에 위치

향사당(鄉射堂=시골 한량들이 활쏘는 제주를 겨루는 곳)

：東門 밖에 위치

영산(烈山) : 古城 內의 산 기슭에서 내려다 보는 화진호(花津湖)

현창(縣倉=곡식 창고) : 縣館 오른쪽에 위치

附錄 縣倉(原本 157)

곡식은 많고 창고는 좁아서 매년 노적(露積)이 늘어 민폐(民弊)가 적지않다. 1767年(丁亥, 英祖43年) 이문보 郡守 이보행(李普行)이 西쪽 변두리에 12칸(間)을 새로 건축하였다.

附錄(原本 157)

清倉(창고를 정비함)에도 기록된 文書가 없어서 언제 건축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곡식은 많은데 창고가 좁아서 매년 노적(露積=밤에 노천에 쌓아둔 곡식더미) 하는데 민폐(民弊)가 적지않다. 1767年(丁亥, 英祖43年) 중춘(仲春=한창 봄, 음력 2월) 郡守 이보행(李普行)이 옛창고 왼편에 새로 22間을 지었다.

倉庫(原本 157)

邑外 세 창고에는 쌀, 콩, 벼, 보리, 밀 합해서 1,709石8斗5升8合. 1767年 결총(結總=結, 負, 束의 총수) 3,577兩9錢4分.

2. 官 職(原本 8, 144, 145)

郡守 1員(郡의 行政을 맡아보는 從4品 지방장관)

[좌수]座首 1人(州, 府, 郡, 縣, 鄕廳의 우두머리)

[별감]別監 2人(좌수 다음가는 향청의 벼슬)

[대동감관]大同監官 1人

[군관]軍官 30人(軍事上の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아전]衙前 40人(中央과 地方의 州, 府, 郡, 縣에 딸린 구실아치)

[지인]知印 20人(鄕吏, 官印을 맡아보았음)

[사령]使令 20人(各 官衙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

[관노]官奴 21人(官家에 딸린 남자종)

[관비]官婢 8人(官家の 女子종)

[교노]校奴 12人(守僕, 각종 제사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교비]校婢 19人(각종 제사일을 맡아보던 여자)

(78) 本郡(會通) 龍洞

3. 坊 里(原本 24, 25, 26, 27, 28, 29, 30, 31, 32)

坊里

郡內面(군내면)

(78) 本郡(會通)

安心里(안심리)

新城里(신성리)

金章洞里(금장동리)

天下井里(천하정리) - 新城里에 붙임

水洞里(수동리)

防築洞里(방축동리)

金龍洞里(금룡동리)

(78) 本郡(會通)

西門外里(서문외리)

屹里(홀리)

塔洞里(탑동리) - 郡南쪽 10里, 10여층 塔이 있으므로 塔洞

仙遊堂里(선유실리) - 邑南 30里, 仙遊嶺 밑에 있으므로 仙遊堂

(26) 34) 本郡(會通) 海上面

海上面(해상면)

良村里(간촌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校洞上里(교동상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校洞下里(교동하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內於吞里(내어탄리) - 지금의 漁川里

人(會通) 本郡(會通) 龍洞

滿山里(만산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長田里(장전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釜洞里(부동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八音川里(팔음천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淨土里(정토리) - 지금의 漕川里

(會通) 本郡(會通) 龍洞

校洞中里(교동중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廣坪里(광평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新坪里(신평리)

(會通) 本郡(會通) 龍洞

五金川里(오금천리)

丁坪里(경평리)

林泉里(임천리)

陳富里(진부리)

塔洞里(탑동리)

(五金川)里取泉

(五金坪)里取泉

(五金洞)里取泉

(五金洞)里取泉

大堡面(대대면)

大堡里(대대리)

漆洞里(칠동리) - 지금의 梧亭(오정)

石門里(석문리)

竹泡里(죽포리)

盤岩里(반암리)

湍南里(포남리)

松湖里(송호리)

沙溪里(사계리)

(梧亭)面西邊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梧亭)里西邊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梧亭 五山 - (五山)里山原

梧亭 五山 -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梧峴面(오현면)

鏡浦里(경포리) - 지금은 없다.

水外里(수외리)

上巨擘里(상거만리)

新城里(신성리) - 지금은 없다.

花浦里(화포리)

外坪里(외평리)

山北里(산북리)

蓬湖里(봉호리)

月安里(월안리)

松亭里(송정리)

慈山里(자산리)

長坪里(장평리)

次洞里(차동리)

(梧亭)面谷里

(五山)里山原

梧亭 五山 - (五山)里山原

梧亭 五山 -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五山)里山原

強項里(강항리)

海塘里(원당리)

東塔里(동대리)

龍湖里(용호리)

(江塘洞)星川金正

(江塘洞)星川丁

(江塘洞)星東林

(江平洞)星高顯

(江龍洞)星陽源

縣內面(현내면)

烈山里(열산리)

馬直里(마직리)

檢長洞里(검장동리)

蛇川里(사천리)

明波里(명파리)

道發里(도발리)

雲根里(운근리)

卦阜里(초부리) - 지금은 없다.

加老里(가로리) - 지금은 없다.

水邊里(수달리)

鮮鹿里(선도리)

禾谷里(화곡리)

塔峰里(탑봉리)

芽亭里(모성리)

竹林里(죽림리)

仲坪里(중평리)

(烈山洞)面堂大

(馬直洞)星堂大

(江老)平顯 江平江 - (江龍洞)星陽源

(江長洞)星門正

(江波洞)星所竹

(江發洞)星發發

(江根洞)星南南

(江老洞)星陽發

(江平洞)星陽發

(西邊洞)面顯顯

和發 江平江 - (江老洞)星顯顯

(江平洞)星代木

(江平洞)星谷谷

和發 江平江 - (江發洞)星顯顯

(江老洞)星顯顯

(江平洞)星平江

(江平洞)星平山

(江老洞)星顯顯

(江發洞)星安民

(江發洞)星平發

(江平洞)星山顯

(江平洞)星平發

(江平洞)星顯顯

旺谷面(왕곡면)

旺谷里(왕곡리)

副津里(부진리) - 지금은 없다.

怨道里(갈도리) - 지금은 龍維里

香木里(향목리)

蓬蓬里(봉호리)

蒲洞里(적동리)

(江平洞)星顯顯

仙遊里(선유리)

竹島面(죽도면)

麻佐里(마좌리)

西坡里(서파리)－지금의 西城里

甫豆乙里(보두을리)－지금의 三星里, 茂松里

黃浦里(황포리)

花井里(화정리)

甘仁堂里(감인당리)

九頓里(구돈리)

錦圃里(금포리)

新亭里(신정리)

坪村里(평촌리)

石橋里(석교리)

筍浦里(순포리)

土城面(토성면)

土城里(토성리)－지금의 雲峯里(운봉리)

寫也洞里(샤아동리)

院竺里(원대리)

東老洞里(동로동리)－지금의 城南里(성남리)

仁角里(인각리)

元岩里(원암리)

獐川里(장천리)

沙也只津里(샤야지진리)－지금의 沙津里(사진리)

沙也只里(샤야지리)－지금의 沙村里(사촌리)

廣浦里(광포리)

淸澗里(청간리)－지금의 群仙里(군선리)

柏村里(백촌리)

杏桃源里(행도원리)

新垌里(신대리)

新坪里(신평리)

陽岩里(양암리)

長興里(장흥리)

星川里(성천리)

橋岩里(교암리)

錦花井里(금화정리)

鹽谷里(중곡리)

鳳峴里(봉현리)

坊里(原本 150, 151, 152)

郡內面(군내면)

安心里(안삼리), 城內, 新城里(신성리), 城內 金章洞里(금장동) 下里, 中里, 上里...城內 金龍洞里(금용동), 城外 西門外里(서문외리), 城外 水洞里(수동리), 南1里, 防築洞里(방축동), 西 1里.

海上面(해상면)

良村里(간촌리) 西 3里, 校洞 上里, 中里, 下里 西 4里

魚川里(어천) 滿山里(만산) 西 10里.

長田里(장전) 西 20里, 釜洞里(부동리) 西 20里.

渭川里(위천) 西 10里, 八音川里(팔음천) 西 10里.

大垌面(대대면)

大代里(대대) 北 5里, 漆洞里(칠동) 北 7里.

石門里(석문) 北 10里, 竹泡驛里(죽포역) 北 10里.

盤岩回里(반암회) 北 15里, 浦南里(포남) 北 20里.

梧峴面(오현면)

源塘里(원당) 北 25里, 水外里(수외) 北 20里.

上巨呑里(상거탄) 北 30里, 新城里(신성) 北 20里.

花浦里(화포) 北 25里. 外坪里(외평) 北 20里.
山北里(산북) 北 30里. 蓬湖里(봉호) 北 30里. 月安里(월안) 北 27里.

縣內面(현내면)

烈山里(열산) 北 35里. 馬直里(마직) 北 40里.
檢長洞里(검장동) 北 60里. 蛇川里(사천) 北 67里.
明波里(명파) 北 60里. 道發里(도발) 北 45里.
雲根里(운근) 北 30里. 竹林里(죽림) 北 60里.
茅亭里(모정) 北 40里. 水達里(수달) 北 35里.
草島里(초도) 北 35里.

旺谷面(왕곡면)

旺谷里(왕곡) 南 15里. 笛洞里(적동) 南 15里.
副津里(부진) 南 7里. 加乙道里(가을도) 南 7里.
香木里(향목) 南 7里. 蓬壺里(봉호) 南 7里.

竹島面(죽도면)

麻佐里(마좌) 南 30里. 西坡里(서파) 南 20里.
南豆乙里(보두을) 南 25里. 黃浦里(황포) 南 25里.
花井里(화정) 南 20里. 甘民堂里(감민당) 南 20里.
金圖里(김포) 南 30里.

土城面(토성면)

土城里(토성) 南 30里. 寫也洞里(사야동) 南 35里.
院基里(원기) 南 45里. 東老洞里(동노동) 南 40里.
仁角里(인각) 南 40里. 元岩里(원암) 南 50里.
獐川里(장천) 南 65里. 沙也津里(사야진) 南 55里.
沙也只里(사야지) 南 50里. 新坪里(신평) 南 45里.
陽岩里(양암) 南 45里. 廣浦里(광포) 南 45里.
清澗里(청간) 南 40里. 栢村里(백촌) 南 30里.

4. 戶口(原本 34)

호구(戶口=戶數와 人口數)

이번에 작성한 甲午年 호적(戶籍)의 戶數는 2,574戶

人口는 11,704人

男子 4,090人(35%)

女子 7,614人(65%)

較正(原本 34)

이번 壬午年에 작성한 호포(戶布=세금을 바친 戶數) 實數는 2,571戶인데, 이 수는 孝子, 烈女, 급제(及第)한 進士, 海員, 驛員, 文筆家, 各種 匠人, 工人 등의 免稅 戶數 342戶를 제외한 수치이다.

以上 除役한 戶數를 합하면 2,913戶이다.

男子 4,557人

女子 4,664人

戶口(戶數와 人口數)

1603年(癸卯, 宣祖 36年) 2,481戶 男 4,013名, 女 4,536名

5. 軍額(原本 39, 40, 153, 154)

군액(軍額=軍人數)

유청군(有廳軍=보충대, 三衛에 연속시켜 布를 받던 군인) 15명

어영군(御營軍)과 호보(戶保) 138名 內에

호수(戶首=땅 8結을 단위로 세금을 바치는 책임을 지운 사람) 34명

보(保=두사람 1保, 1人은 현역, 1人은 뒷바라지) 68명

북마보(卜馬保=卜馬軍의 일을 돕는 壯丁) 2명

자보(資保=軍丁을 돕는 保人) 34명

포수(砲手=火砲를 쏘는 군인) 167名

금위보(禁衛保=5營의 하나인 禁衛兵을 돕는 保) 182名

금보호련대(禁保扈衛隊=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는 군인을 돕는 保) 17名
전설보(典設保=祭享이나 儀式을 담당하던 女官을 돕는 사람) 20名
악생호(樂生戶=奏樂에 종사하던 사람, 아악연주, 良人들신) 14名 內에 호(戶) 2人

보(保=이들이 바치는 배나 무명으로 학생들에게 금료를 주었다) 12名
악공호(樂工戶=奏樂에 따른 雜職에 종사하는 사람 俗樂연주, 賤人들신) 12名 內에 호(戶) 2人

보(保=이들이 바치는 배나 무명으로 악공에게 금료를 주었다) 10名 선무(選武) 41名

양군관(良軍官) 30名

기병호보(騎兵戶保=말타고, 鎧刀차고, 활을메고, 도리깨를 가진 軍人을 돕는 戶와, 保) 543名 內 호(戶) 135名, 보(保) 408名

원숙오영아병(元東伍營牙兵) 465名 內 호(戶) 360名

이상은 각종 군보(軍保=正兵을 돕기위하여 두었던 조정(助丁)들이다) 그 나머지는 공(公), 사(私), 천(賤) 人으로서 거둬 부담하는 부역(賦役)을 면할 수가 없다.

무학(武學) 13名

較正(原本 40, 41)

기병(騎兵) 2名이 평강(平康)에서 왔는데 어느해(年)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軍에게 쌀로 주던 보수를 포(布=삼베나 면포)로 주게 된것은 癸亥年에 시작하였다. 따라서 백성이 상납하던 세금도 포(布)로 바뀌었다. 그중에서 孝子, 烈女, 급제한 進士, 해변역(海邊驛), 각종 장인(匠人)은 세의 시켰다. 각료에 할당된 세액을 나누어 호별 평균을 할당하고, 齊, 秋로 세금을 상납 하였었는데 작은 山 밑에 있는 역(驛)은 半을 감(減)해 주고, 큰고개(嶺) 밑에 있는 역은 4분의 3을 감해 주고, 城內는 4분의 1을 감해 주고, 城밖에는 1錢 2分씩 감해주었다.

별무사(別武士=騎士들중에서 뽑은 윗자리 병졸) 13名

천총(干總=正3品외 武官직) 1人

소관(哨官=한 초를 거느리던 중9품 무관직) 4人

기패관(旗牌官=각 군영에 두었던 軍官, 급료는 호조에서 지급) 3人

관아병리 노작대군(官牙兵吏奴作隊軍=大將 휘하에 있는 군인과 종으로 조직한 군인) 156名

초관(哨官) 2人

기패관(旗牌官) 2人

6. 官案(原本 84, 85, 86, 200, 201, 202, 203)

官蹟先生案(前任 官員[郡守]의 姓名)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歷	備考	退去區別
河彭老 하평로	1529~1534	文			
申 潁 산 숙	1534~1536				
李永俊 이영준	1536~1537				
申國衡 신국형	1537~1542				
盧 翔 노 우	1542~1544				
黃舜卿 황순경	1544~1546	文			
成 軒 함 현	1546~1549				被罷
許 詢 하 순	1549~1550				(15.04 本服)五節
申 潛 신 장	1550~1553				○忠貞 (吳郡) 官
金 湧 김 만	1553~1553				官界를 끝마치라(卒官)
柳公輝 유공작	1553~1558	文			
崔 倩 외 권	1558~1563				新聘 補修를 맞이했다
楊士俊 양사준	1563~1564		清潤亭詩		被劾去
南學愚 남필상	1565~1566				
鄭明善 정명선	1566~1567				
高大韓 고대혁	1567~1571	文			
朴登英 박승영	1571~1573				
趙好文 조호문	1573~1574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退去區別
黃 瑞 璠 린	1574~1576				
申汝菴 신여관	1576~1577	武			
李 蘧 이 거	1577~1579	文			
任毅臣 임의신	1579~1579				
李亨旭 이형욱	1579~1581				
李克仁 이극인	1581~1585				
李仁弘 이인홍	1585~1586				轉出되어가는길에 死亡
孫胤善 손윤선	1586~1590	文			
許 震 허 진	1590~1590				
鄭休復 정휴복	1590~1590				
任 克 임 극	1590~1592				
宋繼祖 송계조	1592~1592	武			赴任 2日만에 轉出
邊 俊 변 준	1592~1592				赴任 6개월만에 轉出
金好恬 김호념	1592~1593	武			
李應順 이응순	1593~1593	武			赴任 즉시 轉出
奇自默 기자현	1593~1593	文			棄歸, 有碑
元景謫 원경실	1593~1596				
趙應文 조응문	1596~1599	文			
洪汝誠 홍여성	1599~1602				襄陽 府使로 昇進 奇自默과 같이 한 바석에 새김 기자현 死後 倒碑
權斗文 권두문	1602~1603				
崔 岽 피 임	1603~1606	文	多數		文章家. 著述 多數
李惟直 이유직	1605~1606				助防將 職
金遠陸 김준평	1606~1607	武			
林得義 임득의	1607~1609	武			
韓希吉 한희길	1609~1611	武			
李光英 이광영	1611~1612	武			

姓名(漢字)(韓名)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進退區別
柳 契 俞 비	1612~1614	武			
成茂吉 성순길	1615~1617	武			판역하여 갈아냄, 有碑
趙 順 조 원	1618~1620	武			
薛應貞 설응경	1620~1622	武			
柳厚立 유후립	1622~1623	武			仁經 反正 被竄(流配 當營)
肅齋曾 유진중	1623~1623	武			赴任 即時 轉出(旋遞)
李 堧 이 돈	1623~1624				李适의 亂後 세조되어 斬을 당함. 李适의 弟 有碑
金尚容 김상록	1624~1629				
韓亨吉 한형길	1629~1630				縣으로 강동되고 파면 당함
趙 漢 조 국	1631~1631				縣監
李 穰 이 식	1631~1632	文	多數		다른 官職으로 옮겨감 (去)
宋熙集 송희집	1633~1635				그만두다(罷)
柳 頌 유 영	1635~1637				
朴 濟 박 의	1637~1639				
崔文湜 최문식	1639~1644				
張遇龍 장우환	1644~1648				
李 樸 이 창	1649~1649				
金執事 김취장	1649~1649	文			赴任後 오는 길에 罷
元燮溪 원건명	1649~1651	文			死亡(逝)
趙 漢 조 용	1651~1654				그만두다(罷)
朴古愿 박길응	1654~1655	文	滿園亭詩		그만두다(罷)
李漢衡 이제형	1656~1656	文			赴任한 後에 그만두다 (罷)
柳時定 유시정	1656~1657				
朴 漢 박 정	1657~1659				(遞)轉勤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退去區別
權 埈 권 령	1659~1662				(遞)轉勤
鄭 洪 정 양	1662~1667				(遞)轉勤
權世經 권세경	1667~1672				(遞)轉勤
尹世章 윤세창	1672~1676				그만두다(罷)
尹敬教 윤경교	1676~1677	文			(遞)轉勤
俞夏謙 유하점	1677~1678				掌令(司憲府의 正四品 벼슬)으로 除授(임금 이 官職을 줌) 되어감 (去 掌令 除授)
朴廷諱 박정설	1679~1680	文			(拜 慶州府尹)榮轉
具 崙 구 음	1680~1681	文			(遞)轉勤
趙持正 조지정	1681~1686				(遞)轉勤
鄭壽俊 정수준	1686~1688	文			(遞)轉勤
李鳳朝 이봉조	1688~1689				(遞)그만둠
李善場 이선명	1689~1691	文			掌令으로 제수 되어감 (去 掌令 除授)
李寅德 이인소	1691~1693				文學(正5品 世子 講 學)
沈 澈 심 정	1694~1695				(遞)轉勤
洪受寅 홍수인	1695~1700				(遞)轉勤
李東亨 이동형	1700~1701				(罷)그만두다
陸天鎭 목천린	1701~1702				(罷)그만두다
宋光深 송광숙	1702~1704				(逝)死亡
趙正紳 조정신	1704~1705				(逝)死亡
任鎭元 임진원	1705~1706				(逝)死亡
崔錫弼 최석필	1706~1707				罪人으로 判死감(拿 去)
申 職 신 환	1707~1707				赴任한해에 그만둠(來 同年罷)
權益隆 권익용	1708~1712				(遞)轉勤
金時保 김시보	1712~1713				(罷)사직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退去區別
李挺益 이정익	1713~1714	文	清興亭 詩	(進) 전근	
趙斗彰 조두찬	1714~1718			(去) 영전	
尹夏教 윤하교	1718~1720			(去) 영전	
崔重鼎 최중정	1720~1720			(來同年罷)	부임해에 사직
宋敬奎 송정규	1721~1722			(拜青松府使) 영전	
姜聖復 강성복	1722~1723			(罷) 사직	
李德壽 이덕수	1723~1724			(去實錄都監의 堂上으로) 영전	
尹志益 윤지익	1725~1725			(來同年罷)	부임한 해 사직
金養謙 김양겸	1725~1727			(進) 전근	
柳 暹 유 준	1727~1728			(罷) 사직	
徐命九 서명구	1728~1730			(去) 영전	
洪重福 홍중복	1730~1731			(進) 전근	
李秉成 이병성	1731~1733			(去) 영전	
趙鳴鳳 조명봉	1733~1735			(去) 영전	
趙尙綱 조상강	1735~1738			(來同年罷)	부임한 해 사직
呂善長 여선장	1738~1738				
徐宗邁 서종손	1739~1741			(去) 영전	
朴師高 박사설	1741~1742			(進) 사망	
尹 淮 윤 집	1742~1744			(去) 영전	
金光遇 김광우	1745~1748			(拜海州判官) 洪川 縣監으로 있다가 海州 判官으로 영전과 어감	
鄭錫範 정석범	1748~1749			(進) 사망	
沈師得 심사득	1750~1751			(進) 전근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退去區別
任 璫 임 용	1751~1752				(歸) 사직歸鄉
李鼎燮 이창섭	1752~1753				(貶遞) 좌천
吳命觀 오명관	1754~1756				華川 縣監에서 京邸로 갔다가 死亡
吳 璫 오 선	1756~1757				(貶遞) 좌천
申 陳 신 간	1758~1761				拜(仁川 府使) 대영전
李山重 이산중	1761~1765				拜(咸興判官) 대영전
李普行 이보행	1765~1769				(貶遞) 좌천
李普中 이보중	1769~1770				(貶罷) 좌천
李 采 이 화	1770~1773				(貶遞) 좌천
權彝性 권이성	1773~1774				狀罷(죄를 진 원을 감 사가 王에게 狀啓하여 罷免)
趙德常 조덕상	1774~1776				不正을 조사하여 파직 시킴(御史가 封庫 罷 職)
洪啓瑞 홍계서	1776~1781				(瓜遞) 임기만료 전근
趙漢鎮 조한진	1781~1782				(貶遞) 좌천
李壽彬 이수빈	1782~1783				(貶遞) 좌천
兪載華 김재화	1783~1789				서울로 전근(京遞)
金宗範 김종범	1783~1785				移(延安 府使) 영전
李澈源 이○원	1785~1788				拜(全州 判官) 대영전
李敬魯 이경노	1788~1789				(在喪逝) 사망
李在沆 이재항	1789~1793				拜(茂朱府使) 영전
金啓廉 김계렴	1793~1793				拜(廣州判官) 영전
朴致浩 박돈호	1797~1802				임기만료후 영전(瓜報 後 南原府使)
韓用謙 한용전	1802~1807				임기만료후 전근(瓜 遞)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轉職	備考	(舊職)(本職)及 退任區別
李膺老 이징노	1807~1812				임가만보후 영전(瓜報 後 密陽府使)
宋仁諒 송인래	1812~1814				尹(朔寧郡守) 영전
李潸魯 이세노	1814~1817				
徐有圃 서유녀	1817~1817				
尹童祺 윤정진	1817~1818				
俞熙臣 김희산	1818~1821				
金 溶 김 용	1821~1825				
宋在諒 송재의	1825~1828				
尹致顯 윤치래	1828~1829				
尹行定 윤행정	1829~1829				
申在翼 신재익	1830~1833				
黃鍾林 황종림	1833~1838				
鄭龜容 정구용	1842~1847				
鄭在容 정재용	1847~1847				
趙啓恒 조계항	1847~1847				
宋瑞化 송서화	1847~1848				
徐有實 서유여	1848~1852				
許石老 허석노	1852~1853				
李魯寧 이노재	1853~1854				
李容寧 이용학	1854~1854				
尹致誠 윤치성	1857~1857				
李容昌 이계창	1857~1860				
李豫永 이원영	1860~1863				
李仁會 이인회	1863~1864				
朴壽甲 박제갑	1864~1865				
鄭舒明 정서조	1865~1866				
李寅正 이인정	1866~1870				
金祖憲 김조현	1871~1873				

姓名(漢字)(한글)	在職期間	文·武 兩班	詩賦	備考	退去區別
閔鍾洙 민종수	1873~1874				
李周延 이주옥	1874~1878				
徐應淳 서응순	1874~1880				
李道植 이도식	1880~1883				
柳止鎭 유지호	1883~1884				
高永喜 고영희	1884~1884				
李秉勉 이병면	1884~1886				
趙章敎 조장교	1886~1889				
尹 鎡 윤 기	1889~1889				
朴齊普 박제보	1889~1892				
李承愚 이승우	1892~1892				
李載觀 이재관	1892~1894				
金興熙 김석희	1894~1895				
徐相大 서상대	1896~1896				
權世圭 권세규	1897~1899				
李鼎夏 이정하	1899~1902				
申觀熙 신관희	1902~1903				
申泰衡 신태형	1903~1903				
李俊九 이준구	1904~1906				
朴潤城 박윤성	1906~1907				
申鉉九 신헌구	1907~1907				
李冕翼 이면익	1908~1911				
劉泓鍾 유홍중	1912~1913				
金彰鉉 김창현	1913~1914				
姜昌熙 강창희	1914~1919				

第六章 租 稅

較正(原本 36, 37, 38)

土地의 조세(租稅)를 살펴 보면 戊子年에 다시 고칠때 以前의 것을 풀추어 보니 49부(負) 8束(束)이고, 또 다시 경작할 것을 권하는 땅(勸耕)과 새로 개간할 땅(新墾)의 결부(結負) 15負 9束을 해마다 원결(元結)에다 더 보태게 하므로 총 부과 하는 공물(貢物)이 해마다 증가 하므로 現在 실시 結數와 장부(帳付)에 기록된 結數를 승한 田畝의 총결(總結)은 1340結 1負 3束 內에 408結 28負 7束. 논 밭이 장마에 떨어져 다시 묵은 河川이 되어버린 곳(險川反滿落)이 430結 55負 7束이고, 각종 면세(免稅) 및 忠臣, 孝子, 烈女등 특정한 사람들에게 호역(戶役=질질마다 부과되는 부역) 기타 국가적 부담을 면제하여 주는(復戶實民結) 51結 16負 9束 內에 元田 41結 24負 6束. 논(畝) 406結 5負 2束. 속전(續田=땅이 줄지않아 해마다 계속해서 농사짓지 못하는 땅) 53結 87負 1束. 장부(帳付)외의 권경(勸耕) 신간(新墾) 속전답(續田畝) 19結 96負 1束.

세금을 매겨 내게한 출부(出賦)는 매결(每結) 大同米 14斗 內에 8斗는 작포(作布=세금을 쌀대신 면(綿)이다, 베(麻)로 내게함)와 전세포(田稅布=전세를 면포(綿布)나 마포(麻布)로 내는 세)를 한번에 선혜청(宣惠廳)에 상납하게 하였다. 현미(實米) 6斗, 콩(太) 1斗, 벼(秬) 14斗 4升, 삼(蔘)은 전(錢) 5냥(兩) 5錢, 結錢은 5錢 1分, 續錢은 3錢 3分, 돈과 곡식을 함께 서운의 훈련도감(訓練都監)에 上納 하였다.

세금(稅金)은 각 관아(官衙)에 상납 하였는데 정해진 세액에 따라 매년 재획을 세우고 조정(調整)하여 上納 하였다. 호조(戶曹)에 납부 하는 전포(田布=쌀대신 삼베로 내는 세금) 매결(每結) 15尺 4寸 식이었다. 신사(辛巳)년 政府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삼수포(三手布=砲手, 殺手, 射手를 말하는데 三手의 정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實役に 복무하지 않는 첩에게 징수하는 삼베)는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납부하였으나 지금은 양창청(糧餉廳)에

남부 한다.

添載(原本 38)

신포단(沁布段=江華島에서 세금으로 전워 드리던 상배와 면포)은 江華府에 포군(砲軍=대포를 장비한 군대)이 신설된 후 壬申年에 政府에서 처음으로 계획하여 새금을 건어드리는 격식을 작성 하였는데 4분의 1은 돈으로 내고, 4분의 3은 본래의 방식(方式)으로 江華島 氣津에 上納 하였다.

1. 田賦(原本 35, 152, 153)

전부(田賦=土地의 수입에 대한 租稅)
임진난(壬辰亂)으로公私 文書가 다 없어졌다. 유독 옛날 토지대장(田案)이 한 書員(고을에서 세금을 받던 구실아치)에게 남아 있어서 1603年(癸卯, 宣祖 36年) 토지측량(量田)시에 郡守 최 립(崔立)이 마침내 구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 數字와 대조하여 토지대장(田籍簿)을 작성하였다. 그후 호조(戶曹)에서 만들어 넣은 부역(賦役), 이것은 평상시(平常時)의 10배나 되었다. 간성(杆城)사람들은 이 개앙의 허문을 뽐 보에게 돌렸다.

1603年 음력 12月(癸卯, 宣祖 36年) 양전(量田=田畝측량) 후 田政이 어지러워진 고로 지난 무자(戊子)年에 전답측량한 원 대장에 부합시켜 논밭을 합쳐 1,340結 1負 3束 중에 390結 64卜(복) 6束은 이진의 진진포락(陳田浦落=묵정밭이 장마에 유실됨) 譯者 註: 結(결), 負(부), 卜(복), 束(속), 把(파)는 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土地 면적의 단위인데 1結=100負(卜)짐, 1負(卜)짐=10束(束), 1束=10把(把)

아록전답(衙祿田湊=지방관청의 각종 경비와 守衛의 봉독에 쓰도록 나라에서 지급한 논밭)은 50結이다. 매년 元結에서 보충해 넣음으로 元結 부족분은 건어들인 조세 중에서 24結 30卜 5束을 허위로 기록하고, 원급미(原米)를 건어서 元結에 채워 넣는다.

무인(戊寅)년에 안집사(安集使=壬辰난때 軍民을 구휼(救恤)하고 위무(慰撫)하여 安住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 관아의 관원) 구윤명(具允明)이 本道를 다녀가서 임금에게 별도의 글(別單書啓)을 올린 것이 인연이 되어 도신(道臣=강원 감사)이 각 郡을 순회할 때 집집마다 방문해 보고(摘奸)탕감해 주었다.

전전(陳田=목정밭=오랫동안 갈지 않고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땅) 35結 60卜 9束을 己卯年에 郡守 申 陳)이 폐막(弊穢=고치가 어려운 폐해)을 일금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특별히 파견한 도사(都事=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아보던 중5품 벼슬) 金鎭正이 집집마다 방문해 보고탕감하였다. 335結 82卜 9束 각종 세금 면제 및 역줄(驛卒=역에 딸려 심부름 하는 사람, 역부)의 부역을 면제해 주고 실제 주인의 結 548結 53卜 4束과, 밭(旱田) 104結 22卜 1束, 논(水田) 369結 21卜 2束, 속전(續田=땅이 메달라 해마다 농사짓지 못하는 땅) 75結 10卜 1束, 권경전답(勸耕田畝=경작을 권유하는 논밭) 2結 85卜 7束, 이것은 곧 장부에서 제외시켰다.

전세포(田稅布=전답세를 쌀대신 배로 받는 세)

14同 34疋 14尺은 【譯者 註: 同(동), 疋(필), 尺(척)은 피륙을 세(재)는 단위, 1同=50疋, 1疋=35尺】 무자(戊子)년 총수(總數)인데 4월에 겉우어서 5月初에 인제(麟蹄) 육로로 말에 실어서 운송하여 10여일 후에 군사감(軍資監=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에 납입한다.

大同저축미 303섬을 작포(作布=쌀로 받던 田稅를 배로 대신 받음)로 12同 9疋을 田稅로 일시에 선혜청(宣惠廳=大同 米, 布, 錢의 出納을 맡아보던 관아)에 납입하고, 결전(結錢=국고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전의 부가세로 받던 돈)은 매결(每結) 당 5錢 1푼(分)식이고, 속전(續田=땅이 메달라 해마다 계속 농사지을 수 없는 논 밭)은 3전(錢) 8푼식이다.

2. 徭役(原本 38, 153)

요역(徭役)…나라에서 백성에게 세금대신 시키던 노동(勞動)

이고장 사람의 이속(吏屬=관아의 구실아치) 사령(使令=관아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 관노(官婢=관가에 팔린 사내종), 교노(校奴=재사를 맡아보던 구실아치), 역졸(驛卒=역에서 심부름하는 역부), 해호(海戶=漁民), 각종 잡인(匠人=손재주로 출전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유명인(有名人)까지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실제로 요역에 응한 호수(戶數)는 2,070호인데, 매호당 솥 1선, 잣 1되(升), 닭 1마리 식을 전어서 관용(官用)으로 쓰게 했다.

較正(原本 39)

官에서 사용하는 닭, 솥, 잣은 일찍이 옛날부터 일반 백성으로부터 걷수었다. 닭은 壬子年에 돈으로 114냥을 각 邑에서 3푼 이자로 납부하였다. 官에서 쓰는 솥은 郡 창고지거에게 바치었다. 잣은 官에서 사용량을 줄여 무역(貿易) 거래를 하도록 했다. 솥(炭)과 잣(栢)을 융통(變通)하였는데 어느때 부터인지는 알 수 없다.

添載(原本 39)

백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은 모두 280石이었고, 자리(郵吏=감영에 속한 아전으로 郡廳과의 연락을 취하는 직책)의 보수와 25年間の 정비(淸費=새금을 바칠 때 아전에게 공식으로 주던 잡비)로 170石을 출납(出給)하였다. 약제(藥材) 조는 정비(淸費)로 46石을 지급하였고 大同稅 상납 정비(淸費)로 24石을 지급하였다. 남자종(奴干)의 반료(餼料)로 10石을 지급하였고, 악공(樂工) 상납(上納)에 10石을 지급하였다.(原本 68, 162)

어염(魚鹽=물고기와 소금 또는 漁業稅와 塩稅) 균역법(均役法=1750年(英祖 26年) 稅(役)을 均等하게 한다고 軍布 2疋을 1疋로 주려고, 그 收入의 不足을 漁業稅, 塩稅로 충당하였다.) 후 어류(魚類)와 소금은 함께 균역청(均役廳)에 속(屬)하였다. 해마다 春·秋로 어선(漁船)과 소금가마(塩釜=塩釜) 大小에 따라 세금(稅金)을 정하여 균역청에 납부하게 하였다. 漁船 한척수가 87척이고, 염분(鹽盆)합계수는 23좌(坐=집, 술, 함아리, 악기, 장, 농 등을 세는 단위)이다.

較正(原本 68, 69)

漁船 87척의 納稅는 매년 배를 점검할 때에 누락되는 것 없이 稅金을 徵收할 방법이 없어 1842년(壬寅, 憲宗 8年) 營門을 설치하고 매년 船稅 700石(돈으로 110兩)을 공제(扣除)하고, 그 나머지 세금 곧 1860년(庚申, 哲宗 11年) 2月 南北漁民이 계속 호소(呼訴)해 오는 까닭에 定해진 액수로 上納을 徵收하고, 漁船點檢을 일정기간 중지하고, 營장독 23坐중에서 8坐 8분(盆)을 감면시켰다.

1849년(己酉, 憲宗 15年) 郡守 서유여(徐有雷)가 170兩을 3分변으로 各里에 내주고, 元金은 유예하고, 15坐에 대한 利子만 받게 하였다. 그리고 近年에 와서 그에 따라 里中 혹은 宗中에게 돈을 변통해 주고 元金은 존치시키고 증식된 이자만 납입케 하였다.

3. 進貢(原本 79, 80, 81, 165, 166)

較 正

田稅는 戶曹에 납부

등재(登載)되지 않은 총 세액

콩세(太作) 대신 삼배 80필 5척 8치

쌀세(米作) 대신 삼배 378필 34척 4치

농사장려세(勸耕稅)쌀, 콩 대신 삼배 13필 15척 3치

군자금(軍資監)에 상납하는 공물(貢物)

임자(主人) 역가포(役價布=京邸吏와 營邸吏가 받는 보수) 19필 22척 1치

심영(江營=江華島 鎮撫營)에 상납하던 군량(軍糧)

쌀세(米作布)대신 삼배 140필 15척 5치

군량(軍糧)으로 무게로 상납하는 삼수포(三手布=砲手, 射手, 殺手の 三手를 혼련하는 비용으로 징수하는 稅米) 249필 1치

찰(淸蜜)「奉常寺」「內贍寺」「內資寺」… 禮曹, 戶曹

들기름(法油)「義盈庫」… 戶曹

밀납(黃蜜)「奉常寺」… 禮曹

며주(末醬)「禮賓寺」… 禮曹

메밀쌀(蕎麥米) 「奉常寺」…禮曹

초벌주지(苧紙=왕명을 적는 종이)와 보통주지(梧常注紙) 「典儲倉」…戶曹
田稅를 쌀과 콩 대신 삼베로 받게 한 이후에 값이 오르게 되어 나누어서 상
납하게 하였다.

중포(中脯=나라 제사때 쓰던 魚肉의 포)

건문어(乾文魚=말린 물어), 건대구어(乾大口魚=말린 대구), 건홍합(乾紅蛤
=말린 홍합), 원전복(圓金鰓(鰓)=말린 전복), 건연어(乾鰔魚=말린 연어),
건저(乾猪=말린 돼지고기), 건장(乾獐=말린 노루고기) 「司宰監」…戶曹
백자(栢子=잣), 생이(生梨=배) 「露苑署」…工曹, 지초(芝艸=지치, 영지),
오미자(五味子=오미자 나무의 열매), 홍화(紅花=잇꽃의 꽃과씨, 피를 다스
라는데 씀) 「濟用監」…戶曹, 인삼(人蔘) 「司藥寺」…戶曹

우황(牛黃=소의 쓸개에 이상으로 생김, 강장제), 백복령(白茯苓=흰복령
오줌, 땀, 설사 승중 등) 벽피(藤皮=황박나무 껍질, 약용, 염료)

진봉(秦茸)

목통(不通=으물덜굴 약용 이노, 부장 등)

신각(蟬殼=메미의 허골 약용)

천남성(天南星=약용 식물, 독이 있음, 담, 풍에)

지유(地榆=약용 식물 지혈, 루스럼, 이질 등에)

해조(海藻=바닷말 : 바닷물 속에 사는 꽃없는 식물) 「典醫監」…禮曹

백작약(白芍藥=뿌리를 약제로 보혈, 진정 등에) 「惠民署」…禮曹

여로(藜蘆=약용식물 뿌리 줄기에 독이 있음)

백화사(白花蛇=독사 뱀의 일종 문둥병, 보신 강장제로 씀) 「司僕寺」…兵曹

조각(早藿=얼룩 떠는 미역), 상각(常藿=보통 미역), 괵이(藿耳=미역 귀
(머리) 「義盈庫」…戶曹

말안장(全漆鞍枝) 「工曹」

향각궁(鄉角弓=소뿔, 양뿔 활), 궁현사(弓絃絲=활 시위, 실), 적마전(狄磨
箭=4자 길이 화살), 편전(片箭=짧은 화살), 향우근(鄉牛筋=소 힘줄), 소목
(櫟木=활을 만드는 목수한 나무), 숙장피(熟算皮=부드럽게 기증된 노루
가죽) 「軍器寺」 이상 여러가지 조목은 다만 기록상의 물품인데 명현으로 이
번에는 공물(貢物) 중의 땡것(雉羽) 「軍器寺」 매년 돈으로 대신 삼납, 양탈

(羊毛)「尙義院」…工曹. 매년 산돼지털로 대신 상납

日本(倭)에게 기증하는 매(鷹子)「禮曹」동래(東來)로 직송, 羊「典牲署」…禮曹 이상 두 종류는 명령으로 공물폐지

무당세(巫女稅)「濟用監」戶曹에 상납 여러가지 장인세(諸色匠人稅)「工曹」이번에는 없음. 소금세(塩稅)「司贖寺」…戶曹 명령이 있으면 상납

닥나무밭세(楮田稅) 이번에는 없음

어선세(漁船稅)「司宰監」…戶曹 명령이 있으면 상납한다. 상술한 균역법조를 참고

較正(原本 81, 82)

군수가족 녹봉쌀 28결 39부 5속과 어느해 비변사(군의 사무를 관장하는 곳)로 인하여 王의 허락으로 땅이 없는 사람에게 물게 하던 납세를 탕감한 후로 쌀 160섬과 자체로 결정한 납세액 감세중에서 60섬으로써 군수 가족 녹봉쌀과 세금으로 징수한 쌀 100섬 중에서 팔 4섬을 서로 바꾸어 96섬을 납세액으로 결정하여 전체 월수(月收)세를 상납하고, 하전(下錢) 200냥을 달벼름(한달에 얼마씩 나누어 빌려주는 대여제도)으로 내어 주고 조세 130섬 중 99섬 2말 7되를 매년 1월초에 각 창고 출납 관리가 8개면 무역 주인(主人=감영에 딸려 있으며 군청과 연락을 취하는 관리)에게 내어주고 각종 나머지 세금 30섬 2말 3되를 달벼름으로 사용했다. 땔나무 7,194단, 장작 1,549단, 전초 1,291단

較 正(原本 76, 77)

春等(1등급) 人蔘 22냥은 옛날부터 서울에 진상하고 그 해당되는 1,760냥 中 666냥은 郡自意로 하였다. 營門 人蔘창고에 보관한 1,100냥 秋等(2등급) 人蔘 16냥 中의 12냥은 丁未年과 壬子年의 처리에 의한다. 조정의 명령으로 경작을 바꾸어 생산된 것은 서울로 진상하고 흉년에 대처할 목적으로 상비(常備)해 둔 인삼 4냥마리(價) 320냥 臘等(3등급) 인삼 10냥 中 8냥은 丁未年과 壬子年의 예에 의하고 조정(朝廷)의 명령으로 경작을 바꾸어 생산한 것은 서울로 진상(進上)하였다. 흉년에 대처할 목적으로 대비해 둔 인삼 2냥품 160냥을 합해 1,580냥 中 1,000냥은 1월에 마땅히 상납하고, 400냥은

第七章 寺 廟

1. 鄉校(學校)(原本 48, 157)

北川 상류 마자산(麻者山) 줄기에 있는데 郡城에서 7里 거리다. 문루(門樓)가 있고 문루에서 냇물이 내려다 보이는데 냇가에는 松林 수백주가 그늘을 지우고 깨끗한 물과 돌, 그리고 물가의 알벽과 꽃과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대단히 아름답다. 郡城 北쪽에 있던 옛날 學校를 郡西쪽 5里 구산(龜山)으로 옮겼다.

1546年(丙午, 明宗1年) 郡守 함헌(咸軒)이 이곳으로 옮겨 지었다.

부록(附錄)

1760年(庚辰, 英祖36年) 郡守 신간(申堅)이 옛터 東쪽 기슭 아래 2里쯤 되는 곳에 옮겨 지었다.

당묘 사직단(壇廟=祭壇과 祠堂) (社稷壇=土地의 神인 社와, 곡식의 神인 稷을 함께 쌓아올린 단)은 郡 西쪽 2里.

교정(校正)(原本 51, 52)

전봉사의 중전은 1631년(癸未, 仁祖9年) 덕당(澤堂) 李公이 상량문을 썼는데 1712년(壬辰, 肅宗38年) 화재를 입어 1714년(甲午, 肅宗40年)에 다시 지었다. 1846년(丙午, 憲宗12年) 또 화재를 입어 다음해(1847年, 丁未)에 중전하고 그 자리에 화재를 본 어향각(御香閣)과 정전문을 합해 1,500여칸을 당시 관찰사(도지사) 박종길(朴宗吉), 군수 정재돈(鄭在容)이 계획하여 중전하고 박 관찰사가 중수기(重修記)를 지었고, 승당(승려가 참선하고 지킴하는 집)을 신설하고, 만일회(萬日會=아미타불에 나가 도를 닦는 불교의

식) 사선(四仙=新羅의 國仙) 승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예불을 올리고 불법 강을 들은 하던 큰절이 1878년(戊寅, 高宗15年) 산불과 강풍으로 보림암에서 부터 청연암등 각 방(房)을 불태워버리고 봉암 하나가 남았다.

다음해 특별 배려로 어향각(御香閣) 및 법당 좌우에 승당(僧堂) 청연암(靑蓮庵), 백화암(白花庵), 보림암(普林庵), 낙서암(樂西庵) 등을 예전과 같이 굉장하게 재건하고 모든 승려들이 모여 1년에 2회씩 갖먹을 수진궁(壽進宮)에 바치고 모든 것을 전주었다. 팔상(八相), 혜월(慧月), 청연(靑蓮) 등 승방과, 사명비각(泗溟碑閣)은 아직 다시 건축하지 못하였다. 반야암(般若庵), 상원암(上院庵)의 폐허된 연대는 알 수 없다.

添載(原本 52)

극락암(極樂庵), 보문암(普聞庵)은 건봉사 북쪽 기슭 3리 거리에 있는데 새로 지은 연대는 알 수 없다.

성황사(城隍祀=서낭당) 객관(客館) 뒤편 기슭에
(原本 49, 157)

여제단(厲祭壇=제사를 받지 못하는 無主孤魂이나 疫疾을 퍼뜨리는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제단)

郡 北쪽 2리 지점에 위치.

2. 불우(佛宇=佛堂=佛殿)

건봉사(乾鳳寺)(原本 49, 50, 51, 157)

창건(創建)은 본래 신라(新羅) 열산현(烈山縣) 金剛山 南쪽에 서봉사(西鳳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건방(乾方=西北方位)에 고개가 있고, 큰돌이 봉황이 날르는 모양 같아서 乾鳳寺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골짜기 안에 四方 산세(山勢)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방(房)과 같이 은은하다. 가운데를 맑은 냇물이 東쪽으로 흐르는데 여울과 폭포에서 물에 부딪치는 물소리가 우뢰소리 같고 혹은 요란한 수레바퀴의 쟁음을 낸다.

처음에 팔교도들이 모여 예불을 드리고, 불보살(佛菩薩)의 영묘한 감응

(感應)과 사적(事蹟)에 대한 기록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

백연암(白蓮庵), 악서암(樂西庵), 청연암(靑蓮庵), 은선암(隱禪庵), 영맹암(靈盟庵), 서봉암(棲鳳庵)은 모두 건봉사(乾鳳寺)에 속해있다. 청연(靑蓮), 영맹(靈盟), 은선(隱禪)암은 다만 빈터만 남아있다. 본래 악서암(樂西庵)의 불도(佛徒)들이 암자(庵子)를 세웠다. 西쪽에 石臺이 있는 곳이 바로 사리(舍利)가 소장된 곳이다.

본절(本寺)이 火災를 당했기 때문에 1624年(甲子, 仁祖2年)에 다시 건축하는 도중 1632年(辛未, 仁祖9年)에 또 火災를 입었다. 절 사람들이 다 헤어져 달아났다. 이제 약간의 사람들이 다시 도라와 東西堂의 절을 새로 지었다. 前날의 호화롭던 절을 복구하지는 못했다.

乾鳳寺에 딸린 여러 庵子의 위치

백화암(白花庵) 건봉사에서 北쪽으로 1리거리 승방(僧房)이 12개 있다.

청연암(靑蓮庵) 東쪽 5里

반야암(般若庵) 西쪽 4里

상원암(上院庵) 西쪽 6里

봉 암(鳳 庵) 西쪽 7里

보림암(普林庵) 西쪽 10里

조재암(鳥啼庵) 北쪽 40里

백연암(白蓮庵), 은선암(隱禪庵), 영맹암(靈盟庵)은 (명파역(明波驛) 北쪽 산골짜기에 있다)

교정(敎正)(原本 54)

화암사(禾岩寺)는 본디 신라와 신승(神僧=神通된 승) 진표(眞表) 율사(律師=十法을 갖추고, 계율을 잘 지키는 고승)의 창건으로 그후 누차 화재를 입었고, 또한 재전축 되었다. 1860年(庚申, 哲宗11年) 음력 윤3월 1일 오전10시경 자연발생 화재가 일어나 품곡(강원도 맨북쪽 원산 부근)에서부터 감동, 정선등을 불태울때 역시 본절도 불타버려 다음해 전과 같이 재전축 하였다. 수년이 못되어 또 화재를 입어 법당과 승방을 옛터 아래에 옮겨 자

었으나 승려수가 보잘것 없고, 경제정 역시 궁핍하게 되어, 절운영이 곤란하여 추후에 안양암(安養庵)을 재건축 하였다.

較正(原本 49)

사직단(社稷壇) 2칸, 전사청(典祀廳) 4칸을 1872년(壬申, 高宗9年) 군수 김조현(金祖憲)이 옛대로 다시 고치고, 여제단(厲祭壇) 신주모신곳 1칸, 계물서(癸物所) 1칸(間), 祭官房(제사를 맡아보는 관리의 방) 1칸을 1869년(己巳, 高宗6年) 군수 이인정(李寅正)이 다시 지었고, 성황단(城隍壇)은 오래되어 퇴락하여 군민들이 다시 고쳤다고 하나 현대는 모른다.

부록(附錄)(原本 51, 158)

절앞에는 돌로 만든 무지개다리(虹石橋)가 있다. 乙丑年 大洪水로 파괴되어 己巳年에 사승비(寺僧費) 염전 1,000냥으로 다시 전과 같이 무지개다리를 놓았다.

화암사(禾岩寺)(原本 52, 53, 158)

천후산(天吼山)에 있는 시파령(彌矢坡嶺) 아래 水岩 그 右측에 위치하는 고로 화암사(禾岩寺)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절은 큰산 허리에 위치하는데 영랑호(永郎湖)가 가까이에 있고, 멀리 東海에 임하고, 가까이에 양양 간성의 여러 산들이 보이고 平原과 깊은 골이 모두 발 아래에 있고, 골이 넓어 여러가지로 달라지는 모양, 절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모두 독특한 모양으로 가히 볼만하다.

1622년(壬戌, 光海君14年)에 火災를 당해 곧 다시 건축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옛날에 있던 문루(門樓)는 매우 훌륭하였던 것이 없어졌다. 이른바 누(樓)에서 東海를 바라보는 것은 절강호(浙江湖)를 보는 것 같다. 옛사람이 아직 유람오지 않고, 원주민이 관동의 명승지를 대수롭게 보지 않고 영동을 찾는 과객(過客)도 깊숙히 숨어있는 이 사찰을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부록(附錄)(原本 53, 54)

丙申年에 도적이 불을 놓아 방(房) 네 칸을 태운고로 己亥年에 다시 지었다. 庚辰年에 또 火災를 입어 甲申年에 다시 건축하였다. 안양암(安養庵) 禾岩寺 西쪽 5里, 서전암(書殿庵) 禾岩寺 서쪽 반두리, 적명사(寂明寺) 선유곡(仙遊谷) 깊은골 인적(人跡)이 드물어 고요한 곳이다. 옛날 절에서 여러번 옮겨 지었고, 지금의 만 터에는 노승(老僧) 4, 5인이 있었는데 이곳에 작은 석굴(石窟)이 있었다. 임진난(壬辰亂)때 住民들이 이 석굴에서 적의 화를 피하였다.

日出庵 유암(油岩, 또는 油庵) 즉 죽포역(竹泡驛) 남쪽 작은山에 있었는데 東쪽은 해변이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보현사(普賢寺)

천후산(天吼山)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건봉사(乾鳳寺)(原本 196, 197, 198)

건봉사에는 수륙보적기(水陸寶積記)라는 책이 있다. 1444年(甲子, 世宗26年) 노은(圃隱) 차이주(車李樹)와 저술(著述)이라고 한다. 別書(別記나 別傳과 같은 책)과 列聖(列聖祖=역대 임금의 존대하는 말) 그리고 목조(穆祖=李成桂의 高祖父) 이하 太宗 및 비빈(妃嬪=임금과 태자의 아내), 모든 王子, 부마(駙馬=임금의 사위), 적리(戚里=임금의 내척과 외척)의 姓名, 또한 이 책에는 世子的 小字(어릴때의 이름) 곧 이와같은 것들이다.

문묘(文廟=孔子와 존선비를 함께 모신 사당)에 모신분의 휘(諱=작고한 분의 이름)이다. 그리고 차석(次席)으로 모신 분들의 비록 문란(紊亂)한 한때의 관직, 봉호(封號=전날 칼을 봉한 이름)도 많다. 참고할만한 사람이 또 있는데 원각사(圓覺寺)에 숨어있는 한 승인데 원각사 道場의 참예자중 맨끝에 있는 僧이다.

광묘(光廟)에는 임금의 수경(手決) 도장이 찍힌 어보(御寶)가 있고, 불공자(佛供者) 방명록(芳名錄) 끝에는 “상수 모관신 신숙주(相首 慕官臣 申叔

舟)와 장수 모관신 한명희(特旨 某官臣 韓明熙)*라고 써있다. 韓은 즉, 도체찰사(都體察使=戰時에 領議政이 겸임하던 최고 軍職)를 겸직한 바 있으므로 장수(將首)라 칭했다.

高麗의 승(僧) 선탄(禪坦)이 일찍이 양양과 간성 간에 詩 한귀를 남겼다.

鳴沙十里海棠花 兩兩白鷗飛疎雨 乃嶺東海汀一段 生色畫也後來模

명사십리에 허당화 붉게 피고

잘매기는 쌍쌍이 빙글글 나는구나

영동의 동해바다는 한 계단 같은 해안

한폭 그림이 생색내며 다시오라 하네.

여기에 다 옮겨쓰지 못하였다.

申公 潛(潛)이 1550年 郡守로 부임해왔다. 그는 낙봉(駱峯)에게 선물로 다음과 같은 詩 2絶을 지었다.

一萬峯巒又二千 일만 봉우리에 또 이천봉

海雲開盡玉蟾娟 바다구름 걷지니 모두가 옥녀봉일세

少仍多病今傷老 젊은 세월 다 보내고 병이 많아 저렇게 늙었느냐

孤員名山此百年 외로운 명산 여기 또 백년을 더하구나.

追惟勝迹發長嗟 오직 명승지를 쫓아서 먼길 떠나는데

三十年前夢一過 30년전엔 꿈같이 지나쳤던 길

疎雨落霞鳴玉路 부슬비에 노을이 지고 이슬울 밝는다

馬蹄曾踏海棠花 일찍이 해당화를 밟던 말자취를 따라서.

元亮之時我亦遊 원량(元亮=申潛의 號)이 갈대 나도 같이 와서

嗒然相倚夕陽樓 생각없이 기대앉은 객관루에 쇠가 지누나.

今來山海皆如舊 이제 다시와도 산과 바다는 옛날 같구나

還向何人說晚秋 돌아가면 누가 가을을 말해줄 것인가.

이 시 역시 申潛의 作詩이다.

진사(進士) 유극신(柳克新)이 알뜰히 미시파령(彌矢坡嶺)을 지나면서 長
短句 한편(篇)의 詩를 남겼다. 그 첫머리에

彌矢城 城東城西 二沅水 東流東海 西流西海
미시파령에는 영동 영서로 흐르는 두 줄기의 하천이 있다.
동류천은 동해로 서류천은 서해로 흘러든다.

끝부분에서 이르기론

나는 청차 궁씨(淸氏) 兄弟를 맞이할 것이다.
指瓜擲出青天外
仍令兩流合一流 두 줄기로 흐르던 강이 하나로 합쳐 흘러
直往漢城之西頭 곧바로 한성(서울)을 지나 서쪽으로
浩浩蕩蕩萬萬秋 유유히 흘러 흘러 몇만년을 가리라.

세상사람 모두가 조경 증신들의 분당(分黨)을 개탄하고 있다.

혹 묻기름 그 궁씨(淸氏)는 어떤 사람이고 허씨(許氏) 이것은 반고
(盤古=中國 전설에 나오는 天地 창조와 거인)라는 老人이 살고 있는 넓은
땅에 다만 3兄弟가 있는데 하늘, 땅, 사람(天地人)이 삼재(三才)를 이루고
있다. 삼재자(三才者)는 곧 궁씨(淸氏)를 지칭함이다. 그는 7학, 6척도 아닌
데 100年을 산 사람이다. 그와 같은 유(類)의 이야기가 후연(鄒衍)이란 소
설(小說)이다.

第八章 人物

1. 風俗(原本 22, 23)

박노소(朴魯小)의 문집(文集)에 보면 農業에 어느정도 힘을 썼고 의복(衣服)과 음식(飮食)은 모두가 검소(儉素)하였다. 백성들은 병(病)이 나면 외시나 약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빌어서(祈禱) 병을 고쳤다. 그래서 관내(管内)에는 무덤이 많다. 근래에 풍속이 더욱 저속하고 경박하게 되어 저주(咀呪)받게 변하는 것도 男女무덤(巫覡)들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사이에는 새로 이사하여 사는 사람중에 젊은 사람이 늘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장시(場市=한달 6장의 정기장)가 없는 곳의 장사아치는 오히려 속(俗)되지 않다. 노래 부르는 가생(娼妓), 사대부(士), 서민(庶)은 다소 상례(喪禮)를 중히 여기는데 민간(民間)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상(國喪=왕실 초상 시에는 백성 전체가 복을 입는다)이 행해지는 기간에는 탈상(脫喪=3年 상기를 끝낸)한 상인(喪人)이라도 잠하 집에 들어가서 침식(寢食)을 하지 못한다. 서민(庶民)이 병(病)이 중하게 되면 집밖으로 옮겨놓고 끝까지(사랑꿀때까지) 예절에 따른다. 그 예절이 많아서 읍(邑)에 사는 사람들이 복잡한 풍속을 꺼리고 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文科나 武科에 오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임진(壬辰) 이후 처음으로 武科에 오른 사람이 나왔고, 이번에는 토착인(土着人)이 文科進士가 되었다.

어부(漁夫)의 특색인 황폐와 가난은 이것이 일증(一證)의 어리석고 완고한 어력을 제로이다. 그러나 고기잡이의 이(利)는 역시 관(官)의 함을 입어야 한다. 이제 民俗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바닷가 어항에 八道에서 모여드는 장사아치의 간사한 소인배들의 계 모임인 고로 人心이 속임수가 많고 송사(訟事)를 좋아하는 것들이 敎化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것은 漁夫는 어리석고 완고할 뿐이다.

2. 姓 氏(原本 9, 10)

구지(舊誌)에 기록된 姓氏는 옛날과 같이 변성하고 있으나 다만 어(於)씨 姓은 어(魚)氏가 변한 것 같으나 年代는 알 수가 없다. 丁巳年에 예조(禮曹)에 상정하여 於씨 姓을 다시 魚氏로 고치고 본관(本貫)은 함역(咸役)으로 바꾸었다. 음죽(陰竹) 金씨는 본관을 경주(慶州)로 바꾸고, 열산(烈山) 崔씨는 江陵으로 바꾸고, 平昌 金씨와, 영덕(盈德) 朴씨와 보성(蒲城) 朴씨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添載(原本 10, 11)

평해(平海) 黃씨, 창원(昌原) 黃씨, 여산(礪山) 宋씨, 제주(濟州) 高씨, 충주(忠州) 池씨, 이천(利川) 徐씨, 순흥(順興) 安씨, 밀양(密陽) 朴씨들이 이곳에 들어와 사는 年代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변성하고 있다.

김자발(金自發), 김자택(金自澤), 김자용(金自溶)은 본래 江陵 金씨로서 이 고을에서 영해(寧海) 사람 박응렬(朴應烈), 박응훈(朴應勳)과 같이 한마을에서 살았고, 마을 이름은 고읍리이다.

1592年 壬辰난을 당하여 왜구(倭寇)가 향교(鄕校)에 침입하여 기물(器物)을 불태웠다. 이때에 김자발의 큰아들 태연(兌演)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가 성현(聖賢)의 위패(位牌)를 보호하려다가 왜구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난(亂)이 평정된 뒤에 향교(鄕校)를 재건(再建)하려 하였으나 재정(財政)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도신(道臣-道知事) 정술(鄭述)이 조에게 상주(上奏)하여 특별히 재정 지원을 받았고, 각邑 훈도(訓導=正9品 벼슬)들이 비문(碑文)을 썼다. 영외정(領議政) 이병모(李秉模)가 碑文을 지었고, 형조판서(刑曹判書) 서영보(徐榮輔)가 글씨를 썼다. 또한 기제(紀溪) 유한지(俞漢芝)는 그것을 전서(篆書)로 써서 孔子廟 옆에 세웠고, 책으로 저술하여 함께 보관해 왔으나 지금은 서울에 올라가 보관되어 있다.

魚, 尹, 鄭, 崔 네 姓氏는 원래 이곳에 정착한 향반(鄕班)이며, 崔, 金, 黃, 朴, 尹, 李 6姓은 그 先祖가 돈과 더불어 麥 3,000냥(兩)을 공물(貢物)로 바치자 庚寅年에 이르러 여러번 성균관(成均館)에 알려 허락을 받고 향교(鄕校)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네(4) 姓氏와 더불어 2年에 한번씩 따라가

도록 하였다. 高, 吳, 金, 咸, 林, 鄭, 朴, 姜, 全, 嚴, 白, 崔, 洪, 宋, 李 15姓은 객사(客舍=각 고을에서 關牌를 모셔두고 王命을 받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하던 집)를 重建할 때 돈을 부조(扶助)하였으며, 정복궁(景福宮)을 지을 때에도 돈을 부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청 청사(廳舍)를 수리하거나, 건축할 때에도 부조하였고, 마을 세금에도 부조하여 모두 1萬3千兩을 부조하였으나, 鄕校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己卯年에 비로소 경영(京營=서울의 訓練都監)에 품소(禀訴)하여 마침내 허락을 얻어 47姓이 유림(儒林)에 복귀하게 되었다.

姓氏…()안은 本貫(原本 145)

宋, 李, 張, 文(本郡), 崔, 麻, 皇甫(烈山)

新增

金(平昌, 陰竹), 李(平昌), 咸(江陵, 楊根)

南(英陽), 孫(平海), 張(丹陽), 朴(盈德, 甫城)

林(蔚珍), 崔(江陵), 鄭(延日), 尹(龍宮), 於(延安) 全(旌善)

부록(附錄)

姓氏를 살펴보면 本郡 본관(本貫)姓이 아닌 姓을 부당하게 기록하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본군에서 번성(蕃盛)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황보(皇甫)씨와 마(麻)씨는 그렇지 않다.

3. 人物(原本 88, 89, 90, 167, 168)

孝子

김봉상(金鳳祥) 〈朝鮮시대〉

父母의 상(喪)을 당하여 여막(廬幕=무덤 가까이 짓고 상제가 거처하는 임시초가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죽과 다과(茶菓)만을 먹고 3년간 한번도 집에 오지 아니하였다. 官에서 이 사실을 알고 立石과 정문(旌門)을 세웠다.

열녀

(烈女=남편을 위하여 절개를 지키 남의 본보기로 될만한 여자)

정씨(鄭氏) (朝鮮시대)

석재(石介) 校生(書院이나 鄕校에 다니던 生徒)으로서 희명(希明=신라 35대 경덕왕때의 女子로서 분황사 벽화 千手大慈 앞에서 정상의 불공으로 눈을 뜨게 한 여자) 같은 女子였다. 나이가 많도록 시집가지 않고 있다가 王后애란을 당하여 피난기다가 산골에서 왜적을 만났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불응하다가 죽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문을 세웠다.

忠臣

손세경(孫世卿)

왜적에게 잡혀가 文書 연락을 강요당했으나 불응하고 몇 번을 도망하다가 잡혀 책살(醢殺)=기둥에 걸박하고 창으로 찔러죽임)을 당하였다. 官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자손에게 벼슬을 주었다.

孝女

석을녀(石乙女)

良人 김석봉(金石奉)의 딸로서 아직 시집을 가기전에 화적(火賊=철종조 때 횡행하던 횡불을 들고 습격하던 도적떼)의 습격을 받았다. 그 가족이 살해되고 분방을 당할때 늙으신 아버기를 시루로 덮어 감추어 명명을 건지게 하였다. 이 사실이 알게 되어 정문을 세웠다.

良女(良人の 딸)

천대(天代)院에 속해있던 김언룡(金彦龍)의 처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따라서 죽기를 맹서하고 장례를 끝내고 음독 자결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정문을 세웠다.

정씨(鄭氏)

유학(幼學=벼슬하지 아니한 유생) 율대벽(尹台辟)의 처로 남편이 사망하여 장례도 치르기 전에 남편의 빈소(殯所) 앞에서 목을 매고 자결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정문을 세웠다.

함씨(咸氏)

무학(武學)을 입삼던 이만기(李萬起)의 처로 시집온지 몇 해 안되어서 남편이 사망하였다. 그는 곧 죽어서 같이 地下에 묻힐 것을 맹서하고 남편 빈소 앞에서 목매 자결하였다. 이 사실을 듣고 정문을 세웠다.

文科

朝鮮時代 이지병(李之屏)은 공생진사(貢生進士=향교의 생도로서, 小科에 급제한 사람)로써 文科官으로 교서(校書=經籍의 인책과 교정을 맡아보는 校書館)의 校理(文翰을 맡아보는 弘文館의 正5品 벼슬)에 이르러, 行 인제, 올진 현감(縣監)을 지냈다. 어진창(於震昌)은 향인진사(鄉人進士)를 지냈다.中人 박천장(朴天章)은 進士를 지냈다.

武科

朝鮮시대 향교생도(貢生) 이지한(李之翰), 함대헌(咸大憲), 함이신(咸以信), 향인(鄉人) 윤지성(尹智聖), 여천의(於天儀), 교생(校生) 황대명(黃大命), 황치정(黃處正), 이임(李暉), 이동망(李東望), 保人(社丁이 正軍으로 나간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 최운익(崔雲翼), 최엄(崔謹), 윤이창(尹李昌), 황계청(黃桂淸), 최대징(崔大徵), 정이종(鄭以宗), 유림(儒林=선비의 道를 닦는 학자)인 윤극전(尹克潛), 최용각(崔龍珪), 그리고 同鄉人 김사만(金思萬), 유학(幼學=벼슬하지 아니한 儒生) 이석우(李錫雨), 中人 김현구(金鉉龜) 進士, 儒林 이필벽(李必壁) 등이 과거에 급제하여 주서(注書=承政院의 正7品 벼슬)가 되었고, 김병영(金秉榮)은 선공감(繕工監=土木建築)일에 종사하였다.

添載(原本 90)

中人 김석관(金錫煥), 김종운(金宗雲), 함창신(咸昌愼), 이덕신(李德愼), 김성현(金正鉉), 이만석(李萬石), 전완성(全完成) 등은 역리(驛吏=염참에 딸린 구실아치)이다. 박원혁(朴元赫), 박종운(朴宗雲)父子도.

(原註 127, 196)

郡 地域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소문(所聞)이 없는데: 城 西쪽에 사는 김강곡(金剛谷)은 아는 것이 있다. 전왕대(前王代)에 정승(政丞=여기에서는 參判 또는 判書 즉 大臣을 말함)을 지낸 이계방(李桂芳), 최입(崔立= (1539~1612) 자는 立之, 明宗16년에 文科에 壯元, 동 17년에 吏文庭試에 壯元, 外交文書 作成에 一人者, 松郡三絶(諱)의 한사람 著書多數, 1603~1605까지 杆城郡守)이 이곳에 살았고, 崔의 子孫도 代代로 그 집에서 살았다.

정유재란(丁酉再亂) 전에 감사(監司=관찰사=지금의 도지사)를 지낸 홍여순(洪汝諤)도 오절(梧岾)에서 말시 살았고, 이왕(李滉(1501~1570) 明宗 때의 학자, 호는 退溪, 白雲洞書院, 참판, 판서. 退溪集 등 著書多數)도 잠시 城 西쪽에서 살았다. 홍여순의 후손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고 없다.

和歌山 居士殿 寺(寧天傳) 僧沙彌 人

朝鮮朝 개국초 즉 1392年(壬申, 공양왕4年, 太祖元年) 7月 이성계(李成桂)가 三位에 오르자 공양왕(恭讓王)을 原州로 보냈다가 8月에 杆城으로 보냈다.

1579年(己卯, 宣祖12年) 사간(司諫=사간원외 正5品 벼슬) 송백원(宋百源)이 유배(流配)되어 왔다. 1623年(癸亥, 仁祖1年) 송교(應教=弘文館의 正5品 벼슬) 임성지(任性之)가 이이첨(李爾瞻=(1560~1623) 光海君때의 權臣, 大北의 영수로 광해군 옹립, 광해군 즉위로 예조판서, 仁祖反正으로 함형 당함) 당(黨)이라는 이유로 유배(流配)되어 왔다.

尹壘(尹壘)는 심히 사치하고 버릇없이 방종하고 법에 따르지 않고 그의 향리(鄉里)를 멋대로 왕리하면서도 태연하였다고 한다.

1625年(乙丑, 仁祖3年) 봄에 仁城으로 옮기고, 이곳을 객관(客館)으로 하고 은거죽을 이끌고 와서 살았다. 江原道로 하여금 공배미환(供饋米饌=어른에게 제공할 쌀과 반찬)과 어의(御醫=宮中の 侍醫)로써 황상 시종(侍從)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本縣의 官吏로서 粟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항상 증사하게 하였다.

(09 奉恩) 鄭沔

第九章 說 話

1. 東海 黃龍(原本 130, 131)

添載

1741年(辛酉, 英祖17年) 陰 7月 19日 午前 7時(卯時)에 맹렬하게 부는 바람도 없는데 바다물이 갑자기 말라 없어지고 거의 150보 앞에 전날에 풀깊이가 4, 5길 되던 곳이 육지가 드러났다. 잠시후 성난 파도가 소용돌이 치며 우뢰소리 같은 굉음(轟音)을 내며 물줄기가 하늘높이 솟아 올랐다. 천의 한 제지점에서 거의 3, 4백보에 이르러 하루 세 번 이와같은 일이 7번 같은 것이 있었다. 썰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따라 배가 물을 따라 山 밑까지 밀려나고, 人家가 무수히 매몰되어 영동 9읍(邑) 전체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 바다가 비상이전(非常移轉)하여 어선이 이곳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정의 영(令)으로 곧 동해묘(東海廟)에 제를 지내도록 했다.

1736年~1795年 사이에 松池浦 해변에 정영중(鄭永仲)이라는 힘세고 활잘쓰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밤 꿈에 靑色 옷을 입은 處女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東海王의 딸로서 이 송지포를 지키러 왔는데 이번에 南海王의 아들이 나를 더럽히려 하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 그를 제압하지 못해 그가 이 해변에 건너와 있으니 學問과 무예(武藝)가 능해 나를 제압하는 폭력에 대해 만드시 德으로서 보복할 수 있는 技術을 가르쳐 주던가 혹은 낫(鎌)과 긴 소나무를 가지고 내일 새벽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드시 동정(動靜)을 볼 수 있을테니 기회를 보아 신중하게 그의 허리를 찔러 실수 없도록 하시오” 갑자기 깨어보니 꿈이었다. 꿈에서 가르친 대로 낫을 들고 항포(項浦)를 살피는데 바다물이 끓어 오르며 우뢰소리 요란하더니 과연 붉은용(赤龍)이 허리를 번뜨기며 물위로 올라왔다. 영중(永仲)이 허리를 찌르려 했으나 겁에 질려 실행하지 못했다. 그후 몇달내로 정영중의

전가족이 사망했다고 한다.

浪 說 大 浪

2. 浪說에 놀란 官吏들(原本 132)

1758年(戊寅, 英祖34年) 陰 5月 초순 갑자기 근거없는 황당(荒唐)한 낭설(浪說)이 빠르게 양양(襄陽)으로 번져 나가면서 병졸(兵卒)과 주민이 소요(騷擾)를 일으켰다. 農民들은 개기를 버리고 가정살림을 정리하고 비바람 속에 들쭉날쭉 뛰어 분주하게 도망가서 숨었다.

3日이 지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다. 그때 양양부사(襄陽府使) 오봉원(吳奉源)이 놀라 급히 관아(官衙)의 직원과 가족을 산으로 피하게 하고 장교에게 군복을 입고 활을 메고 정탐(偵探)하게 하고 병졸(兵卒)로 호위하게 하였다. 상운(祥雲=작은 驛에서 驛馬를 관리하는 벼슬)과 참방(察訪=비교적 큰 驛에서 驛馬를 관리하던 벼슬) 전영수(全永壽)는 황망히 달아나고 양양(襄陽) 부아(府衙), 본역(本驛) 이졸(吏卒)은 말을 끌고 도주하여 창(站=역을 거쳐가다 쉬는 곳)이 다 비었던 고로 부사(府使) 및 참방(察訪)이 좌면되었다.

3. 癸卯 大饑饉(原本 133)

1783年(癸卯, 正祖7年) 관동(關東) 대기근(大饑饉)때 영동(嶺東)이 더욱 심하여 임금이 특별히 근심하여 10월에 임금의 말승(輪審)을 각 군보(軍保=正兵을 맡기 위해 둔 助丁)와 여러가지 人力으로 하는 상납(上納)과 전세(田稅)로 내는 대동미포(大同米布)등의 정부를 탕감(濫減)하고 어염선세(魚鹽船稅)를 내는 어업자(漁業者)는 明年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月別 進上로 明年을 기다려 응력 12월에 망감하고, 進上 기본액을 내는 것(出於)은 상정자(詳定者=貢物額 심사 결정자)와 진자(賑資=재난을 구제 하는데 쓰는 자금)를 유보(留保)하는 것과 또 道(江原道)에서 계획하고 있는 진자(賑資)와 국고(國庫)에서 내리는 하사금(下賜金) 銀 1,000냥, 초구(紹裘=담비 가죽으로 안을 댄 털옷) 환벌과 단목(丹木=키가 작은 상록 교목, 활(弓),

뽕잠(染科), 한약재) 500근, 음력 12월부터 영남(嶺南)곡식을 배로 운반해 오고, 평해포(平海浦)에서는 해독제(海漬祭)를, 양양묘(襄陽廟)에서는 사(祀)를 지내고, 1787年(丁未, 正祖11年)에 진자(賑資) 하사증으로 간성(杆城)에는 어린달 한필, 고성군수(高城郡守)에게는 길드린 밭 한필 평해군(平海郡)과 흡곡현(歙谷縣)에는 각각 장궁(粧弓) 한장(張)을 하사하였다.

4. 壬子 大火災(原本 114)

1792年(壬子, 正祖16年) 음력 4月 本郡 民家 161戶가 불에 났다.(高城 82戶, 襄陽 54戶) 啓聞(계문=관찰사, 여사 등이 글로 임금에게 아뢰)을 올려, 임금의 명령으로 어사(御史) 홍대협(洪大協)이 위무(慰撫=어루만지고 달랠)차 와서 흉비(恤悲=백성의 슬픔을 달래는 구호금) 외에 특별 금여를 포함해서 상환해야 할 쌀, 부역(負役), 포세(布稅=삼베를 세로 낸다), 대동세(大同稅)의 쌀과 포목(布木), 바다세(海稅), 산稅 등을 1년간 정지시키고, 人蔘稅 인삼 10냥을 감하고, 포보(砲保=砲軍 4人중에 1人은 軍役に 종사하고 3人은 保로 쌓이나 배를 바침)의 급대(給代)를 他邑으로 이속(移屬)하고 癸, 甲, 大동년 후 流民은 물론 새로 이사온 사람, 다시 돌아와서 사는 사람은 10년에 1년의 부역을 제해주었다.

(原本 114, 115)

1804年(甲子, 純祖4年) 음력 3月 山불이 크게 번져 人家의 피해가 매우 혹심하였다. 1792年 화상(火傷)으로 사망한 사람이 루수하였는데 영동(嶺東)이 더욱 심하였다. 영서(嶺西) 山邑도 모두 그러했다. 上部의 슈으로 위유(慰諭=천재지변이 있을때 백성을 위로하고 달랠) 영동의 高城으로 부터 이남 五色까지 田稅, 大同結錢(농작물의 단수로 정한 세)에 한(限)해 明年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원훈전(元勳典=정부에서 이재민을 구제하는 恩典)의에 상납(上納)할 신포(身布=平民의 身貢 대신에 바치던 布木)를 탕감하고 선영분(船塢盆=바다물을 끌어 소금을 만드는 가마솥)하는 사람으로 화재피해가, 더욱 심한 자는 일반 상납 선물과 月別 선물을 영원히 탕감해 주고, 전상 역시 정지시켰다.

5. 日蝕과 流星(原本 135)

1824年(甲申, 純祖24年) 음력 6月 1日 오후4시(申時) 개기일식(皆既日蝕)으로 낮이 그믐밤 같이 어둡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고, 들판의 농민들은 길을 못 찾고 서로 붙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후에 회복되었다. 같은해 음력 12月 25日 저녁에 空中에 머리가 큰 독(蝨)같고, 긴 꼬리에 두 갈래 밝은빛이 땅에서 일어나서 西쪽으로부터 흘러서 東海로 들어갈때 포(砲)를 쏘는 소리같이 天地가 진동하여 외양간에 매어둔 소와 말이 놀라서 山으로 뛰어 달아나고, 숲속의 새들도 놀라 날떠올어들었다.

6. 漂流 漁夫(原本 135)

1823年(癸未, 純祖23年) 음력 12月 공수진(公須津) 漁夫 이복지(李卜只) 등 6人이 고기잡이로 나갔다가 표류하여 日本으로 갔다가 1名은 동사(凍死)하고 5名은 다음해 음력 4月에 돌아왔다.

(原本 136)

1850年(庚戌, 哲宗1年) 음력 7월 보름께 장마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푸른하늘이 둥그렇게 개인 밤에 北쪽 바다에 火光이 불무의 바람으로 피어나는 불꽃처럼 산봉우리 같이 솟아올라 山과 바다를 비쳐 번개불같이 꺼졌다 일어났다 하기를 두세시간 계속되어 行人이 멈추어 이 괴상한 일을 보았다.

7. 異樣船(原本 136, 137)

1850年(庚戌, 哲宗1年) 바다에 이상하게 생긴 배가 남쪽에서 북으로 가는 데 그 길이가 수백척(尺)이 넘고, 넓이 역시 그렇게 큰 것이 먼 바다 한가운데 떠서 마음대로 출몰(出沒)하고 배 위에는 세개의 돛대를 세웠는데 높이가 30길(丈)이나 되고 돛은 흰바탕에 수를 놓았고, 左右에는 휘장을 쳤는데 역시 문양(文樣)으로 수(繡)를 놓았다. 조정(朝廷)에서는 관문(關文=상

급관청과 하급관청 간에 주고받던 公文書(공문서)를 발(發)하여 國內 연해(沿海) 각邑에서는 주야(晝夜)로 높은곳에 올라가 바라보게(凝望) 하였다. 우리배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비록 그렇게 큰 배가 날아가는 것같이 빨리 달아나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때 양양(襄陽) 응진(登津)의 어부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그 배의 모퉁이까지 가까이 접근했을때 그들이 주는 떡(蒸餅=부들려 쥔 떡) 한덩어리와 글씨 쓴 종이 한 장을 받았다. 떡을 먹어보니 가루처럼 부드럽게 부스러지는게 맛은 없다. 글씨를 본 즉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언문(諺文)과 같이 어렵다. 그 때로 올라갈 것을 청했더니 긴 사다리 같은 것을 아래로 내리뜨렸다.(병풍을 접었다 펴는 것같이) 산봉우리같이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리고 기분 좋게 구경을 하는데, 배 한가운데에다 집을 첩첩이 쌓았는데 그 칸수가 부지기수다. 배 뒤쪽으로 가보니 고래를 잡아서 쌓았는데 기름이 못(池)을 이루었다. 그들의 말(言語)은 전혀 불통(不通)인고로 그 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후 수년 뒤에까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99) 海客談異聞 卷之八

8. 바다가 얼다(原本 137)

1851年(辛亥, 哲宗2年) 음력 12月 큰바다가 수10里에 걸쳐 얼어붙고 얼음 두께가 널판 같았고, 3日이 지나서야 없어졌다.

9. 九折瀑(原本 122, 192)

백연동 구절폭(白蓮洞 九折瀑)

건봉사(乾鳳寺) 南쪽 4里쯤 되는 곳에 있다. 백연암(白蓮庵) 아래 깊은 골에 흐르는 개울이 아홉번 꺾이며 폭포를 이루었다. 두번째 큰 폭포의 높이는 15길(仞)이나 되고, 폭포 아래 左右 반석(盤石)은 절터 앞아서 물줄기가 떨어지며 부서져 흐트러지는 구슬같은 물방울은 한쪽의 갑사(甲紗)를 방갈게 하여 가이 사랑받을 만하다. 따라서 폭포는 구절(九折)이고 유명한 대(臺)는 술잔을 당기게 하여 실로 놀기 좋은 곳이다.

10. 바람(西風과 東風)(原本 122, 192)

○郡지역에는 큰바람이 많이 불다. 西風이 가장 강하고 모진 바람이다. 실향 때에는 아름답디 큰나무가 뿌라채 뿔뿔히 썩대같이 나가떨어지고 사람과 말이 달려 행보(行步)가 어렵다. 그리고 하루 이들 사이에 벼(禾)가 말라죽는다. 그러나 東風이 불면 벼가 잘 여문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언제나 東風이 불기를 바란다. 태백산맥(太白山脈) 북대기에는 음력 8月初에 벌써 눈이 내린다. 겨울에 쌓인 눈이 두, 세길이나 되는 곳도 있다. 4, 5月 해안(海岸)에는 꽃들이 이미 떨어졌는데 산마루에는 눈(雪)이 아직도 쌓여 있고 山水가 웅장하여 기이할 뿐 아니라 찬바람이 여전히 맹렬하게 불어오는 고로 여러번 오지 않은 사람 가운데 천기증이 나고 소화불량의 증상이 생긴다.

11. 湫潭의 黃龍(原本 123, 193)

가래나무 뿌리껍질을 썰어서 개울물 속에 넣으면 고기가 중독되어 떠올라 온다. 이렇게 고기를 잡는 풍속이 아 山間 지대에 전해오고 있다. 진부령(珍富嶺) 밑에 추담(湫潭)이라는 소(沼)가 있다.

1554年(甲寅, 明宗9年) 朴自昌이란 향리(鄉吏=地方 고을에서 대를 이어 오는 고을의 아전(衙前=구실아치))가 관리를 시켜 고기를 잡으려고 독(毒)을 이 추담(湫潭)에 넣으려 하는데 깊은 물속에 귀신같은 괴물이 죽은 싸우는 것같이 접이 나시 못하겠다고 하니, 지창(自昌)이 듣지않고 독(毒)을 깊은 물에 넣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환조가 구름이 추담 위에 나타나 물결치는 山을 휘돌더니 소나기가 물을 쏟아붓듯 퍼부었다. 자창은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굴에 숨어서 추담(湫潭) 위를 살펴보았다. 황룡(黃龍)이 보이는데 허리와 등이 번쩍이더니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四方에 불어나서 城 西門 밖에는 山에서 뿔뿔히 뿜는 나무들이 떠밀려와 쌓였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났다. 그 추담은 모래로 메워졌다. 이때 郡守 최천(崔倩)이 청사(廳舍) 건축용으로 떼내려 온 나무들을 모아 재목으로 만들었다.

남산(南山), 오음산(五音山), 정산(鼎山) 위에는 모두 작은 철마(鐵馬)가 숨어 있다고 전해온다. 이 산들은 진산(鎭山)으로 기도(新禱)와 축원(祝願)하는 산이다.

12. 陰 火(原本 193, 194)

東海에서는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불빛이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은 음화(陰火=바다에서 소금 기운의 작용으로 일어나는데 호라거나 비가 올 때 잘 나타난다) 때문이다. 1632年(壬申) 음력 10月 4日 郡 北쪽 바다 가운데 갑자기 연화(蓮花=화포를 풍중에 쏘아 꽃두늬를 일으킴)가 돼 오래 있었다.

13. 大雪(눈사태)(原本 125, 126, 127, 194, 195)

郡지역의 관령(關嶺)은 모두가 험준하다. 겨울철에는 눈과 추위로 행인(行人)이 끊기고, 오직 미시파령(彌矢破嶺)으로 약간의 通行人이 있을 뿐이다. 양양, 간성의 진공(進貢)은 모두 이곳을 지나서 嶺에 이르게 되는데 만에 실고, 또는 장정(壯丁)이 등에 지거나, 썰매로 끌어서 인제(麟蹄) 풍요역(楓橋驛)에 이른다. 이곳에서 짐을 정리하고 모은 준비를 한 후에 주민(住民)과 군졸(軍卒)을 동원하여 눈을 밟으면서 짐을 호송(護送)하는 것은 한 郡의 대역사(大役事)이다.

큰눈(大雪)이 올때면 험준한 큰 고개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눈을 날려 낮은 곳을 매우게 되어 어떤 곳은 몇 길의 눈이 쌓여져 된다. 수십길 큰 나무가 눈에 묻혀 나무끝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가 되면 공사(公私)행인(行人)은 끊어진다. 눈이 쌓여 여러날 되면 눈이 얼어 주민들은 눈위를 밟고 다닌다. 나무끝만 보이는 것으로 길을 찾아서 소로길을 만들고 약간의 짐을 지고 말을 끌고 고개를 넘는다. 잘못 실족(失足)하게 되면 눈속에 빠지거나, 눈더미에 묻혀 죽게 된다. 큰 고개를 가다보면 험준한 낭떠러지 밑에 낭떠러지 면(面)의 적설(積雪)이 격렬한 바람이 날리기도 하고, 혹은 햇빛이 강하게 쏘이기도 한다. 방금 사람과 말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말이

第十章 漢詩

客館

1. 安軸(高麗文臣, 大學者, 興寧人 原本 92)

重崗四擁地幽幽	山이 겹겹이 사방에 둘렀으니 지방이 그윽 하구나	
歲久松鱗百尺脩	세월이 오래된 소나무는 백척이나 자랐소	(1)
官道樹深風滿院	큰길에 나무가 우거지니 바람만 거세고	
海門霞薺水明樓	바다가엔 안개가 자욱하니 물이 맑은 누각일세	
雨蓺漁巖平生約	비옷 입은 고깃배는 평생토록 지켜야 하고	
塵袂征鞍早晚休	때묻은 옷과 나그네 말안장은 쉬어가야 하겠구나	
若陽城南鏡湖月	만일 남쪽의 경포대 달빛을 비쳐준다면	
舊居何必戀吾州	하필 예고장 고향을 생각하리?	

2. 許伯(高麗文臣, 陽川人 原本 92)

山水榮迴境靜幽	산과 물이 둘러있으니 경내가 고요하구나	
往來心迹便清脩	가고오는 심정이 깨끗할 뿐일세	
五更曉色先靈閣	밤이 오경을 지나니 새벽빛이 관아에 감도는데	
一葉秋聲滿小樓	낙엽지는 가을소리가 누각에 가득하네	
逐浪輕鷗知所止	물결따라 노니는 갈매기는 자기처소를 알고 있으며	
投林倦鳥得其休	수풀로 돌아가는 산새들은 휴식할 수 있으리	
吾今役役成何事	나는 지금 부지런히 무슨일을 하려는지?	
俯仰東西閱數州	동서로 왔다갔다 여러고을 구경하네,	(5)

3. 朴民獻(咸陽人, 校理刑曹參判, 江原道 觀察使 原本 92)

海上仙區境自幽	동해 좋은곳에 지경이 고요하니	
---------	------------------	--

迢迢關嶺道路脩
安知京洛觀風使

來倚東園詠月樓
薄領晝嶺寧得暇
更籌夜永暫能休
孤吟坐到冰輪沒
銀漢知應接漢州

멀고먼 대관령엔 길이 길기도 하여라
어찌 짐직하랴? 서울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서울에서
벼슬하던 사람이

동해바다 달을보고 앓음을
공사는 낮에도 밀려니 어서 몸이 생길까?
긴긴 밤에나 쉬 수 있으리라,
외도이 클 읍으녀 달지기를 기다리니
온라수는 웅당 할강에 닿으리라

留客

(39 本郡 人事興, 參學大, 百文圖高) 韓安

4. 具思孟(綾城人, 李退溪 門人, 宣祖 때 文臣, 著書에 八谷集 原序 93)

(1)

悠悠倦行役
忽忽堪遲暮
久客饒白鬢
沉吟耿丹臍
螢綴幽草花
月碎高葉露
微茫海棠岸
隱釣瀛洲路
曲地瀉鳴淙
遙村寒宿霧
緬懷入桃源
翻思攀桂樹
何以慰愁絕
樽中有酒樽

멀리 떠나가기 업무가 나지 않으니
바쁘지만 더디감을 참고 기다리네
각지에 오래있으니 머라털은 히어지고
침울하여 속마음만 조란다오
반디불은 풀밭에 수를 놓고
달빛은 나무잎의 이슬을 부숴버리네
해당화 언덕은 아득한데
숨어살면서 동해에 낚시질 한다
언덕진 땅에는 돌 흐르는 소리 들리고
먼 마을에는 안개가 끼었구나
노원방에 들어움이 서덕한데
선선이나 뉘기를 생각한다
무엇으로 시름을 위로할가?
술동이안에는 아직도 술이 남았구나

(2)

江城物色轉清幽
霽月新經玉斧脩
鳴角淒淒籠小院

강마을의 경치는 깨끗하기만 한데
달빛은 명량하여 옥채같이 밝구나
오리발장은 나무들은 동산에 가득하고

龍腰陵繞高樓	용의 허리같은 산들은 누각을 둘러있네
接禽拂羽驚難定	새들은 날개 펴고 깃바를 모르는데
列宿輶光讓豈休	별들은 빛을 감추어 쉬고있을 뿐이네
獨有不眠今夜客	홀로누어 잠 못자는 오늘밤 손님들이
還添乘淚憶神州	흐르는 눈물짓고 고향을 생각하오

5. 洪慶臣(原本 94)

金剛南畔嶺東隅	금강산 남쪽 영동고을에
城上高樓似畫圖	읍내의 누각들은 그림같이 곱구나
海闊湖平吞楚澤	바다는 광활하고 호수는 평탄하니 초나라택지 같고
山奇水秀并吳都	산이 기이하고 물이 수려하니 오나라 서울같네
佳辰正值秋光澹	좋은 시절 만났으니 가을경치 좋을시고
良夜還逢月魄蘇	이밤에 더구나 달빛이 명랑하다
多荷主人留一醉	주인이 주시는 한잔술이 고맙구나
客中清興不曾孤	객지에서 취한흥이 외롭지 않도다

6. 許紉(陽川人, 李栗谷을 탄핵하다가 유배되었음 原本 94)

危樓高架郡城隅	높은 누각이 성머리에 솟아있으니
坐閱瀟湘太極圖	앉아서도 임제선생의 태극도를 볼수 있구나
鯨引火珠沉碧海	고래는 태양을 물고 바다에 잠기고
鶴扶銀闕上清都	학은 은하수를 따라 천궁에 오르네
神光蕩漾開明鏡	밝은빛이 황홀하여 거울을 펼친듯
下界微茫瞰積蘇	인간세상은 아득하여 구름만 보일 뿐일세
西望秦京一千里	西쪽으로 멀리 진나라 서울을 바라보니
滿衣涼露楚臣孤	이슬이 옷을 적서 굴원의 신세 같구나

7. 車軾(原本 94)

愁來徒倚仲宣樓	수심이 깊어 친구바라는 누에 오르니
碧樹涼生暮色週	푸른 나무에는 가을빛이 서리고 해가 저무네
驚背海空風萬里	새우등에 바다가 넓으니 바람만 세차고

鶴邊雲盡月千秋 학외 열에 구름이 건히니 달만 밝구나 鶴邊雲盡月千秋
 天運禹使乘槎路 하늘은 창건(張憲)이 승사하던 곳이요 天運禹使乘槎路
 地接秦童採藥洲 땅은 서시(徐市)가 채약하던 고장일세 地接秦童採藥洲
 長嘯一聲凌灝氣 취파람 큰소리가 파도 새럭을 업신 여기는데 長嘯一聲凌灝氣
 夕陽西下水東流 저녁해는 西쪽에 기울고 물은 東쪽으로 흐른다 夕陽西下水東流

8. 李光胤(慶州人, 宣祖때 文臣 草書에 명성 原本 95) (40 本原) 李光胤 記

(1) 夕陽人倚海城樓 저녁때에 바닷가 누각에 오르니 夕陽人倚海城樓
 風捲疎簾日上鉤 바람이 발을 건드리는데 해는 갈구리에 걸려 저르도다 風捲疎簾日上鉤
 環島煙光迷鶴背 좋은 팔합의 경치는 학의 등에 빛나고 環島煙光迷鶴背
 鳳峯形接勝鰲頭 큰산의 그림자는 세우머리처럼 솟아있네 鳳峯形接勝鰲頭
 襟清不怕三庚熱 마음이 맑으니 삼복더위도 겁나지 않고 襟清不怕三庚熱
 眠快潭消萬石愁 눈이 밝으니 만고의 근심도 녹아지도다 眠快潭消萬石愁
 擬待夜深涼月吐 긴온밤의 달돋매를 기다리니 擬待夜深涼月吐
 菱荷池上更滯留 연꽃편 연당에 물방울이 맺이네 菱荷池上更滯留

(2) 同人 (原本 95) 籌晚憑朱樓 저물때에 누에오르니 籌晚憑朱樓
 清遊孰與期 깨끗한 놀이에 누구와 기약할가? 清遊孰與期
 疏雲海滄岸 구름은 바다언덕에 끼었고 疏雲海滄岸
 微雨綠楊波 비는 버들들가에 뿌리도다 微雨綠楊波
 樓迴風來信 누가 멀어지니 바람오기를 믿었는데 樓迴風來信
 橋危客去疑 다리가 위태하니 손님 가시는것을 걱정하도다 橋危客去疑
 我詩聊自遣 我詩聊自遣 莫作仲宣悲 莫作仲宣悲

9. 金汝叻(順天人, 牧使壬辰亂에 彈琴台에서 申砮將軍과 戰死하다 原本 96)

山麓埋古塚 구름은 옛 진터를 덮으며 山麓埋古塚

野渡從古陂	돌 나루터는 묵은 언덕을 따라있네	野渡自古陂
日下音信靜	요즘에는 고향소식도 들으니	日下音信靜
天涯魂夢疑	먼곳에 꿈도 어수신하구나	天涯魂夢疑
海國常多雨	바다있는 나라엔 늘상 비가 많리오니	海國常多雨
歸程不入期	고향 길은 기약할 수 없구나	歸程不入期
蟬驚欺遠客	예쁜 피프리는 멀리온 사람을 업신 여겨서	蟬驚欺遠客
啼送故鄉悲	고향의 그리운 슬픔을 대신 울어준다	啼送故鄉悲

10. 李重協(原本 96)

行轉萬松林	소나무숲을 지나가는데	行轉萬松林
高樓遍籬陰	높은 침들이 그늘에 덮여있네	高樓遍籬陰
報主結孤枕	주인의 하루밤 잠자리 주신것이 고맙기도 하여라	報主結孤枕
○○○○○	○○○○○	○○○○○
時物空吟弄	당시의 경치를 읊어보면서	時物空吟弄
官醪且細斟	관청의 술을 조금씩 마신다오	官醪且細斟

11. 吳道一(肅宗 때 文臣, 襄陽府使 禹城判尹 原本 96)

尋樓斜日照高牙	누각을 찾아오니 지는 햇빛이 깃대에 빛이는데	尋樓斜日照高牙
落盡棠梨千樹花	팔배꽃 여러나무 꽃이 다 떨어졌네	落盡棠梨千樹花
殘角喚愁春寂寂	깊은밤의 인경소리 봄은 다 갔는데	殘角喚愁春寂寂
令人却憶大堤謠	사람들은 쓸데없이 태평가를 생각하네	令人却憶大堤謠

衙舍

(1) 淸風竹 崔 岵(杆城郡守, 文章家 外交文書에 一人者 原本 96)	
孤竹之家難弟兄	고죽군의 집안과 비슷하니
遺風餘韻至今清	유종과 여운이 지금에도 남도다
客來休更主人門	관아에 부임하여 주인이 되었으니
吾爲此君虛左楹	나는 대술을 위하여 왼쪽기둥을 비웠도다

(2) 靈月遷(同人 原本 97)

芙蓉出水色無邪	연꽃이 물에 뜨니 빛깔도 꿈구나	芙蓉出水色無邪
一秀便傾天下花	한송이 수려함이 천하에 제일일세	一秀便傾天下花
君子風期誰再契	원님의 임기를 다시언기 어려우니	君子風期誰再契
可憐明月露時時	가엾다 밝은달빛 잊기가 애석하다	可憐明月露時時

(7) 向日葵(해바라기 同人 原本 98)

葵知向日亦殊哉	해바라기 가 햇빛따라 도는것이 이상하구나
不必暉光爲爾回	반듯이 햇빛이 너 때문만은 아니니라
足感君臣大義在	임금과 신하가 서로 따르는 대의있음이 감동되어
白頭猶取一枝栽	백두도 있지만 한포기 정도 삼었노라

(8) 霜葉(同人 原本 98)

葉葉何嘗願剪裁	잎새마다 일찍이 다듬어주지 않았나니
文章亦古木之災	문장도 역시 고목처럼 재앙받을수가 있느니라
聊供歲晚當華實	그저 가을이되면 좋은 열매나 기다릴뿐이고
不道人間成錦堆	인간이 비단방석에까지 앉기는 원하지 않았도다

(9) 雨石(비맞은돌, 同人 原本 98)

幾年海底老龍慳	몇년동안이나 바다속에서 숨은용이 아끼던 물이던가?
拔置使君庭牖間	너를 뽑아다가 뜰에 두게 되었네
雨後十分添黛色	비온뒤에 아주 검은빛으로 변했으니
鶻燕相對盡孱顏	우연히 마주보니 준엄한 모양이 보이도다

(10) 影池(同人 原本 99)

白雲堪愛影香池	우리 연못에 흰구름 그림자 사랑스럽구나
欲謂浮萍無敵之	부평초도 그것을 버티지 않네
付與青天極空闊	푸른하늘의 동활함도 함께보이니
盆中此樂反爭爲	들뜰이 속에 이 광경이 얻지않다 하리요?

(11) 柏楨松(同人 原本 99)

龍鱗借落舊樞筵	용의 비늘같은 껍질이 벗어져서 큰들보 잘으니
庭院得之誰不宜	성원에 있는것을 누가 싫어하리요?
一向亭亭恥姿媚	한결같이 정정하니 모양 좋은것이 도리어 부끄럽구나
離然長揖任君奇	의연하게 서있는 내가 정말 기록하구려

(12) 拜蒲竹(同人 原本 99)

輕柔獵獵也風姿 유약할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니
再拜此君君不知 대술을 향하여 절을해도 대는 모른척 하도다
九節長年何顧詎 높고긴 것을 언제 자랑할 틈이 있으랴?
吞牛氣自憐斑披 큰 기상도 스스로 절절을 벗는구나

(13) 水確(물방아, 同人 原本 99)

杵聲疎數與窓謀 방아소리 잦고 드뭇은 물의 기운에 있나니
隔竹清眼夜夜秋 대숲 옆에 고요함을 밤마다 돌리는 가을소리 일세
雲子受春人不見 물 공이가 켜어지는 것은 사람이 갈 모르나니
晨露欲飲白先渾 새벽안개 끼이고 저 흰거품이 뜨는구나

(14) 石木峯(同人 原本 99)

偶有輪囷斷木根 산세가 구름구름 나무뿌리가 얹이니
奇峰自享思雲暮 산봉우리가 구름덩어리 같구나
年來雨露殊濡足 올해에는 비가 많이와서 습기가 풍족하며
點點苔文合識恩 이기문해가 天恩을 아는듯 하도다

(15) 海棠(同人 原本 100)

明沙一第海棠洲 명사십리가 해당화에 쌓여있으니
老守其如懶出遊 늙은 원님이 나와 놀기도하네
牆下數枝花色是 담 밑의 여러포기가 온통 꽃뿐이니
白鷗疎雨軟風流 비오는데 갈매기 나는것도 또한 풍류로구나

(16) 石竹(同人 原本 100)

川路尋常點點紅 냇가에는 더없이 꽃이 붉었는네
爲童嬀我入園中 아이눔은 나를 대술으로 인도하네
可憐風格終田野 가련하다 여기는 시골 풍경인데
白首官居疎屢同 늙은 관원은 아마 검소함이 좋은가봐?

〈新增〉

1. 李植(德水人, 號 澤堂, 杆城郡守, 水城志(杆城邑誌) 著述, 文章家
原本 100)

(1)

殷宮具闕五雲中	용궁의 궁궐이 구름속에 잠겼으니
赤岸銀河一派通	땅과 하늘이 한데 연결되었네
桑土幾番今作海	육지가 몇번이나 변하여 이제 바다가 되었는가?
輿圖此外更無東	지도는 여기서 東쪽이 없게되었소
賓喝羲仲勢將命	태양은 회중의 명한대로 오가고
駕石秦王枉貴功	돌들은 진시황의 잣죽을 받았도다
誰識貍臠微小吏	누가 백국(額國)의 지방관이 될줄 알았으리?
晴窓朝合對蓮壺	맑은 아침빛이 신선의 곳을 마주보네

(2)

四時詞(同人 原本 101)

春

山頭殘雪尙槎牙	산위에는 아직 눈덩어리가 덜녹았는데
山下沙棠已落花	산아래에는 매화꽃이 모두졌네
茶鼎酒壺携所有	차주전자와 술명은 있는대도 가지고왔는데
波湖曲曲繞漁歌	호수 구비마다 뱃노래 들리도다

夏

百轉黃鸝弄日長	황금갈은 뽕꼬리는 종일 울고 있는데
垂楊處處拂池塘	수양버들 가지가지 연못가에 들이렀다
軒窓竟夕忘歸去	정자에서 저르도록 떠남을 잊었으니
留取荷風流袖涼	연잎에 부는바람 옷소매를 시원케하누나

秋

鱸膾封白蟹分黃	농어는 살이지고 게장은 누르스름한데
---------	---------------------

稻穫村村酒熟香
政好南樓邀海月
嶺雲湖霞共微茫

며 수확하는 농촌 술냄새 향기롭다
마침내 누워서 바다달을 맞으니
산과 들에 안개끼어 어둑할뿐이로다

冬

胡鷹初擊野鷄肥
馬首回驚雪片飛
舉白斟鮮殊未厭
六松亭畔正斜陽

보라매 재빠르게 살찐닭 훔쳐가니
말머리에 거센바람 눈발도 휘날린다
좋은술에 생선안주 그누가 싫다하랴?
육송정 주위에는 지는햇빛 감도(感度)

2. 金昌龔(安東人, 顯宗時人 大學者, 號 三淵 原本 101)

扶桑遠暈上城垣
倒射金樞落月痕
淡霧平凝讀黃道
長波微瀾惜紅盆
重重羽衣陳方出
落落天衢仰始尊
吾已十觀猶未厭
如君創觀合驚魂

부상에 뜨는 햇빛 성터에 비추니
거꾸로 지는달을 쏘는듯하도다
얇은안개 자욱하여 천궤(天軌)를 가리웠고
물결은 잔잔하여 붉은 덩어리를 아껴준다
겹겹이 드러나는 신녀의 옷자락은
높고 높은 하늘을 비로소 알찌로다
나는 여러번 보았어도 싫증이 앓나지만
그대를 처음보니 놀라는 모양일세

〈新增〉

濃香亭 10 絶詩 (原本 102)

1. 李植

玉井仙梯不可通
錢塘麗句自生我
誰知東郡三池艷
未博河陽一縣紅

옥 우물과 신선 사다리를 통할 수 없으니
전당호의 좋은 글귀가 저절로 도움이 되도다
누가 동방의 三池꽃음을 알겠는가?
하양땅의 한고을의 온통 붉음을 굳심하리오?

地近金剛洞大天 땅이 금강산의 큰동천에 가까우니
窓間一面放嬋妍 창문 한쪽이 전부 아름답구나
池荷故學峯峯秀 연당의 연꽃처럼 봉마다 수려하여
擢玉抽紅更萬千 옥을 뿌리고 꽃을 꽃아서 여러가지 형상일세

又

城中迫窄欠人家 성중이 험박하여 인가가 드무니
亭館蕭條倚岸斜 관아도 쓸쓸하게 언덕밑에 섰구나
不有方池平數項 연당조차 만일 없었다면
遊頭何處擅繁華 놀만한 변화지가 아주 없으리라.

又

爭妍獻笑競繁粧 옛된웃음으로 변화함을 다루는데
滄雨含烟繞小堂 비바람은 무삼일로 짐채를 에워싸노?
太守醉歸香擁袂 원님이 취해 도라오니 옷에 꽃향기 물씬하여
風流不用大堤娼 구대여 기생들의 풍류가 필요없어요.

又

○卿未了三山事 三神山을 보지도 못하고서
千載湖山訪述郎 千載前 신선인 술량을 찾아다니는데
急雨洗乾青繡陂 급한 비가 가뭄을 씻고 언덕을 푸르게하며
冷風吹勞赤霞裳 바람이 성덕을 처서 신선의 옷을 휘날리네.

又

王喬赤舄海山東 황교처럼 먼 곳에 부임하여
漢武金莖太液中 한무제의 금토반에 감로(甘露)의 맛이로다
月裏桂香分馥馥 달속의 재수나무 향기도 흠어지고
雲歸池蓋對童童 연못에 구름오니 민둥산뿐이로다.

又(原本 103)

縱使潘妃步步奇
絡繹洛機點清騎
郭中才子無情思
但說朱華昌綠池

반비의 연화보(蓮花步)가 걸음마다 어여쁘니
비단비선 노니는것 말 탄모양 같구나
성안의 풍류객이 별생각 없으면서
다만 연꽃의 아름다움만 얘기할뿐이로다.

又

臺亭面面點新坡
傍柳穿沙席界移
墜粉自多風定後
濃香不斷月明時

정자의 이곳저곳 푸른 언덕 살펴보며
버드나무 모래위에 자리를 옮기도다
떨어지는 꽃가루는 바람뒤에 많구나
그윽한 향기는 달 밝을때가 더욱좋다

又

淤泥不染眞名喻
誰唱相傳盛釋徒
賴有濂翁兼雅愛
不得墨蘂共撫蓀

진흙속에서도 깨끗하게 자라는 연꽃이던가?
누구인가 부처의 혼이라고 이름지었는지?
주렴계(周濂溪)선생께서 사랑하신 화력이 있어서
불교와 같이 황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도다.

2. 李植(原本 104)

金剛山麓遊仙窟
碧海東頭浴日津
大壺兩堂皆甲子
同宗高會慶初辰
華斬豈蓋逢迎近
玉醴瓊桃頌祝新
莫說永郎千載事
人間此樂是長春
鳴沙晴路板輿輕
峴首風煙接水城
月過上弦初展魄
花臨寒食正催榮

금강산 밑의 유선굴은
푸른바다 동쪽에서 목욕하는 나무로다
나이 많으신 내외분이 회갑이 되시니
친족들이 모두 모여 회갑을 축하하네
좋은 수레가 검은일산이 서로 만나서
술과 과일로 축배를 올리도다
천년천 영광의 신선얘기는 고사하고
인간의 이런 경사가 긴 봄이로다.
모래자락 맑은 길에 수레가 빠르니
고개넘에 경치가 바닷가에 닿있도다
달이 초승을 지나니 제법 빛이 커지고
꽃이 한식에 가까우니 활짝 피었는데

封隣魯魏凹聯席	이웃이 모두 모이는 아담한 자리요
壽祝喬松遜進觥	교송을 비하여 축수하는 술잔이 나오도다
但得清親窮勝事	다만 친목간의 궁달(窮達)을 말함이니
蒼濱何異何秦京	푸른 갯벌 경치 함양을 달았구려

3. 趙宗著(漢陽人 原本 104)

風送荷香滿小樓	바람절에 연꽃향이 누각에 가득하니
爲看新月掛廉鉤	초승달이 발 갈구리에 걸린것 보겠트라
仙區勝賞紛伶眼	승지의 좋은경치 신선눈에 어리고
塵世浮榮合掉頭	인간세상 뜬 영화는 돛대에 걸리도다
蓬島微茫那易到	봉도(蓬島)는 아득하여 갈수가 없는데
銀潯汗漫却生愁	은하수는 하염없이 수십만 생기도다
還差先祖這篇在	우리선조의 글 있음을 생각하니
物色仍令小子留	물색이 나를 불러 머무르게 하는구나

幽閒亭

1. 安軸(原本 105)

潭上風煙畫淡濃	정자위의 경치는 그림 같은데
欣然相與故人逢	기쁨이 친구 맞났것 같구나
也應嘆我忽忽過	응당 내가 바르게 지나는 것을 책망하여서
却恐重來不見客	뒤에 다시오면 보이지 않을까 겁나도다

2. 具思孟(原本 105)

水有筍絲渚有蘭	물에는 순나물이 있고 불가에는 남초가 있으며
護亭松蓋碧團團	정자를 지켜주는 소나무도 매우 푸르도다.
須知暗合幽閒意	은연히 유한의 뜻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
喚作深閨處子看	깊은 규방의 아씨를 보는 것 같기도 하네

3. 楊士彦(淸州人, 號蓬萊 原本 105)

桃花結子三千歲	복사열매가 三千년만에 열리니
龍虎丹城日未斜	흔름한 성위에 해는 아직 지지 않았네
湖光海色落天鏡	갯물과 바다빛은 하늘처럼 푸른데
黃鶴白雲棲紫霞	황학은 구름따라 선경(仙境)에 깃드린다.

4. 崔岵(原本 105)

海色潭光隔一坡	바다와 연못이 언덕하나 사이하니
無風兩段碧琉璃	두곳 다 바람없어 유리빛 같네
安能直似仙遊日	어찌 신선 노는 것 같으리오마는
來往繡岡大小池	가고오는 거리가 크고작은 못하나 뿐일세
仙遊潭上獨遊時	선유담위에 혼자노는 때로구나
鳥度雲移把酒卮	새는 날아가고 구름은 걷치니 술이나 한잔 마셔볼가
一兩白鷗如識我	한두마리 갈매기도 나의 뜻을 아는지?
浮沈來去故依遲	뗏다 잠겼다 오고감이 느리구나.

永郎湖

1. 安軸(原本 106)

平湖鏡面澄	평평한 갯물이 거울처럼 맑은데
滄波凝不流	물결은 고여서 흐르지 안네
蘭舟縱所如	아름다운 배를 가는대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	둥실둥실 떠서 갈매기를 따르네
浩然發清興	호연한 흥취가 발흥하여
泝洄入深幽	거꾸로 흐르는 듯 마음이 상쾌하다
丹崖抱蒼石	붉은 벼랑은 푸른돌을 감도는데
向晚欲面頰	저녁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소
循山泊松下	산을 돌아서 소나무밑에 대이니
玉洞藏瓊洲	옥같은 계곡이요 구슬같은 나루로다
荷葉淨如洗	연잎은 씻은듯이 깨끗하여

空翠涼生秋	하늘이 푸르러서 가을 기분 생기네
暮雲半卷山如畫	검은구름 거쳐지니 산이 그림 같구나
秋雨新晴水自波	가을비 활짝개여 물결도 잔잔하다
此地重來難可必	이 땅에 다시오기 기필할 수 없나니
更聞紅上一聲歌	배위의 노래소리 다시들어 보노라

2. 李穀(韓山人, 高麗文臣 原本 106)

安相情懷黃鶴月	安氏정승의 회포는 황학루의 달 같고
李生行止白鷗波	李氏선비의 행색은 백구정 물결 같도다
重來此地誠難必	여기에 다시오기는 기약할 수 없으니
空聽關東一曲歌	관동지방 노래나 한곡 들어보자

3. 具思孟(原本 107)

百頃清湖鏡面平	넓고 맑은호수가 거울같이 펼쳐지니
扁舟載興泛空明	조각배에 흥을 싣고 달밤에 띄웠도다
當時只擬遊踪秘	옛날의 놀던자취 감추어진것인가?
饒舌何人強揭名	말탈을 어느누구 억지로 이름밝히려?

花津浦

1. 具思孟(原本 107)

共泛仙舟下海濱	仙舟를 띄워서 바다에 미끄러져
煙波浩蕩到花津	호탕한 물결 헤쳐 화진포에 이르렀네
玉簫聲撼眠鷗夢	옥봉소 소리에 꿈을 깬 갈매기는
兩兩驚飛故近人	쌍쌍히 떠올라서 사람에게 다가온다

2. 崔岷(原本 107)

盈盈鏡面自舒波	가득찬 갯물에 물결이 잔잔하니
合看蘭舟載綺羅	아름다운 배에다 비단을 실은 것 같구나
諸湖勝跡應頻識	모든 갯물의 경계를 알고 있나니
不滯仙名卽滯花	신선의 이름은 부치지 않고 꽃이름을 부쳤네

百花潭水卽滄浪	화진포 물은 맑은물이기에
爭似花津海一方	바다 한쪽에 있는 것이로구나
有時吐納魚龍沸	때로는 거센 파도가 일어나더니
俄復淵然只鏡花	얼마안되어 다시 고요한 거울이 된다고

萬景臺

1. 鄭 樞(濟州人, 改名公樞 高麗武臣 原本 108)

一抹橫天黑	약간 검은 구름이 하늘에 덮이더니
滄浪眼底窮	큰물결이 눈앞에 일어나네
始疑山隱霧	처음에는 산에 안개가 끼는가 했더니
漸認浪浮空	차차 파도가 공중에 솟는 것을 알았다.
鳥絕鴻濊內	새는 혼돈속에 없어지고
龍冷泔深中	용은 넓고깊은 물속에서 우는 것 같다
長帆誰見借	큰 배를 누가 먼저 빌릴것인가?
萬里願乘風	바람을 타고 만리길을 가고 싶다.

2. 安軸(原本 108)

海邊蒼石疊成臺	바다가의 푸른돌이 쌓여서 대(臺)를 이루니
萬景奔雲入眼來	만경대의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네
一葉漁舟向何處	일엽편주 고기배는 어디를 가느냐?
倚風輕漾似浮盃	바람따라 물결을 헤치니 뜬 술잔같구나

3. 吳 軾(原本 108)

臨風一嘯上高臺	휘파람 불며 바람따라 대에 오르니
何恨滄浪浪來	깊은 파도 밀려온들 무슨 걱정 있으랴
安得鵬搏九萬里	봉새처럼 구만장천 높이 날아서
下看東海正如盃	술잔같은 동해를 볼 수 있으리?

4. 盧守愼(原本 108)

天新東溟月	하늘은 동해의 달빛을 아끼는데
-------	------------------

人愁半夜風 사람들은 밤에 부는 바람을 걱정하네
仙槎應未泊 신선은 배타고 오지 않겠기에
孤嘯想晴空 외로이 휘파람 불면서 공중만 바라본다.

5. 具思孟(原本 109)

百丈寒瓊斷作臺 백길이나 되는 절벽을 깎아서 대를 만드니
鴻濛俯視一邊開 자연을 굽어볼 길이 열렸도다
鯨波蜃市運間事 파도와 신기루(蜃氣樓)는 잠시 나타나지만
卽待吹笙駕鶴來 신선이 학을 타고 퍼리불면서 오기를 기다린다

6. 崔崑(原本 109)

萬景蒼波萬景臺 만경창파가 출렁이는 만경대에서
斜陽惟見白鷗來 저녁무렵 갈매기 날아옴이 아름답구나
天東秀句今安在 동해의 글귀 읊은 그사람 어디있소?
一咏如同酒一盃 더브러 글귀 읊고 술한잔 나누었으면?

清澗亭

1. 金克己(原本 109)

危樓碧煙抄 높은 누각에 푸른연기 끼었는데
伏檻窺過鳥 난간위의 새들은 보고만 지나가네
未秋爽氣多 가을이 아닌데도 선선한 기운 많고
當夏炎威少 여름이 당하여도 더위를 모르겠소
蟬聲碎晚秋 매미 소리는 늦가을에 울어대고
鴈影翻殘照 가마귀 그림자는 석양에 날아든다
柳盃送白眼 술을 청하니 팔시가 완연하다
萬里音大小 나그네길 만리밖에 여러가지 고생일세
關東山水抄 관동지방 산수가 좋은 곳인데
嚮過雜魚鳥 지내다가 온갖 고기와 새를 보았네
歸路似人心 돌아오는 길에도 역시 같은 마음인데
險中平地少 지세는 험하여 평지가 적구나

夕陽頽馬頭 지는 해가 말머리에 비쳐니 西陽頽馬頭 風舟中使人
秋毫泰山水 조금이라도 산이 적게 보인다 秋毫泰山水 南朱國顯
困到一床上 피곤한 몸으로 침상에 누으니 困到一床上 空舟中使人
西塞月初照 서창에 달빛이 밝아온다 西塞月初照 南朱國顯
雲端落日欹玉轡 구름속의 지는 해가 옥 깃대에 기울렸고 雲端落日欹玉轡 南朱國顯
海上驚濤倒銀屋 바다위의 놀란파도 은과 같이 부서진다 海上驚濤倒銀屋 南朱國顯
閒懸蓬鬢倚朱檻 더벅머리 처량하게 난간에 섰노라니 閒懸蓬鬢倚朱檻 南朱國顯
白鳥去邊千里目 천리만리 날아가는 갈매기 보이도다 白鳥去邊千里目 南朱國顯

2. 白惟讓(水原人, 宣祖時人 原本 110)

石波相值不禁撞 돌파도 서로 부딪침으로 말릴 수 없는데 石波相值不禁撞 白惟讓
鷗鷺胡爲喜作雙 갈매기들은 어찌하여 쌍쌍이 날아오나 鷗鷺胡爲喜作雙 白惟讓
行子不須論景物 나그네 무슨말로 경치를 의론하랴? 行子不須論景物 白惟讓
海雲佳處好開窓 바다와 구름 보기위해 창문을 열었도다 海雲佳處好開窓 白惟讓

3. 楊士彥(明宗 때 文臣, 詩, 書藝 저서에 蓬萊詩集 原本 110)

(1)

碧海暈紅窺日半 푸른 바다에 해무리가 붉으니 한나절 된나보다 碧海暈紅窺日半 楊士彥
蒼苔磯白點鵞雙 이끼는 푸르고 물보라는 희어서 갈매기를 점점한다 蒼苔磯白點鵞雙 楊士彥
金銀臺上發孤嘯 금은같은 누각에서 휘파람 불어보니 金銀臺上發孤嘯 楊士彥
天地浩然開入窓 천지는 호탕하여 창문에 돌아온다 天地浩然開入窓 楊士彥

(2) 同人

九霄笙鶴下珠樓 신선이 학을 타고 구슬루에 내려오니 九霄笙鶴下珠樓 楊士彥
萬里空明灝氣收 달은 휘영청 밝아서 맑은기운 종기네 萬里空明灝氣收 楊士彥
青海水從銀漢落 바다물은 은하수에 이어졌고 青海水從銀漢落 楊士彥
白雲天入玉山浮 구름은 하늘빛은 옥산에 또있도다 白雲天入玉山浮 楊士彥
長春桃李皆瓊蕊 봄을 맞은 도리화는 모두다 아름답고 長春桃李皆瓊蕊 楊士彥
千歲喬松盡黑頭 千年목은 소나무는 전부다 푸르도다 千歲喬松盡黑頭 楊士彥
滿酌紫霞留一醉 자하주 가득부어 한번 취해 볼 것인가 滿酌紫霞留一醉 楊士彥

世間無地起閑愁 세상에 한가한몸 이루곤삼 없노라

4. 車軾(延安人, 號 顯齋, 中宗時人 原本 111)

疎雨白鷗飛兩兩	보슬비에 갈매기는 짝지어 날아돌고
夕陽漁艇泛雙雙	저녁때 고기배는 무리지어 뜨는구나
擬看陽谷金鳥出	양곡에 뜨는해를 보기위하여
晝閣東頭不設窓	누각 동쪽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소

5. 崔笠(原本 111)

此心與海堪爭大	내마음이 비강화 더불어 큰 것을 다투나
未使乾坤只作雙	하늘과 땅의 상대가 될 수 없구려
終始不能無物障	끝까지 험호해 주는 것이 없으니
煙霞盡處着軒窓	경치가 다하는 곳에 마루 창가에 섰노라

6. 具忭(綾城人, 晉州牧使 原本 111)

砌臨溟渤乾坤合	돛들은 바다에 임하여 천지와 합하였고
簷對扶桑日月雙	처마는 부상에 대하였으니 日月과 쌍이되네
○○○○○○○	○○○○○○○
海天秋露滴寒窓	바다위외 가을이슬은 창가에 떨어진다

7. 楊士俊(原本 111)

鷗鷺秋風無伴侶	갈매기는 가을바람에 친구가 없으니
索綯今日影成雙	배줄 타는 오늘에 그림자와 쌍이된다
行臺物色皆詩價	누대의 경계가 모두 글썬 자료가 되나니
玉唾晴虹貫客牕	옥 같은 무지개가 책지의 창근을 꿰는구나

〈新增〉

1. 李澤堂(原本 115)

(1)

天教滄海無潮汐 하늘이 동해바다엔 만조간섭(滿潮干涉)이 없게 하였
 亭似古舟在落涯 정자는 흰 배와같이 물가에 자리했네
 紅旭欲昇光射牖 붉은 햇빛 올라오니 창문이 밝았구나
 碧波纔動色吹衣 파도가 움직이니 빛이 어론거린다
 童男鱗鱗遺風引 서북(徐福)의 배는 바람 따라 오는데
 王母蟠桃著子遲 서왕모의 복숭아는 아직 열매가 안달렸다
 悄帳仙蹤誰可接 순포다 신선자취 찾기가 어려우니
 倚欄空望白鷗飛 난간에 의지하여 갈매기 노는것 볼 뿐이로다

(2) 同人

高閣朱欄倚碧虛 높은누와 붉은 난간이 허공에 떠있으니
 層巒列嶂繞庭除 층층이 높은산이 마당을 둘렀구나
 鰲山只在封疆內 오산(鰲山)은 우리 강토안에 있지만
 鯨海應知○敵餘 경해(鯨海)는 용당 멀리 뻗었으리라
 萬里壯遊雙眼在 만리나되는 경치는 두눈에 완연하나
 百年浮世一滛如 백년의 인생은 물거품 같구나
 神仙可接非吾事 신선을 만나느것은 내가 원치않으나
 贏得閑官學道居 벼슬길 버리고 한가하게 살고자할 뿐이로다

2. 趙宗著(原本 113)

相會洛山寺 서로 낙산사에서 만났지만
 未尋濟瀾亭 아직도 횡간정은 보지 못했구려
 明朝分數後 내일에 서로 헤어지면
 回首海溟溟 그저 바다구경이나 하게되었지?

3. 朴吉應(密羅人, 孝宗 때 文臣, 杆城縣監 原本 113)

(1)

塊觀三山觀視海 육지엔 三神山이 제일이요 물엔 바다가 제일인데 (1)

此亭天下更無雙 이 정자야말로 천하에 짝이 없는 것일세
淸風明月同今古 청풍명월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니
大醉哦詩獨倚窓 크게 취하여 글을으면서 창문에 기대 있네

(2)

漁人乘艇釣魚去 어부는 배를타고 고기잡이 가더니
日暮牧綸各自歸 날이 저무니 그물을 건어 돌아오도다
看此使余詩興足 이것을 보니 나의 시흥이 돌아지는데
白鷗何事又雙飛 갈매기는 무슨일로 쌍쌍히 날아 드는가?

4. 柳夢寅(說話文學의 大家, 글씨, 거사에 於于集 原本 113)

(1)

淸澗朝來雨未收 청간정 아침나절 비는 오는데
怒濤時沒白鷗洲 성년파도 때로는 백노주를 덮어온다
輕輿愛聽鳴沙語 조그마한 흥취로 파도소리 들으면서
虛撥蓑衣獨倚懷 비옷을 벗어버리고 누 위에 앉아있네

(2) 同人

靄海經雲午雨牧 바다를 덮은 구름이 없어지고 비가 개이니
層層噴雪驚長洲 층층이 눈을 뿜는 파도가 물가에 덮쳐오네
北關庚日風威緊 북쪽의 더운날에 바람이 세차니
孤白無功第一樓 두꺼운 옷도 소용없다 누각이 제일이로구나

5. 尹履之(海平人, 江原道 觀察使 原本 114)

夜雨隨意急 밤비가 급하게 내리니
驚波幾尺高 파도는 얼마나 높아질까?
孤臣無夢寐 재지의 관원이 잠잠 수 없어서
凭桃聽喧濤 배개에 의지하여 파도소리 듣고있소

6. 李 肇(原本 114)

茫茫海上一孤亭
 恍惚乘槎泛積溟
 咫尺浪高常雲白
 東甬地缺但天青
 浮沈日月緣前檻
 出沒魚龍戲側汀
 當夜波聲掀枕席
 儼然危坐洗幽聽

망망한 바다위에 정자하나 있는데
 망황하게 배 타고 물결위에 뜨도다
 근방에 높은파도 구름이 흰것 같고
 동남쪽에 땅이없고 그저 푸른 하늘일세
 떠다지는 해와 달은 난간에 인연이오
 출몰하는 고기떼는 물속에서 희롱한다
 밤이되니 파도소리 침묵을 흔드는데
 놀라 깨어 앉았으니 세상근심 잊었도다

7. 俞得一(昌原人, 江原道 觀察使 原本 114)

志大要將滄海濶
 自閑可作白鷗雙
 三更月出巨魚舞
 萬里波聲來泊窓

도량이 큰것을 넓은 바다에 비교하며
 스스로 한가하며 잘매기와 짝하네
 밤중에 달이뜨니 큰고기 뛰놀고
 멀리 오는 파도소리 창문에 요란하다

8. 李德壽(全義人, 杆城郡守, 大提學, 文章과 글씨 저서에 西堂集 原本 115)

遶遶埭畦罷井欄
 窓峰磨鐵亦多般
 却來滿潤亭中望
 世界方知有許寬

논란 개구리가 우물가에 뛰노니
 창문 옆의 날과라나 물위의 개미들도 모두 바쁘구나
 침간정 위에 앉아서 바라보니
 세상이 저렇게 넓은 것인줄 알겠노라

9. 金尙星(江陵人, 十三세에 金永亭記를 지은才童, 英祖 時 吏曹 判書 原本 115)

(1)

千古樓臺黃鶴一
 百年江海白鷗雙
 櫺干咫尺扶桑近
 萬里風來倚入窓

옛날부터 누대는 황학수가 제일인데
 오래세월 바다에는 잘매기 쌍쌍일세
 난간에서 부삼(扶桑)이 새벽에 있으니
 만리나 먼곳에서 바람이오니 문닫고 들어가네

(2) 同人

銀海茫茫但白鷗
春風打上釣魚舟
樓臺欲動滄波闊
疑是空中蜃氣浮

바다는 망망한데 갈매기만 날으도다
봄바람은 짓궂게 고깃배에 불어오네
누대가 흔들리는 파도가 덮쳐오니
궁중에는 신기루(蜃氣樓)가 드는것 같구나

10. 李勤中(原本 115)

(1)

望海高樓愁殺人
蜃猶寄世渺吾身
乾坤日夜長得氣
烏兔東西遞轉輪
魯叟乘桴嗟否道
秦王驅石恨無津
憑欄盡日忘機坐
惟有沙鷗各自親

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수심이 많구나
하루살이 내몸이 가엸기도 하도다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해와 달은 동서로 바꾸어 간다
공자님은 배를타고 도(道)가 아님을 탄식하고
진시황은 돌을 끌어 항구없음을 한탄한다
종일토록 난간에 외지하여 세상사 잊고보니
갈매기배 자유롭게 짝지어 날으도다

(2) 同人

瀛海茫茫眼界開
危樓百尺迺邇埃
扶桑遠暈窓間入
鬱島孤煙檣外來
蜃閣遺風俄現滅
漁舟載月自由回
靜觀半世空堪笑
雲夢胸襟頓拓恢

바다는 넓고넓어 안개가 아득하니
높은 루는 진세(塵世)를 떠나도다
부상에 뜬태는 창살에 비치고
울릉도 정치가 난간밖에 오는듯
신기루(蜃氣樓)는 바람만나 있다가 없어지고
고깃배는 달을 싣고 자유로히 돌아오네
고요히 세상사 생각하니 웃음기도 하여라
허망한 생각이 저절로 드는구나

11. 吳遂來(海州人, 道一의子, 禮曹參判, 저시에 松都志 原本 116)

水國高秋夜
危樓獨立辰
白鷗皆向我

바닷가의 가을밤이 깊은데
높은 다락에 홀로있는 처지로다
갈매기는 모두 나를 향하여 오는듯

清月復隨人	맑은달도 사람따라 뜨도다	人隨 (氏)
桑海悲千劫	상전백해가 몇만년이나 되는지?	桑海悲千劫
乾坤載此身	하늘과 땅은 이몸을 업신 여긴다	乾坤載此身
三更孤角語	밤중에 들리는 인정소리	三更孤角語
吹撼老龍鱗	늙은 소나무를 흔드는듯 하구나	吹撼老龍鱗

12. 李重協(原本 116)

清澗亭前石鬱峨	청간정앞에 석벽이 높으니	清澗亭前石鬱峨
遊龍戲抹黑雲過	용이 장난하는 물결에 검은구름 지나간다	遊龍戲抹黑雲過
滄波魚作鴻濛界	바다물결은 고기가 자연의 기운을 일으킴이니	滄波魚作鴻濛界
如此奇觀亦未多	이러한 구경거리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如此奇觀亦未多

13. 吳命俊(原本 117)

獨與詩僧對	홀로 글짓는 종과 상대하니	獨與詩僧對
洲山午夜闌	인간의 낮과 밤이 길도다	洲山午夜闌
星沈滄海燭	별빛이 비치니 바다가 빛나고	星沈滄海燭
雲凝碧窓寒	날이 저무니 방안이 차구나	雲凝碧窓寒
蓬萊秋應老	금강산에 가을이 깊으니	蓬萊秋應老
菊花露正圓	국화도 이슬을 받으리라	菊花露正圓
稍堪醒俗語	점차 속세를 잊어가니	稍堪醒俗語
知我是仙官	나도 신선인가 하노라	知我是仙官

所坡嶺(一名 石坡嶺 原本 117)

金克己	웅대한 기상이 진실로 석파령이구나	金克己
雄氣少似石坡嶺	공중에 솟은 바위가 붉기도하고 푸르기도하네	雄氣少似石坡嶺
空畔巉岩橫紫翠	구불구불 잘길이 얼마나 먼가	空畔巉岩橫紫翠
彎彎客路幾紆直	뱀처럼 구비친것이 삼백리나 된다고	彎彎客路幾紆直
一帶蛇奔三百里	나무가지에 다달려 노는것을 자주보겠는데	一帶蛇奔三百里
屢着樹杪掛猿猱	민 숲속에는 호랑이도 있을것 같네	屢着樹杪掛猿猱
遙認林間藏虎兇		遙認林間藏虎兇
更說何須蜀道險		更說何須蜀道險

校量宋省雜雜易

無盡臺 具思孟(原本 118)

無盡臺前無盡藏	무진대 정치가 무진강으로 많으니
登臨不封客程忙	올라갈 곳이 따로 떨어지는 않아도 갈길은 바쁘구나
欲酬形勢題詩句	형세를 말하고자 글한 수 읊으려고
坐久忘言意亦忘	오래 앉았으니 닳도 잊고 마음도 잊었도다

凌波臺 同人(原本 118)

踏盡鳴沙上玉峯	바다구경 다하고 산봉우리에 올라보니
滄波遙接碧空春	바다는 먼 하늘에 닿아있구나
一聲長笛三盃酒	긴 피리소리 돌으며 술 서너잔 마시니
此日偏知客興濃	오늘에야 객지의 흥취를 처음 알겠노라

茂松臺 鄭樞(溫陽人, 中宗時人 卜筮, 睿律醫術에 能함 原本 119)

砂店東孤島	사정(砂店) 동쪽 외로운 섬에
簫灑八九椽	새끗한 집이 八九채 있구나
漁舟橫別嶺	고깃배는 물가에 매어있고
收網夕陽邊	그물을 걸우기는 저녁때에 하도다

明波驛 鄭 樞(原本 119)

兩樹簷畔水連空	두그루 나무 처마끝에 물이 하늘에 닿았는데
蓬島雲煙一望中	봉도의 경치가 한눈에 보이도다
多少北來南去客	많고 적은 남북으로 가는 손님이 보인듯이
山花無數笑春風	산위의 많은꽃은 봄바람에 웃고있다

又 李達表(慶州人, 高麗學者 原本 119)

倚欄看雲水浮空	난간에 기대여 구름을 보는데 물은 공중에 떠구나
一簫須知樂在中	휘파람 한번 불어보니 기쁨은 여기있도다
濟海誰爲舟楫用	바다를 건너는데 누가 배를 거으려나?
揚帆已有大王風	배를 띄우니 벌써 큰 바람 불어오네

跋文

通/通 于/于 叶/叶

(續)轉一頁, 하계 이거를 찾이다.

跋 文

1631年(辛未, 仁祖9年) 澤堂 李恒이 本郡 郡守로 在職하면서 편찬(編纂)한 수성한집(水城擧案=郡誌)에 계곡(谿谷) 장유(張維, 1587年~1638年)의 서문(序文)이 이제야 杆城의 山川과 民物이 두가지 득(得)이 되었으니 하나는 張公의 드러남이고(顯), 다른 하나는 杆城의 다행(幸)이니라.

그후 郡守 김광우(金光遇)씨의 중수문(重修文=남은 것을 다시 새롭게 고친대 대한 글)은 이전의 군지(郡誌)를 아주 새롭게 고쳐 전인(前人=예전 사람)을 빛나게 한 것, 또한 杆城의 후이니라. 그리고, 그 신증부록(新增附錄=새로 보태고 채워넣고, 본문외에 덧붙인 기록)이 어떤 사람의 저술(著述)한 것인지 생각(考)할 수가 없다.

今年 봄 불녕(不佞=文章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두렵게 왕명(出命)으로 편읍(縣邑)을 다스리고 군지(郡誌)를 열람(閱覽)하고 모은 폐단과 뒤섞인 것을 도려내지 못하였다. 남몰래 읽어보니 심히 두렵고 실의(失意)에 빠져 마침내 한림의 속편(續編)을 선사(繕寫=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껴)하였다.

이미 여러분의 찬술(撰述=著述)이 속편을 덮고 있는데 불녕(不佞=글에서 자기를 겸손하는 말) 어찌 감히 채언(贅言=쓸데없는 말을 덧붙임)하겠는가. 前後(上下) 수백년간 사례(事例=일의 實例, 前例)와 손익(損益=손실과 이익)과 대서(臺榭=둘레를 내려다 보기 위해 크고 높게 세운 누각, 정각)의 흥폐(興廢=興亡), 옛날과 지금이 서로 다른 것, 이런것이 교정(校正), 첨가(添載)하는 까닭이다. 기타 범례(凡例)를 한번 보니 前에는 사치(奢侈)하지 않았고, 후에는 쇠퇴하지 않아 부당이 없다. 여러분들의 찬술(撰述)의 노력 이것이 부족한 나의 뜻이니라 後代의 여러 집구와 더불어 나의 같은뜻이 이돌리어, 되어나가고, 이어가고, 고치고 하여 郡誌가 增補되어 잘 것이다.

1884年 甲申(高宗 21年) 늦여름 濟州 高永喜 謹跋

翻譯 編輯 後記

淺學菲才한 語學의 門外漢이 貴重한 古典을 翻譯하게된 것이 過分한 榮光이오나, 한편 悚懼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漢文의 不足함을 탓하면서 몇번이나 망설였습디만, 몇장 解釋을 라는 사이에 새로운 內容들을 接하게 되면서 勇氣가 솟아났습니다.

다른 硯誌와는 달리 奇蹟같은 傳說이나, 誇張된 人物의 業績도 별로 보이지 않고, 特히 마음이 끌리는 것은 庶民生活와 直接 關係된 租稅制度 있습니다.

杆城의 秀麗한 景致가 原文에 多少 소홀하게 記錄된 憾이 두나디만, 漢詩에 充分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歷代 郡守의 學識과 敎養의 格이 높다는 感覺을 받았습니다. 當代 屈指의 文章家나 學者 政治家들이 여러분 있고, 弘文館 大提學이나, 府尹, 判官, 其他 京職으로 除授된 郡守가 많은 것으로 보아 當時의 郡守는 相當한 資質을 갖추었다고 보아집니다.

또 한가지 官吏 採用에 있어서 族閥의 힘이 作用 한듯 합니다. 郡守 190名中 金氏가 16名, 李氏 44名, 朴氏 10名이었습니다.

水城誌와 杆城邑誌가 200餘年에 걸쳐서 두번에 發行되었으니, 內容은 대부분 같습니다. 400餘年間의 事實들이 校正, 添載, 附錄, 新增, 雜記 등의 形式으로 增補가 많고, 時間과 內容이 縱橫으로 뒤엉켜 重複되는 것을 가려내고, 部門別로 分類하는데 多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값으로 漢詩 解釋을 도와주신 朴容起 先生께 感謝드립니다.

1995年 6月

朴升漢 謹啟

譯者 略歷

1927年 江原道 春川郡 新北面 出生.

春川師範學校 卒業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地理科 卒業

京畿商業高等學校 敎師

農村, 農民運動

自由社會運動

William Godwin(英)의 「政治的 正義」翻譯